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CHURCH GROWTH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AND MISS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HINLIM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JOON SIK CHU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Moon Sang Kwon

---

Young Shin Kim

---

Seyoon Kim

DECEMBER 10, 2004

**CHURCH GROWTH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AND MISS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HINLIM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OON SIK CHUN**

DECEMBER 2004

# 제자훈련과 선교를 통한 교회성장 전략 연구

- 신림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전 준 식

2004년 12월

## Abstract

Church Growth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and Miss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hinlim Presbyterian Church

Joon Sik Chun

Doctor of Ministry

200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Church was grown up in the aspect of the number of its membership during the past, but she, however, has come to be on a decreasing trend, passing through a stage of stagnant. As a result of it, Korean Church is now putting much interest in how she can regain its past growth.

The goal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 make clear the importance of 'Discipleship Training' and to show why this does work for church growth; second, to clarify my position that it is to avoid the view that the discipleship training has to remain just as a mean of church growth and that the dynamic of discipleship training can be experienced only if the discipleship training should be connected to the mission.

This study consists of 8 chapters: the first one is the introduction in which the question of a stopped growth of Korean Church is to be raised and the reason of my picking the topic of discipleship training as an important instrument for church growth is also to be dealt with. Chapter 2 cover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ipleship training and church growth in terms that the discipleship training is both a ministry done by Jesus and a ministry that secures an important position among the current scholarship of church growth. Chapter 3 compares a mission with discipleship training to the mission without it, and that comparison will show that the latter turns out to be a result-oriented mission. Chapter 4 deals with the locality of Shinlim Church, which I am now serving, and her regional setting reveals not only that discipleship training is what she should be but also that this

training program in its regional characteristic should be heading toward mission. In the conclusion part of this chapter, the discipleship training and mission is defined as the pastoral philosophy of Shinlim Church. Chapter 5 shows how the actual state of discipleship training in Shinlim Church is, and chapter 6 illustrates the actual condition of current mission in Shinlim Church. Chapter 7 provides some suggestive plans about discipleship training and mission, through which I hope our church to regain a sound growth. Chapter 8 has the summary and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main thesis of this study is that neither discipleship training without mission nor mission without discipleship training is to be chosen, but a systematically related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can bring about the sound church growth.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Young Shin Kim, Ph. D

Seyoon Kim, Ph. D

## 감사의 글

아무 것도 아닌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사역 기간 동안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본 논문 작성을 위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권문상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목회적 관점에서 성경 신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성경신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신 김세운 박사님께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주신 신림교회 장로님들, 조언을 해주신 배요한 목사님, 서투른 타자를 도와주신 박승호 목사님과 최정희 목사님, 박은실 자매님과 동역자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늘 새벽 마다 아들의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머니 김수자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위하여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어 주신 정요한 장로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저에게 기꺼이 아픈 충고를 하는 아내 정란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아빠의 논문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격려해 주고 기뻐해 준 주혜와 상우, 그리고 막내 조대훈에게 아빠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 전준식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 2 장 제자 훈련과 교회 성장의 도구화 .....	7
제 1 절 교회 성장 이론 .....	7
1. 교회 성장의 정의 .....	8
2. 교회 성장 운동의 역사적 배경 .....	9
3. 교회 성장 학자들의 이론 .....	10
4. 평가 .....	15
제 2 절 제자 훈련에 대한 고찰 .....	17
1. 제자 훈련의 정의 .....	17
2. 예수님의 제자 훈련 .....	19
3. 사도들의 제자 훈련 .....	24
4. 평가 .....	27
제 3 절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제자 훈련의 오용 .....	28
1. 제자 훈련의 오해 .....	29
2. 양적 성장의 도구로 제자 훈련 .....	34
3. 건강한 제자 훈련 .....	37
4. 평가 .....	38
제 4 절 결어 .....	39
제 3 장 선교에 관한 고찰 .....	40
제 1 절 선교에 관한 성경적 고찰 .....	40
제 2 절 선교에 관한 신학적 고찰 .....	45

제 3 절 선교 주체 .....	47
1. 선교 주체로서 교회 .....	48
2. 선교 주체로서 선교 단체 .....	49
3. 제 3의 선교 주체인 평신도 .....	50
4. 평가 .....	53
제 4 절 성과주의적 선교 .....	54
1. 성과위주적 선교 역사 .....	55
2. 성과위주적 선교의 폐해 .....	59
3. 평가 .....	65
제 5 절 결어 .....	67
 제 4 장 신림교회의 제자 훈련과 선교의 성경적 기초 .....	69
제 1 절 신림교회 지역 연구 .....	69
1. 지리적 위치 .....	70
2. 경제적인 상황 .....	71
3. 시설현황 .....	72
제 2 절 제자 훈련과 선교의 성경적 기초 .....	78
1. 신림교회 교회론 .....	78
2. 신림교회 제자 훈련론 .....	82
3. 신림교회 선교론 .....	85
4. 평가 .....	89
제 3 절 결어 .....	89
 제 5 장 신림교회 제자 훈련의 실제 .....	91
제 1 절 신림교회의 역사 .....	91
제 2 절 준비 단계 .....	93
제 3 절 제자 선택과 방법 .....	97
제 4 절 가르침(훈련) .....	100



제 5 절 재생산 .....	107
제 6 절 결어 .....	110
제 6 장 신림교회 선교의 실제 .....	112
제 1 절 선교를 위한 준비 .....	112
1. 준비단계 .....	114
2. 담임목사의 선교 철학 .....	115
3. 강해 설교 .....	117
4. 구역을 통한 선교 훈련 .....	119
5. 선교 위원회 .....	120
제 2 절 선교 실제 .....	121
1. 선교 동원 및 선교 증보기도 모임 .....	122
2. 선교 학교 .....	123
3. 선교 축제 .....	124
4. 선교 여행 .....	125
5. 사역 내용 및 선교사 파송 .....	125
제 3 절 결어 .....	127
제 7 장 제자훈련과 선교를 통한 교회부흥 방안 제시 .....	130
제 1 절 제자훈련과 선교를 통한 목회 평가 .....	130
제 2 절 발전 방향 제시 .....	132
제 8 장 결 론 .....	134
부록 .....	138
참고문헌 .....	139
Vita .....	143

## 표 목 차

<표 1> 교회 중심의 선교 .....	53
<표 2> 선교회 중심의 선교 .....	54
<표 3> 신림9동의 주택현황 .....	71
<표 4> 신림9동의 저소득 주민 현황 .....	72
<표 5> 신림9동의 기관 및 시설 .....	72
<표 6> 신림9동 민원 업무 처리 실적 .....	73
<표 7> 신림교회 새 신자 통계 .....	74
<표 8> 각 나라 교회의 선교사 파송 통계 .....	128

## 그림 목차

<그림 1> 도슨 트로트맨의 영적 배가 1 .....	26
<그림 2> 도슨 트로트맨의 영적 배가 2 .....	26
<그림 3>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등록한 새 신자 그래프 .....	74
<그림 4> 선교하는 교회 .....	83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선교 100여 동안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 교회와 교인수의 증가와는 반비례적으로 굴직굴직한 사회 부패 문제에 연류된 교회 향촌 직분자들이 있었다.<sup>1)</sup> 부패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 국민들은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 내지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짐 그래함(Jim Graham)이 말한 교회에 대한 ‘냉소주의’와 ‘신뢰 상실’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갖는 냉담함은 생각보다 심각하다.<sup>2)</sup>

교회 교인 수가 둔화를 넘어서 급기야 감소하는 현실이 되자, 마이너스 성장기로 접어든 한국 교회는 새로운 세기에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중 하나가 제자 훈련이다. 한국 교회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던 제자 훈련을 일선 목회 현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다. 성경은 제자 훈련의 모델이 있다.

1) 1998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외화도피 사건과 관련되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51)가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54)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이들은 서로를 “권사님”으로 호칭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논술을 함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적잖은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2) Jim Graham,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The Giant Awakes)*, 윤준서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91), 8.

성경에 나타난 제자 훈련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교회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제자 훈련 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만일 개교회 중에 제자 훈련하고 있거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있다면 그 제자 훈련은 성경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교회는 성장의 도구로 선교를 택하기도 한다. 물론 초대 교회는 선교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선교하는 초대교회는 제자 훈련과 선교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초대교회의 제자 훈련은 선교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시해야 한다.

초대 교회의 제자 훈련은 선교하기 위함이었다. 제도적인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선택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초대 교회의 제자 훈련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집에 있던 성전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행 5:42).

그러나 오늘의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을 교인을 늘이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일 제자훈련이 개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만 시도된다든지, 교회 성장을 위하여 선교를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성장을 꾀한다면 그 성장은 기형적인 성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훈련’과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교회가 초대 교회의 말씀중심인 교회로 훈련해야 한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교회의 몸집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증언하기 위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자 훈련과 선교를 따로 분리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선교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를 위한 제자 훈련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제자 훈련 없는 선교는 물량주의 선교나 성과 위주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이 선교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보편적인 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해 왔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제자훈련’과 ‘선교’이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지난 10여 년간 신림교회는 지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다. 그 결과 장년층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청년층은 4배 이상 증가하였다.<sup>3)</sup>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제자훈련”과 “선교”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위하여 노력했다.

제자훈련은 먼저 철저히 성경공부를 통해 이뤄졌다. QT와 일대일 제자훈련 성경공부, 그외 다양한 성경공부를 통한 실천과 배움의 장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발굴했다. QT의 생활화를 통하여 평신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가져왔고, 각자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소유하게 되었다.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QT하는 모습은 연령 대에 상관없이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시키는 모습으로 정착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교회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 일으켰다. 특별히 3, 40대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3, 40대 남성들의 자연스런 수적증가와 함께 선교의 관심과 실천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신림교회는 지역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주변에는 고시원들과 하숙촌이 형성되어 있다. 신림교회는 새로 등록하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이다. 그 중 상당수는 주위 고시원 주인의 권유로 본 교회에 등록 한다고 한다.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고시원 주인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고시생들에게 본 교회에 등록하도록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 전국적으로, 열방으로 보낼 비전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지내는 젊은이들은 고시를 합격하면 지방(행정고시, 사법고시)이나 외국(외무고시)의 근무지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림교회의 목회 철학을 제자훈련이라는 input과 선교라는 output으로 정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초대 교회를 회복하려고 한다. 본 연구자가 처음 신림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자훈련과 선교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sup>4)</sup> 하지만 1995년부터 시작된 정탐 여행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도전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미전도 종족 운동본부로부터 소개받은 V국 소수 부족인 C족을 입양하였다. 동시에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훈련”을 진행시켜 나갔다. input에 해

3) 10여 년 전, 장년층 출석교인은 450여명, 청년층은 70~80여명이었다. 작년 예배 출석교인은 장년 800명 이상, 청년층은 4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순수 출석교인만을 의미한다.

4) 본 연구자는 input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자훈련으로 보았고, output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교로 보고 목회 사역에 전념하였다.

당하는 제자 훈련과 output인 선교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 나갔다. 그 결과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었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제자 훈련'이 자연스럽게 '선교'로 연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교회 내에 각 나라를 선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선교사 후보생 그룹들이 조직되어 있고, 증보 기도하는 기도회가 조직되어 있다. 지난 2003년에는 V국 내 국립대학에 한국어 학당을 건립하게 되었다. 현재는 V국만이 아니라 라 일본과 중국에까지 선교의 영역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물론 우리는 해외 선교만 고집하지 않는다. 제자 훈련은 국내선교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제자 훈련과 해외 선교에 그 연구 범위를 한정하려고 한다. 우리가 다루지 않는 국내 선교에 대해서는 제 2절인 연구 방법과 범위에서 간략히 설명하겠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는 명제와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명제 하에 제자 훈련은 선교와 유기적으로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 신림교회가 10여년에 걸쳐 제자훈련과 선교의 역동성을 가지고 진행해 온 목회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며, 제자훈련과 선교 마인드가 없는 기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접목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총 8장으로 구성해 보았다.

1장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와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해 논하고, 2장에서는 모든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기 위하여 교회 성장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동시에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성경에 나타난 제자 훈련에 언급하겠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성장은 제자 훈련을 프로그램으로 시행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 동시에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제자 훈련의 폐해를 말하겠다. 3장에서는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신념으로 제자 훈련이 없이 행해진 성과위주의 선교 역사와 그 폐해에 대하여 말하겠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이론과 제자 훈련이 선교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4장은 신림교회의 제자 훈련과 선교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이론과 함께 우리의 목회 철학을 제안하기로 한다. 5장에서는 신림교회 내의 실제적 제자 훈련 다루고 6장에서는 선교훈련을 실제적으로 언급하겠다. 7장에서는 제자훈련과 선교를 통한 교회부흥 방안 제시하고 8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으로 제자 훈련과 선교를 통한 목회의 의의와 한국 교회의 의식 전환을 언급하며 마치고자 한다.

물론 우리는 선교를 해외 선교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현대교회 성장학의 창시자인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bran)은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론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내에서도 폭 넓은 선교 개념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 선교를 타 문화권 전도로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전도와 사회봉사를 선교로 간주하기도 한다. 영국의 스톡트는 에큐메니칼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의 양극화를 절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스톡트에 의하면 "교회는 '선교'란 말이 좋은 것 같으나 실상은 과장이다. 교회는 봉사의 단체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단체이며, 예배와 봉사가 서로 소속적이긴 하지만 혼동된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에큐메니칼 선교를 부정한다. 동시에 그는 복음 전도와 사회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선교관을 주장한다.<sup>5)</sup>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두 가지 측면, 곧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땅 끝까지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만이 아니라 구제 사역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해외 선교만 선교라 하지 않는다. 본 교회에서는 건강하게 자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내 곳곳에서 구제 사역을 한다. 서울역의 노숙자 사역<sup>6)</sup>, 가정에서 위탁하여 아이를 양육해 주는 위탁모 사역<sup>7)</sup>, 사회에서 격려된 사람들을 위한 교도소 사역<sup>8)</sup>을 한다. 이

5)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 협회, 1992), 21.

6) 2001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노숙자들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를 세워 사역하고 있다. 전교인들의 관심을 위해 매달 첫 새벽예배인 월삭 예배 시에 헌금 시간을 갖는다. 이 헌금은 전액 서울역 노숙자(소망을 찾는 이)를 위한 사역에 사용하고 있다.

7) 2004년 교회 내 두 가정에서 서울 역의 노숙자 유아를 위탁하여 돌보고 있다. 지난 2004년



사역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동시에 청년들의 거지 순례 전도, 노방전도와 같은 사역들,<sup>8)</sup> 국내 사역을 우리는 유대 사역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땅 끝의 사역이라 할 수 있는 해외 선교를 중점으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논하려고 한다.

---

9월 1일에는 27년간 아버지와 헤어진 노숙자 형제에게 아버지를 찾아 준 기쁜 소식도 있었다 (KBS 아침마당 9월 1일 방송).

8) 2003년 12월부터 교도소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다.

9)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교회와 Holy Fire(중고등부)는 각 지역으로 분산하여 농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역, 거지순례전도, 편부와 편모를 둔 아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실시 하였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 제 2 장

### 제자 훈련과 교회 성장의 도구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다. 한 개인의 철학도 아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이다(마 28:19, 20). 우리는 이 명령을 무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회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있을 것(마 28:19, 20)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라 제자 양육을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선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교적인 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C. S. 루이스는 “영원하지 못한 모든 것은 언제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sup>10)</sup>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교인수를 늘려서 인정받는 곳도 아니다. 교인이 많은 것을 능력으로 말해서도 곤란하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군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다.

#### 제 1 절 교회 성장 이론

한국교회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의 성장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고,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 또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교회개혁이나 갱신에 대한 요구가 교회 안팎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주를 향한 교인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하여도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성장의 책임

10) Walter A.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Disciples are Made-not Born)*, 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80), 5.

은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교회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 들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의지해서 목회를 담당하는 자는 결국 인간인 목사와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사의 역할이 교회성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가 교회성장을 열망해야 하고 교회성장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sup>11)</sup>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목사 혼자 하느라 시간을 빼앗기는 대신, 제자 훈련, 권한 위임, 그리고 재생산에 투자해야 한다.<sup>12)</sup>

본 장에서는 교회 성장 학파를 대표하는 도날드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의 이론을 살펴보면서 교회 성장학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 1. 교회 성장의 정의

교회 성장이란 무엇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성장이란 대부분 양적인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양적 증가 또한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개교회의 세례 교인 수를 말하는 것인지 등록교인 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일 오전 예배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단기간 내에 크게 성장했다고 하면 모두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아마도 한국 교회에서 논의 되고, 응용되고 있는 교회 성장의 관심은 미국에서 도입된 풀러 학파의 이론 일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성장은 어느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의 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본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교회 성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사도행전의 초점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

11) 명성훈, *교회성장 마인드* (서울: 국민일보사, 1995), 81.

12)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22.

아 죽였으나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행 11:34-43). 따라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1장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 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끝맺고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양적인 교회 성장은 성경에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나 복음 전파에 비하면 오히려 이차적이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장은 제자를 삼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회만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 세상에 나가 담대히 전함으로 또 다른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 2. 교회 성장 운동의 역사적 배경

교회 성장 운동은 신학적 칼라에서 복음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sup>13)</sup> 복음주의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지만 데이비드 베빙턴(David William Bebbington)은 복음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요소로 종교적 체험으로서 종생을 강조하는 회심주의, 성서의 궁극적인 권위를 신뢰하는 성서주의, 복음전파에 관심을 두는 활동주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에 초점을 두는 십자가 중심주의를 말하고 있다.<sup>14)</sup> 교회 성장 운동은 신앙의 체험적 측면과 개인의 종생체험, 그리고 복음전도에 강조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 복음주의의 전통에 가깝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교회 성장운동은 오순절 운동과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은사적 복음주의의 전통도 이어받고 있다.<sup>15)</sup>

20세기 선교 신학과 선교 실재에 대한 복음주의의 공헌은 맥가브란을 효시로 한 교회 성장 운동이었다. 도날드 맥가브란이 교회 성장운동의 사상을 처음으로 저술하

13) 한국 선교 신학회 편, “선교와 교회 성장”, *선교학 개론* (서울: 기독교 서회, 2001), 179.

14) David William Bebbington,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London: Unwin Hyman, 1989), 22-23.

15) 한국 선교 신학회 편, *선교학 개론*, 180.

기 시작한 것은 1936년도였다. 그러나 이 연구 활동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맥가브란의 저서 *The Bridges of God*(1955)과 *How Churches Grow*(1959)가 나오면서 부터였다.<sup>16)</sup>

‘교회성장’이란 용어는 도널드 맥가브란이 ‘교회’와 ‘성장’이란 두 단어를 합친 개념이다. 맥가브란은 자신이 발전시킨 사상을 ‘전도’ 혹은 ‘선교’라는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원했으나, 그는 그런 용어들이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나머지 신선하고 의미 있는 말을 찾기 위해 애쓴 결과 평범한 두 개의 말, 즉 ‘교회’와 ‘성장’을 결합시켜 ‘교회성장’이란 용어로 정착시켰다. 그는 “교회성장 원리의 목적은 새로운 땅에 교회를 늘려나가고 또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sup>17)</sup>이라고 하였다. 맥가브란은 물론 이 교회 성장 원리가 세계 각국 모든 교회에 응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맥가브란은 연사로서 많이 초청 받게 되고 교회성장 특별 강좌를 노스웨스트 크리스천 칼리지(Northwest Christian College)에서 1961년에 개설하였다. 1966년에 풀러 신학교에서, 세계선교와 교회성장 연구원을 세워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다. 그 후 *교회성장 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1970)를 출판하여 교회성장의 체계를 잡았다. 이 책은 그의 대 걸작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교회성장 원리에 눈을 뜨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 성장 원리를 거의 다 해외의 교회 발전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보편타당한 원리를 천명하였다. 이 저서는 교회 성장 운동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교회성장운동이 점차 대중적으로 파급되었고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교회 성장학은 1974년 로잔 대회的主제가 되었고, 복음주의교회와 선교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sup>18)</sup>

### 3. 교회 성장 학자들의 이론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원인과 요소가 복잡하

16) C. Peter Wagner, *교회 성장 원리*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9.

17) Ibid., 10.

18) Ibid.

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의 일반적 요인들은 학자들에 따라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맥가브란의 이론과 교회성장 운동을 계승 발전시킨 피터 와그너의 이론을 잠깐 살펴보고 이것을 평가하려 한다.

#### 가. 도날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원리

폴러를 중심으로 한 맥가브란의 사역은 교회 성장운동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동료 알란 테페트(A. R. Tippett), 랄프 윈터(Ralph Winter), 아더 글래스(Arthur Glasser) 등과 함께 교회 성장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다.<sup>19)</sup>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진 많은 교회 지도자 및 학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까지 제 3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 성장이론이 발전되었다고 하면 1970-80년대에는 미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 성장이론이 발전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피터 와그너, 조지 헌터, 에디 김스, 윈 안, 라익 샬러, 엘머 타운즈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이었다.<sup>20)</sup>

맥가브란과 그의 제자 윈필드 안(W. C. Arn)이 함께 저작한 *교회 성장의 열 단계* (*Ten Steps for Church Growth*)<sup>21)</sup>를 기초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 원리를 이렇게 정리 할 수 있다.

제 1단계, 교회 성장 원리를 발견하라.<sup>22)</sup> 교회성장의 원리를 발견하려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사실상의 교회성장을 이룩한 곳은 어디이고 교인수가 늘어나고 새 신자가 생기는 곳은 어디인지, 남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그 분에게 생을 맡기고 자기 교회의 책임이 있는 교인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된다. 이를 통해 성장 요인, 노력, 기도, 증거, 열심, 가르침, 교육, 성경적 근거 및 미치는 범위의 관찰, 연구한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서 충실히 기술하면 교회성장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존신자에게는 성숙이 필요하고 구원받지

19) 한국 선교 신학회 편, *선교학 개론*, 181.

20) Ibid.

21) Donald McGavran and W. C. Arn, *교회 성장의 열 단계* (*The Steps for Church Growth*), 오태용 역 (서울: 신광출판사, 1993), 23.

22) Ibid., 25-33.

못한 사람에게는 전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2단계, 교회는 성경적 원리를 존중할 때 성장한다.<sup>23)</sup> 이들이 말하는 성경적 원리를 존중한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맥가브란은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다. 둘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본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긍정하는 것이다. 넷째로,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이다. 다섯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섯째로, 교회성장을 위해 이해심을 갖고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 일곱째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 3단계, 교회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에 순종할 때 성장한다.<sup>24)</sup> 교회 성장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가정, 친족 및 계급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제 4단계, 교회는 효과적인 복음전도에 우선권을 부여할 때 성장한다.<sup>25)</sup> 여기서 말하는 복음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의 제자와 교회의 책임 있는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고, '설득'이란 말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구주를 선포하였으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칠 때 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며,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란 선포와 설득으로 믿고자 한 자들이 자기의 습관, 생각, 감정, 느낌 및 물질과 시간의 소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둔다는 뜻이며, 책임 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추진하는 일(봉사, 예배 및 다른 교인들과의 즐거운 교제 등)에 참여하고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 5단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옳게 분별 할 때 성장한다.<sup>26)</sup> 몸 된 교회의

23) Donald McGavran and W. C. Arn, *교회 성장의 열 단계*, 34-46.

24) Ibid., 47-63.

25) Ibid., 65-76.

26) Ibid., 76-89.

교인들에 대한 풍부하고도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경건하게 분별되고 과학적으로 기술된 그리스도의 몸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가브란은 몸의 분별에 착수하려면 먼저 교회의 모든 면(성장사, 현재의 상태 및 잠재력)을 정확히 보는 성장안목을 가져야 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안개들을 제거해야 하며 회중들에게도 성장안목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제 6단계, 교회는 지역사회를 옳게 분별 할 때 성장한다.<sup>27)</sup> 목회지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분포된 것을 기준으로 할당한 통근거리 안쪽은 교회의 제 1 목회지역이다. 이 지역을 유능한 낚시꾼이 다양한 미끼를 사용하는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옳게 분별하게 되면 성장의 필요와 기회는 자연히 부상 할 것이다.

제 7단계, 교회는 새로운 집단을 찾아내어 제자훈련을 시킬 때 성장한다.<sup>28)</sup> 사회의 한 구석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는 한 집단에서 시작하여 점점 확장되어 가야 한다. 교회는 새로운 집단을 찾아내어 제자로 훈련시킬 때 성장한다.

제 8단계, 교회는 스스로의 가족계획을 통해 번식해 갈 때 바로 성장한다.<sup>29)</sup> 현재의 회중들이 점점 커짐으로써 새로운 자교회를 설립함으로써 확장해 가는 것이다. 자교회 설립이 가능한 교회를 맥가브란은 자체 건물과 목사가 있는 교회라고 하였다.

제 9단계, 교회는 성장체계를 갖출 때 성장한다.<sup>30)</sup> 교회성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 의식을 확립해야 하고 둘째, 필요와 기회를 확인해야 하고 셋째, 신앙 목표를 확립하고 넷째, 평신도를 훈련에 참여시켜야 하고 다섯째, 몸을 올바르게 분별 하고 여섯째,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일곱째,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여덟째, 자원을 성장에 투자하고 아홉째, 효과적인 전도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열째, 영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 10단계, 교회는 성장을 위한 모험을 할 때 성장한다.<sup>31)</sup>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이 교회성장을 촉진한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27) Donald McGavran and W. C. Arn, *교회 성장의 열 단계*, 90-96.

28) Ibid., 97-110.

29) Ibid., 111-121.

30) Ibid., 122-138.

31) Ibid., 139-149.



뜻이라면 과감히 추진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 보는 모험 등이 교회성장의 열쇠가 된다. 믿음이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 보게 하고 우리가 자진해서 도약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확실한 보증이다.

#### 나.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원리

피터 와그너는 미국 뉴욕에서 출생하였고,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고 폴러 신학교 교수로 활동하였다. 그가 미국교회 성장에 공헌을 한 것은 1976년에 출간한 *Your Church Can Grow*라는 책이었다. 1956년 이래 천 편이 넘는 기사와 논문을 집필했고 6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맥가브란이 교회성장운동의 생산자라면, 와그너는 교회성장운동의 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다. 와그너는 교회성장운동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시켰다. 그가 교회성장의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계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sup>32)</sup> 피터 와그너는 건강한 교회의 일곱 가지 표적(표시)<sup>33)</sup>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목사는 적극적인 사교방식과 힘찬 지도력을 가지고 전체 교회로 하여금 성장을 향한 활동을 하도록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로 기동성 있는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발전시켜서 성장을 위해 유효하게 사용해야 한다. 셋째로 교회는 교인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규모가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넷째로 대예배와 모임과 세포조직이 세 가지 사이의 능동적인 관계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로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질 구성단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교회가 효과적인 전도방법, 즉 제자를 만드는 데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전도운동과 교회성장 운동에 있어서 의도하는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결신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며 권면하는 일은 제자들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제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

32) 명성훈, *교회성장 마인드*, 70-73.

33) Wagner, *교회 성장 원리*, 252.

다. 일곱째로 우선순위들을 성경적인 순위대로 정렬하여야 한다.

우선순위는 첫 단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보호해야 한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

피터 와그너는 20여 년간 도날드 맥가브란과 함께 교회성장 운동을 해왔다. 도날드 맥가브란이 교회성장 원리의 기초를 놓았다면 와그너는 그 원리를 확대 및 발전시켰다. 도날드 맥가브란이 선교현장에 교회성장원리를 적용했다면 와그너는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도날드 맥가브란의 성장 원리에는 영적 요인이 부족하였는데, 와그너는 능력 전도, 영적 전투 그리고 기도라는 영적 요소를 보완하였다.<sup>34)</sup>

#### 4. 평가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 그리고 교회 성장에는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에 대해 강력한 소원을 가져야 하며 성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불 할 대가는 무엇인가? 도날드 맥가브란은 그의 교회 성장 10단계 중에서 3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가정, 친족 및 계급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고 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교회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에 우선권을 부여할 때 성장 한다.<sup>35)</sup> 여기서 말하는 복음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의 제자와 교회의 책임 있는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7단계와 9단계에서도 맥가브란은 교회는 새로운 집단을 찾아내어 제자훈련을 시킬 때 성장하고, 평신도를 훈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피터 와그너에게서도 제자 훈련과 선교를 찾을 수 있다. 그의 건강한 교회의 7가지 표적 중에서 둘째와 여섯째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기동성 있는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발전시켜서 성장을 위해 유효하게 사용해야 하고, 교회가 효과적인 전도방법, 즉 제자를 만드는데 그 기

34) Peter Wagner, *교회 성장 원리*, 47.

35) Ibid., 65-76.

초를 두어야 한다. 전도운동과 교회성장 운동에 있어서 의도하는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 정리해 보면 전도운동과 교회성장 운동이 의도하는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 성장이란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 성장과 쇠퇴 요인에 대해서 연구한 더들리에 의하면 교회와 주변 환경의 상호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sup>36)</sup> 주위의 환경을 무시하고 교회만을 따로 생각하거나 교회를 무시하고 환경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넓은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교회와 세상, 이 둘의 관계는 역동적이며 열매를 맺는 상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교회 성장주의자들의 이론과 일치하고 있다. 제자훈련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면 선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사역이다. 제자 훈련과 선교의 관계는 역동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변증적이어야 한다. 제자 훈련만으로 사역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곤란하고 제자 훈련을 통한 선교가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교회 성장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선교 없는 제자 훈련은 단순히 교회 몸집만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제자 훈련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자 훈련은 교회와 주변 환경 사이에 있는 상호 작용의 변화에 적절한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선교나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제자 훈련에 관한 고찰

제자 훈련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이론서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다.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

36) Carl S. Dudley, *Where Have All Our People Gone? New Choices for Old Churches* (New York: Pilgrim, 1979), 57.

훈련은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두기 보다는 성경적인 교회로 서기를 원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1. 제자 훈련의 정의

제자(disciple)와 훈련(discipline)은 같은 어원에서 연유된 것인데 제자란 선생에 의하여 부과된 훈련을 자의적으로 순종하여 복종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더욱 엄격한 훈련을 자기 자신에게 부과할 줄 아는 사람이다.<sup>37)</sup>

근본적으로 '제자' 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학습자 혹은 학생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 학생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한다. 그들은 대개 더 큰 목표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배움의 터 위에 있도록 부르셨다. '제자'는 정체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자'라는 단어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목표를 이루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제자'는 또한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sup>38)</sup>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은 많은 성경 공부 중에 하나인 성경 공부가 아니다. 참된 제자 훈련은 예수님 닮기 훈련이요 삶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디트리히 본회퍼는 말했다.<sup>39)</sup>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뿐인 많은 평신도들을 깨워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소명자로서 상호 사역하고, 증거 하는 공동체로서 재조명되어야 하는 것이다.<sup>40)</sup>

성경에는 제자 훈련 과정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의 제자란 말의 히브리어는 "ṭāḇ" (라마드)에서 온 말로 "ṭāḇ" (탈미드)가 두 번만 사용되었다(대상 25:8 사 8:16). 한번은 성가대와 관

37) J. Oswald Sanders, *영적 지도력 (Spiritual Leadership)*,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2), 80.

38) Josh Hunt and Dr. Larry Mays, *왜 내게 배우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가? (Disciple-Making Teachers Discipleship)*, 최일희 역 (서울: 디모데, 1999), 23.

39) Davids Watson,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4), 17.

4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84), 17-18.

련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한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켜야 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sup>41)</sup> 제자의 “תלמיד”(탈미드)는 특별히 숙달되지 못하고 덤병대는 자들을 징계하거나 엄한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고 길들이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תלמיד”(탈미드)의 뿌리인 “למד”(라마드)는 “~하는 데 익숙하다, 배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약성경에서의 제자란 용어는 “μαθητής”(마세테스)로 나타난다. 이것은 “μαθητεύω”(마세튜오)에서 유래한 것이다.<sup>42)</sup> 이 용어의 의미는 배우는 자, 생도,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43)</sup> 이 용어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총괄하는 말로서 단순히 선생과 제자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더 깊숙이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들의 신분까지도 보장해 주는 주인으로서 예수님과 맺는 관계를 나타낸다.<sup>44)</sup>

‘제자가 되다’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 25회(복음서에는 6회)밖에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제자’라는 명사는 250여회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오직 이 제자란 용어는 사복음서에서와 사도행전에서만 사용된 특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마가는 좁은 의미로 소수를 두고 사용했으나 다른 저자들은 일반 그리스도인 모두를 구별 없이 지칭했으며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때까지 믿는 자의 총칭으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서신서에서는 갑자기 제자란 말이 사라지고 성도란 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마 바울이 성서적이고 고상한 말인 ‘성도’란 용어를 발견했기 때문에 구태여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당시 철학도의 인상이 깊은 제자란 용어를 회피한데서 기인했을 것이다.<sup>45)</sup>

“μαθητής”(마세테스)는 그의 전 생애를 예수를 위해 조건 없이 희생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 생애를 이 예수님을 위해 바치고 그에게 포로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sup>46)</sup> 이런 특유의 개념은 세례

41) George Arthur Buttrick, “Disciple”,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Vol. 1 (New York: Abingdon, 1962), 845.

42) Ibid., 540.

43)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486.

44) Buttrick, “Disciples”,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Vol. 1, 845.

45) 변재창, *작은 목자 훈련* (서울: 두란노 서원, 1994), 29.

46) Arndt and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예언자들에게 자기들을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이다.<sup>47)</sup>

제자란 어떤 지식을 배우는 자이기보다는 오히려 스승의 행동을 또는 그의 삶을 배우고 따르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제자의 개념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해 쓰시고자 하여 그의 뜻대로 택하신 종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할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가 보내신 구원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철저히 낮아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에 헌신하는 자들이다.

제자 삼는 일은 주님의 명령이다. 하지만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변재창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에 대해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며(고전 11:1), 선택 받은 자이며(막 3:13-15), 또한 위탁받은 자(마 28:18-20)라고 말한다.<sup>48)</sup>

성경에서는 제자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행 6:1).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일반 평신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성경적인 제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성경적인 제자는 스데반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 2.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주된 활동 가운데 한 가지는 열두 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다. 3년여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가장 많은 시간을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

*Christian Literature*, 488.

47) Watson, *제자도*, 18.

48) 변재창, *작은 목자 훈련* 31-37.

자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 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눅 24:45, 49).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막 1:17)고 교훈하고 훈련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일, 즉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에 증인이 되게 함이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다(요 21:15-1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7-8).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예수께서 자신의 주위에 점차적으로 물려 든 제자들의 무리 중에서 열두 명을 선택하신 사건은 복음서에 있어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이다. 왜냐하면 초기에 예수께서는 혼자 일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두 제자가 선택될 즈음에는 하늘나라의 사업은 조직과 분업이 요구될 정도로 커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다 더 깊고 정교한 것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은총의 행위들도 점점 더 그 범위를 확장시켜 갔다.<sup>49)</sup>

그런데 예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결코 이들이 중심인물이 될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 중 누구도 회당에서 탁월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에 속해 있지도 않았다.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으며, 직업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 이외에는 아무런 전문적인 훈련도 받지 않았던 것 같다.<sup>50)</sup> 그렇다고 세계에 대한 견문이 넓었던 사람들도

49) A. B. Bruce, 열 두 제자 훈련 (*The Training of The Twelve*), 김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45.

50) 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

아니었다.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열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 사역의 보조자로서 일하고(마 15:13-21),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을 부여 받았다(행 1:8). 마침내 간절히 기도하던 중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게 되고(행 2:1-4), 이후 복음의 증인으로서 크게 사역하게 된다.<sup>51)</sup>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 주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요 14:25-26; 15:1-11).<sup>52)</sup> 예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삶을 함께 나누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삼으셨다.

예수의 훈련 내용은 공동생활이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막 3:14). 이는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임과 동시에 예수의 제자 양성 방법이기도 하다. ‘공동생활’이란 ‘함께 사는 것’이며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살고,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의 일상생활을 보고 배우며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영적 생활을 본받아 성장하도록 하셨다. 예수는 그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돕고 섬기셨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를 삼는 목적은 첫째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자 하심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알기를 원했고, 또한 예수께서도 연약하고 문제 많은 그들을 알기를 원하셨다. 이처럼 공동생활을 통한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제자 양성 역사를 성공 할 수 있었다. 둘째로, 제자들 상호간에 사랑의 관계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서로 지역이나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까지 훈련

을: 생명의 말씀사, 1993), 23.

51) 이영훈, “성령운동과 제자 훈련과의 만남,” *교회성장*, 2004년 1월호, 42.

52) Steve Barker,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Good thing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89), 101.



하시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유일한 새 계명을 주셨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유일한 표시이기 때문이다(요 13:35). 셋째로, 제자들을 세상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다(마 12:39; 16:4).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공동생활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강하고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까지 훈련하셨다.

조금 더 예수님이 제자 삼은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이 제자 훈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친히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게 하셨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배우기 힘들면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알기를 원하셨다(요 14:11).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도록 가르쳐 주셨다(요 15:15). 둘째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반드시 말씀으로 훈련하셨다. 말씀을 듣고 받아 백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마 13:18-23; 막 4:13-20; 눅 8:5-15). 셋째로 예수님의 기적과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믿고 들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적용 할 때 제자들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하셨다(눅 24:19; 행 1:4). 넷째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즐기치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심으셨다(막 9:23; 11:22; 요 2:11). 다섯째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다(마 6:9-13). 여섯째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목자가 되도록 훈련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8:18-20).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일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셨다.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전제 조건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제시하는 목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장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자신을 위해 그리고 모든 일을 증거 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증인을 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신

다(요 14:12). 실제로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사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 양성을 통한 세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으로 인식해야 했다.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은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참 된 제자가 될 수 있었다(행 2:32, 3:15, 5:22, 10:39).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부탁하셨다. 때문에 성경 말씀은 제자 훈련을 하는 데 가장 완벽한 교재이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사용하신 가장 훌륭한 교재였다(요 17:8).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최소한도 66회의 구약 인용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도 90회나 구약을 암시적으로 사용하셨다.<sup>53)</sup>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배웠고 이들이 배운 말씀은 그들이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였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제자들을 3단계로 훈련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리스도로 믿고 사정이 허락할 때, 특히 특별한 절기 때 간헐적으로 그 분과 동료로 행동하던 단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들과 그리스도와와의 교제가 세속 직업에 대한 전적인 포기 혹은 계속되는 포기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전적인 추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가장 고차원적이고 최종적인 훈련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그들은 하나의 선택된 그룹을 형성하여 사도직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훈련받게 된 것이다.<sup>54)</sup>

이상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을 많이 모으는 양적인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제자 삼고 전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제자 훈련은 사람을 끌어 모으는 많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5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75.

54) Bruce, *열두 제자 훈련*, 25-26.

### 3. 사도들의 제자 훈련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일을 부탁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화 한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하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복음의 대상을 동시적으로 삼으셨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행 2:42, 47).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셨듯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행 2:42).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었다(행 2:46).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제자 훈련을 행한 결과 구원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행 2:47).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남자의 수가 오천 명이 회개하게 되었다(행 3:4). 그리고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행 5:42).

그 결과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 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 말씀에서 제자라는 표현이 주목을 끈다. 다시 말하면 용어 선택에 있어서 이전에는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제자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을 훈련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훈련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다. 평신도들을 성직자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종교 의식보다는 가르침에 집중하였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르침과 함께 복음 전도는 더욱 활기차게 계속되었다. 교회 지도자(성직자)와 교인(평신도)간의 분리가 아니라 모두가 훈련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로부터 배운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으로 백성들을 섬겼다. 특히 저들은 가르치기에 힘썼다. 복음 자체는 피차의 사귄 가운데에서 가르치고 선교하는데서 자라났다.

아마도 이들은 최소한 다음의 다섯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첫째 유대인을 개종시키며 교육시키기 위한 성경의 기독교적 해석, 둘째 세례 준비로서 가르친 간명한 기독교 전통, 셋째 간단한 신앙 고백에 대한 가르침, 넷째 예수님의 생활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다섯째 삶과 죽음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자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선교하게 하셨다(행 8:1).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행 9:12).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바울은 곧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출발하지 않았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갈 1:16, 18).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배웠다고 볼 수 있다.<sup>55)</sup> 바울은 바나바를 통하여 훈련 받았고, 바울을 가르친 바나바는 70명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안디옥과 다른 여러 도시에서 바나바를 모델로 배웠으며 바나바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원리를 모범으로 보았음이 틀림이 없다. 도슨 트로트맨은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고를 통해서 제자도와 복음적 배가와 의 관계를 보았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sup>56)</sup> 트로트맨은 이것을 “재생산의 생산”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그의 가장 유명한 메시지인 “재생산을 위한 출생”의 제목이 되었다. 트로트 맨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영적인 사대 께의 활동을 <그림 1>로 표현하였다.<sup>57)</sup>

<그림 1>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요 1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패턴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와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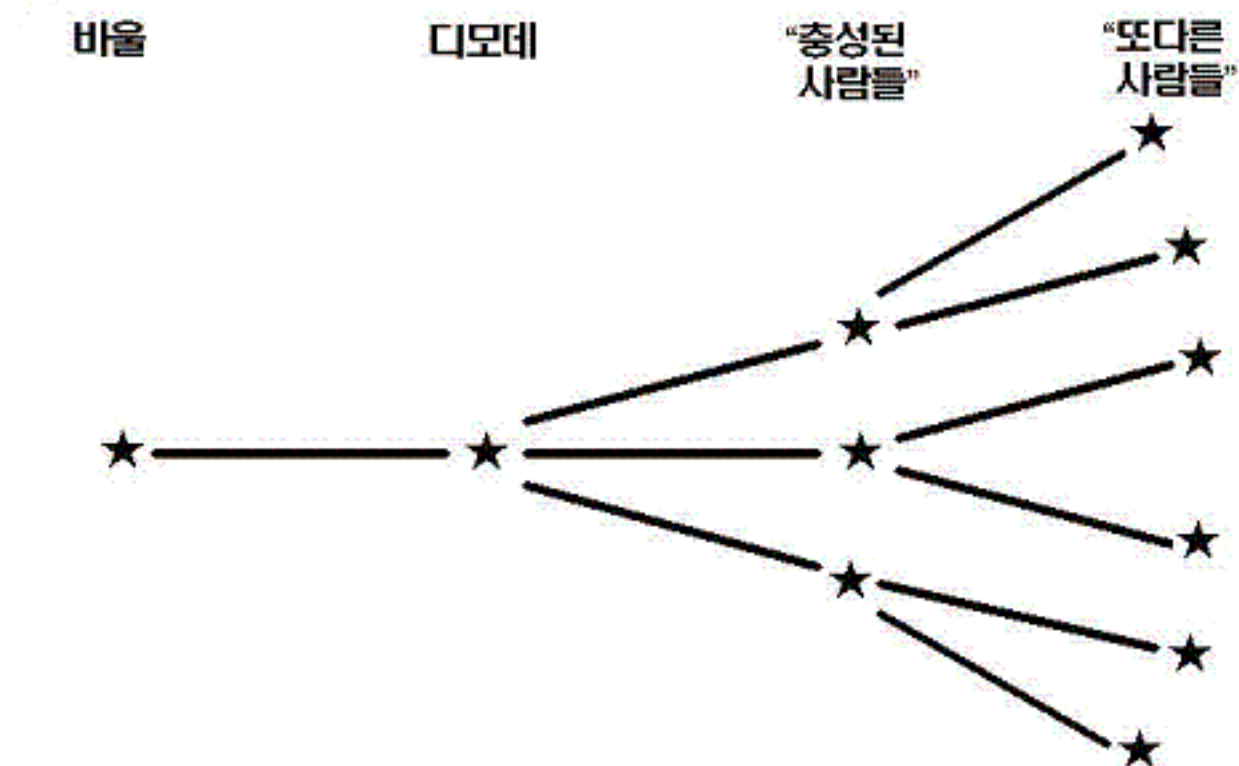
55) Wilson, James I, *전도 전략 원리 (The Principles of War)*,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21.

56) 선교단체에서 본문을 일대일 제자 양육의 말씀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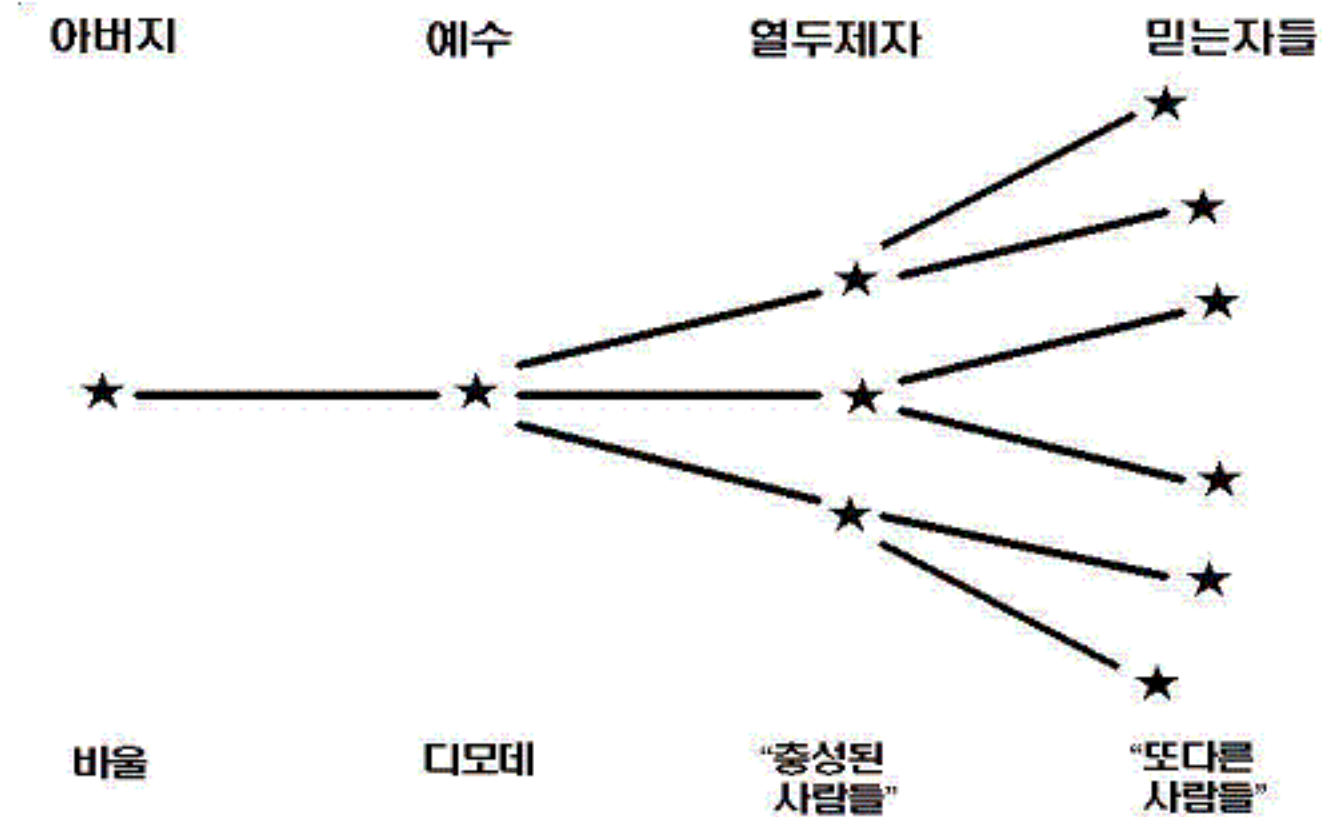
57) Waldron Scott, *Bring Forth Justice, 사회 정의와 세계 선교를 향한 제자도*, 강성규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88), 217.

나를 믿는 자들도 인함이니”라고 한 것은 합하여서 다음과 같이 <그림 2>로 나타낼 수 있다.<sup>58)</sup>

<그림 1> 도슨 트로트만의 영적 배가 1



<그림 2> 도슨 트로트만의 영적 배가 2



58) Scott, *사회 정의와 세계 선교를 향한 제자도*, 218.

이상으로 사도들의 제자 훈련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바울 이외의 사도들이 행한 제자 훈련이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아마도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도들은 떠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도들에게 펠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집사들을 떠나게 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 훈련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행 8:1).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는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제자 훈련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다(행 13:1, 3).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 성장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교인 수는 많지 않은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평창한 예루살렘교회보다 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우리가 행하는 제자 훈련은 바울처럼 제자훈련에서 선교로 나타나야 한다.

#### 4. 평가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선교와 역동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제자 훈련의 초대 목표는 제자를 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멋진 교회당을 건축하느냐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신자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제자 삼는 사역의 도구와 보조 자료와 방법은 될 수 있을지라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제자 삼는 사역만이 우리의 목표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성도들에게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줌에 따라서 신앙의 다이나믹, 곧 역동성이 크게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대로 제자 훈련보다는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신앙의 역동성은 있으나 말씀 훈련의 뒷받침이 약한 나머지 신비적으로, 감정적으로 흘러간 면이 있다.<sup>59)</sup>

교회들은 제자 훈련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교인을 양적으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다. 또 하나 제자 훈련을 평

59) 이영훈, “성령운동과 제자훈련과의 만남,” 44.

가 해 본다면 강한 제자 훈련은 교회 내에서 새로운 제사장 제도로 만든 것이다. 이 결과 불가피하게 교회의 계급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런 모습은 제자 훈련이 선교로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오는 부정적인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선교 없는 제자 훈련은 지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하여 결국은 머리만 남고 가슴이 결여 된 그리스도인을 양산 할 수 있다. 제자 훈련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힘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풍성한 것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으면 풍성함은 비만증으로 발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현상을 교회의 공룡화 현상이라고 본다.<sup>60)</sup>

지금까지 제자훈련의 원리와 이론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은 종래의 것을 되풀이 한 것이 아니고 아주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이었다. 주님은 모든 인생들이 본 받아야 할 모델인 동시에, 모든 교회들이 본 받아야 할 모델이시다. 특히 목회자들이 주님의 인격과 삶뿐만 아니라 목회의 원리를 배워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주님의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과 특징은 오늘날 목회에 그대로 옮겨와야 한다. 주님은 구세주인 동시에 대목회자이시다. 주님의 목회의 핵심은 제자훈련이다. 가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세례 받게 하고, 세례 받은 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여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다시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어 재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생산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주의 제자이다. 제자 훈련이 선교로 연결되지 않을 때 제자 훈련은 건강한 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제 3 절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제자 훈련의 오용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과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다. 잃은 자를 찾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가르침으로서 선교적 관심을 일깨워 주었고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고 적극적인 교회와 교인들이 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

60) 공룡은 상체가 풍성하고 하체가 약하다. 교회의 풍성함이 공룡처럼 하체가 약하고 상체가 살찌운 모습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과 관련되어 교회성장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복음화의 구체적 결실은 교회부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훈련 과정으로, 그리고 비신자들에 대한 복음전도 과정으로 부흥회가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제자 훈련은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지도력 개발과 평신도 훈련의 효율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공헌이라 하겠다.

### 1. 제자 훈련의 오해

#### 가. 제자 훈련은 신학이 결여 된 것이라는 오해

제자 훈련은 성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자훈련도 신학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다. 제자 훈련이 뚜렷한 신학적 노선이 없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초교파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선기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사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을 때나 자신들이 제자들을 삼을 때 특정한 교리나 신학 체계를 가르쳤을 리가 없다.”<sup>61)</sup>

제자 훈련의 핵심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근거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특정 교리나 신학 체계를 가르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제자 훈련의 신학은 초 교파적이라 할 수 있다. 제자 훈련을 통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성장시켜 헌신하는 일꾼으로 키우는데 있다.<sup>62)</sup>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자 훈련은 복음주의 노선이라 할 수 있다. 복음주의는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독일의 경건주의는 독일의 조직교회와 달리 조직신학을 강조하지 않았다. 조직신학을 강조하지 않은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삶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제자 훈련은 복음주의 노선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역이다. 또한 제자 훈련은 성경을 매우

61) 방선기, “제자 훈련의 중요성,” *목회와 신학*, 1990년 6월호, 199.

62) Gary W. Kuhne, *제자훈련의 시작과 진행 (The Dynamics of Discipleship Training)*, 엄종오 역 (서울: 나침반, 1986), 18.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철저한 성경연구의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다. 각종 성경연구 교재들과 성경연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활발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고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 대하여 집중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다.

#### 나. 제자 훈련은 양적인 성장을 더디게 한다는 오해

초대 교회로부터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는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현재 한국 교회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교회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은 선교 단체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다만 교회는 가르침이 없는 전도에 많은 사역을 치중하였다. 전도를 강조하여 그 결과물로 결신자와 세례 지원자, 교인의 숫자를 강조한다. 이런 동기는 결국 전도를 양적인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하지만 교회가 전도를 하여 교인이 된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로 자리 잡을 수 없다. 승리는 결코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마태복음 28장 18-20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전도를 하기 전에 3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자훈련은 교회 성장에 대하여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을 심어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화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기능들의 결과는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고 외형적인 고도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여러 요인들도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제자 훈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교회성장론은 한국교회 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는 분명히 성장한다. 그러나 교회 성장 주  
의자들은 수적인 성장을 교회의 건강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한다.<sup>63)</sup>

63) C.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 성장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제자훈련은 한국 교회 성장에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교회의 성장이 현 수준에서 멈추고 정체 현상을 보이게 된 원인은 제자훈련에 있다 고 본다. 그 이유를 우리는 '제자 훈련의 상품화' 라고 부른다. 제자 훈련은 가서 제자 삼는 것인데 상품화한 제자 훈련은 교회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선전 도구로 사용하거나, 교인들을 듣기 좋아하고, 말도 잘하는 교인으로 만들었다 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다. 제자 훈련은 전도에 방해된다는 오해

제자 훈련은 모여서 성경 공부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sup>64)</sup> 하지만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제자훈련은 전도와 선교를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 훈련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한 기본 훈련이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뿐 아니라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도 한다.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에서 제자를 삼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할 일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는 일, 즉 선교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강조하셨다. 자신이 전도한 자를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강조점이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결코 전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 라. 제자훈련은 편애를 가져온다는 오해

제자훈련을 하면 교회 안의 어떤 선택된 집단에게 편애를 보이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우리는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편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한다면 이 문제를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대중의 인정을 받아 순간적인 박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떠난 후에도 사역을 계속 할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재생산을 기대할 것인지, 결정한다면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본다. 선

*Church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11.

64) 우리는 여기서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도가 양적인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기울이셨던 방법이며, 만일 항구적인 지도자를 기르려 한다면 꼭 필요한 일이다.<sup>65)</sup> 예수님 자신도 대중 사역과 개인 사역을 겸하여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모두 하는 것이다

마. “내가 어떻게?”라는 오해

평신도는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제자 삼는 일을 두려워한다. 제자훈련은 고학력을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사제들의 책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각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내가 훈련받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앞서 있다는 것 밖에 다른 차이가 없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마 19:30).<sup>66)</sup>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 그들은 그 사회에서 엘리트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었고 학력 수준도 낮았다. 그러나 그들의 강점은 배우기를 갈망하여 주님을 즉시 따라갔다는 점이다. 배우기를 갈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학력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성경적인 자격 조건은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꼭 닮아야 한다(눅 6:40).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셨다(마 5:48).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로워야 하고(눅 6:35-36),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벧전 1:15-16).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본래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15:50).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65) Coleman, *주님의 전도 계획*, 35.

66)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사울과 바나바를 보라. 13장 2절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된다. 그러나 13장 9절을 전환점으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기록된다. 이것은 바나바가 사울의 선배이지만 9절을 기점으로 성령 충만한 바울이 리더십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은 연장자나 먼저 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이다.

바. 가슴이 아닌 머리의 신앙인이라는 오해

제자훈련을 잘 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자 훈련이 훈련으로만 그친다면 이 지적은 옳다. 이에 대한 지적으로 이성희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사도 훈련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성경은 제자와 사도를 구분한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 제자 혹은 사도라는 말없이 “열둘”이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열두 제자”(10:1)라고 한 다음 이들에게 “열두 사도”(10:2)라고 부르고 있다. 누가복음은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6:13)라고 기록한다.<sup>67)</sup>

하지만 이성희의 지적은 옳지 못하다. 사도들만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대신 집사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였다(행 8:1, 12).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바울은 말쑥한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훈련은 재생산의 삶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해야 한다. 주님은 함께 지내시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워 가셨던<sup>68)</sup> 것처럼 제자 훈련은 동거해야 한다.

사. 훈련자가 훈련생을 사유화한다는 오해<sup>69)</sup>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오해이다. 선교단체가 이런 우월 의식(sectarianism)으로 인하여 지역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 훈련을 받

67) 이성희, *미래 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 2000), 303.

68) Colmann, *주님의 전도 계획*, 145.

69) 최상태,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교회 사역이 가지는 목회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19.

고 있다는 긍지를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월의식으로 발전하면 곤란하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의 목표는 훈련자의 인격과 삶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부 선교 단체에서 일어난 실례로 인하여 선생의 제자가 된다는 인상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바른 제자훈련은 훈련생을 개인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

아. 제자훈련은 잠시 유행하다 사라질 프로그램이라는 오해<sup>70)</sup>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성경공부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 교회 내에 가르치는 위치의 머리는 점점 많아지고(제자훈련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그룹의 구분이 자연스럽게 생겨남),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제자훈련을 시킨 사람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참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생활화되는 훈련이요, 예수님을 닮는 훈련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훈련이다.<sup>71)</sup> 지금은 셀(cell) 모임의 시대, 리더십을 강조되는 시대, 멘토링의 시대 등이라고 한다. 제자훈련은 이제 21세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은 변해도 제자훈련 사역은 목회 사역의 원리요, 기초이므로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시행할 사역이다.

## 2. 양적 성장의 도구로 제자 훈련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10년마다 교세가 배가 될 만큼 급성장한 교회였다. 그 기간에는 양적 증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었고 교회 양적 성장이 목회의 중요한 목적이었다.<sup>72)</sup> 그리고 문자 그대로 성장 하였다. 큰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성장이란 생명의 본질이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요 왕성한 것은 그 만큼 생명이 충만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 성장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70) 최상태,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교회 사역이 가지는 목회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20.

71) 이영훈, “성령운동과 제자훈련과의 만남,” 43.

72)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307.

그러나 성장이란 무엇인가? 교회가 커지는 것이 성장인가? 적어도 초대 교회는 그런데서 출발하지 않았다. 성장하기 위하여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다. 복음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는 일에 힘썼다. 관심은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과 사람에 있었다.

링그랜드와 쇼우척이 공동 집필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능력 있는 평신도 사역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회는 복음과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가 복음을 복잡한 현대사회 전반과 개개인에게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 평신도를 어떻게 훈련하고 참여시킬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현대적 필요와 요구 사항은 평신도와 성직자가 함께 동역할 때에만 사회 구조와 개인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 있게 협동하여 선교하려고 한다면, 교회의 전반적인 사회에 평신도가 참여하도록 해야만 한다.<sup>73)</sup>

그러나 오늘의 제자 훈련은 경영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이 움직이고 실적을 비교한다. 자본주의에서 능력을 사모하듯 목회자도 진실보다는 능력을 구한다. 사람을 사랑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 사람은 성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런 동기로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하였고 배우는 것에 만족하는 제자를 많이 양육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홍정길은 제 2회 복음과 상황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 믿고 나서 이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고 기독교 인구가 100만을 넘고 1000만을 이르렀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성경공부를 열심히 좇아 다닌 분들이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근본을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sup>74)</sup>

73) 참조, Arther Merrihew, Adams, *Effective Leadership for Today's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76-82.

74) 양낙홍, "대형 비리와 한국 교회의 책임," *복음과 상황*, 2000년 1월호, 69.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 훈련을 수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의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대규모 집단이다. 불신자들의 외침은 도외시 한 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평생토록 성경 공부를 하는 무능한 기독교인들의 우물 안 개구리식의 집단으로 전락 한다.<sup>75)</sup>

제자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함이다. 초대교회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었으나 오늘의 교회는 '와서 우리와 더불어 성장하자'이다.<sup>76)</sup> '성서적 앎'과 '신앙적 앎'을 적절하게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도널드 맥가브란의 성장이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는 성장이론 10단계 중에 7단계에서 교회는 새로운 집단을 찾아내어 제자훈련을 시킬 때 성장한다<sup>77)</sup> 고 하였다. 사회의 한 구석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는 한 집단에서 시작하여 점점 확장되어 가야 한다. 교회는 새로운 집단을 찾아내어 제자로 훈련시킬 때 성장한다.

제 10단계, 교회는 성장을 위한 모험을 할 때 성장한다<sup>78)</sup>고 하였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이 교회성장을 촉진한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추진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 보는 모험 등이 교회성장의 열쇠가 된다. 믿음이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 보게 하고 우리가 자진해서 도약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확실한 보증이다.

결국 이 둘을 비교해보면 교회 성장주의자들은 제자 훈련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된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몰려 나가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배우는 자가 아닌 교회 밖으로 보내심을 받는 제자가 많아져야 한다.

75) Ralph, W. Neibour, *셀 목회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장학일 역 (서울: 밴드 목회 연구원, 2000), 45.

76) Ibid., 71.

77) McGavran and Arn, *교회 성장의 열 단계*, 97-110.

78) Ibid., 139-149.

### 3. 건강한 제자 훈련

교회의 교육은 중요하다. 교육의 핵심은 평신도를 훈련시켜야 한다. 평신도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평신도 훈련은 평신도로 하여금 목회자의 말을 받아 삼키는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이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sup>79)</sup>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 '그물망 조직'으로 바뀌어, 좀더 비형식적이고 수평적인 혹은 다 방향으로 평신도가 배열되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직장과 삶의 터에서 역사해야 한다.

평신도 운동이 만약 성서 안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할 것이다. 기껏해야 위급할 때 보충역으로 소집되었다가 그 위기가 사라지면 해산시켜 버리는, 군중과 같은 무리로 될 것이다.<sup>80)</sup> 한국교회는 이제 평신도들을 끌어지는 교회로서 훈련시키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신도들이 수행하는 일의 핵심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 의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의 사회적 책임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평신도가 세상 속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yourself 되시고 선교의 장은 세상이 되며, 평신도는 증거자가 된다. 평신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 된다."<sup>81)</sup> 첫째, 교회는 평신의 선교적 자원을 동원하고 발굴하여야 한다. 동시에 교회가 평신도로 하여금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게 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할 때 복음의 세계화가 달성될 수 있다. 둘째, '평신도의 흩어짐'은 교회가 세상의 각 분야에 녹아드는 사건이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현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직접 관계를 맺고 활동할 수 없는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자신의 삶의 현

79) 강남 대학교 신학 대학 편, "한국 교회의 미래와 평신도"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4), 179.

80) Hendrik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4), 14.

81) J. C. Hoekendijk, *The Church Inside Out* (Philadelphia: Westminster, 1966), 40.



장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 평신도는 그의 전문직업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독특한 '평신도 사도직'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소명은 평신도가 직업을 통하여 사회인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책임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로서의 이중적인 '부르심'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는 세상에서 직업의 전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실천하는 영성과의 변증적 관계에서 그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진정한 제자 양육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 있는 사회이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성도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교회인 성도들은 사회 각 곳으로 흩어져 있다. 성도들은 사회 각계각층으로 스며들어가 있다. 세상으로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도록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의 조직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는 쌍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호 관계이다. 다시 주일이 되어 성도들이 모여들 때 이러한 영향도 함께 모여들게 된다. 이때 모여든 성도들을 통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사회 상황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교회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input)' 된다. 만일 교회가 제자 양육을 통하여 주변 환경에 좋은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다면 그 결과로 교회는 성장 한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제자 훈련이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성경지식을 많이 소유한 성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 4. 평가

교회 성장학의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 목회철학과 실재를 가지고 목회하려는 움직임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해외선교분야에 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모든 족속'이란 말의 강조로 인하여 종대한 선교개념인 종족단위별 접근 개념과 전략의 토대가 되었다. '미전도 종족' 선교, '종족입양운동' 그리고 '서기 2000년과 그 이후 운동'인 인간운동 원리와 동질집단 원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론에는 분명히 제자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교회는 제자훈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크게 하는 양적 성장을 위하여 도입하였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는 구령정신은 자연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좋은 열매'에 대한 관심보다는 '많은 열매'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개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다시 말하면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은 교인 만들기의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sup>82)</sup>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목회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비성경적, 비윤리적, 반사회적 목회방식은 지역사회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복음화에 막강한 지장을 초래한다.

초대형교회가 행하는 제자 훈련이 교회성장모델이 된 나머지 제자 훈련의 목적을 선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개 교회를 크게 하는 초대형교회 지향주의로 흐르는 데 일부 기여하였다.<sup>83)</sup>

#### 제 4 절 결어

지금까지 교회성장과 제자 훈련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여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데 또한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 마디로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때에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을 위한 아주 좋은 도구였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무비판적으로 제자 훈련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이런 교회 성장이론을 비판한다. 교회는 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하는 유기체이어야 한다. 제자 훈련은 교회를 크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도구여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선교가 교회 구성원들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국한하지 않고 예수님의 본보기를 삶으로 재생하는, 또 그런 제자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82) 오태균, "21세기 교회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기독교사상*, 1998년 9월호, 94-95.

83) 이상만, "교회성장 이론과 그 적용을 평가한다," *기독교사상*, 1998년 9월호, 42.

### 제 3 장

#### 선교에 관한 고찰

선교는 제자 훈련과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선교가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선교의 필요성을 거부하거나 선교 운동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우리 지역도 아직 완전히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막대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요, 둘째는 거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선교 운동이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고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님의 사역이 주로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인종적으로 유대인들, 특히 그의 12제자에게 집중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세계 구원을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하여 12사 람의 히브리인을 훈련시켰던 것이다.

#### 제 1 절 선교에 관한 성경적 고찰

‘선교’라는 용어는 라틴어 ‘mitto’(보낸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은 헬라어 ‘아포스텔로’와 ‘핍포’에 해당된다. ἀποστέλλω는 135회, πέμπω는 80회가 각각 신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뜻은 파송을 의미한다. 영어 ‘missionary’는 13세기 천주교의 수도원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세상에서 사도의 생활과 사역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를 지칭하였다. 그러나 16, 17세기에 와서는 천주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 받은 자들에게 “선교사”란 명칭을 부여 받았다. 천주교 선교 시대 이후 개신교도 세계 선교를 하면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선교학의

조종'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선교학자 구스타프 바르넩은 이 선교의 개념을 체계화시켰다. 바르넩에 의하면 '선교'란 비기독교 세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 전파이다.<sup>84)</sup>

“교회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한동안 한국 교회는 선교를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 불수록 선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선교의 책이다. 성경이 선교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선교의 성경적인 고찰이나 신학적인 고찰 없이 실용적인 선교 방법론이나 현장을 중시한 선교학의 신학적 이론들은 상대주의나 실용주의의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sup>85)</sup>

지상명령과 선교에 관한 구절들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창세기 1장은 소위 문화 명령(culture mandate)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혼, 노동, 다스림 등의 사회적인 책임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타락 이후부터 인간을 찾고 계신다. 둘째, 창세기 12장은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셋째, 출애굽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재권의 표현이며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낸 것이다. 출애굽 사건은 총체적 구원과 총체적 선교를 말하고 있다. 넷째, 시편과 예언서에 나타나는 선교는 대단히 많이 발견된다. 중요한 선교에 관한 시는 2, 22, 23, 47, 50, 66, 96, 117편 등이다. 다섯째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었다. 선지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는 전달자이며 선포자였다.<sup>86)</sup> 요나서는 대표적인 구약의 선교 책이다. 요나서는 선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선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신약에 와서는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약의 4복음서는 선교적 설교의 산 기록이며, 사도행전은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며, 바울의 서신서는 복음을 철학적으로 변호하는 변증서가 아니라 선교의 기록이다.<sup>87)</sup> 마가는 그의 복음서

84) 전호진, *선교학*, 20

85) 배요한, “이사야 40-66장의 선교 사상과 열방에 대한 연구” (Th M.,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2002), 8.

86) 김영남, *도대체 뭘 하지?* (서울: 조이 선교회 출판부, 2000), 23.

87) 전호진, *선교학*, 60.

1:14-15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준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 준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때만 선포자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눅 24:44-49).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신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 버리는 것이요”(눅 10:16). 더 나아가 예수님은 노아 시대에도 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셨다(벧전 3:19).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선교의 모델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찾을 수 있다. 성육신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 문화적 동일성의 가장 훌륭한 예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나라의 안전과 영화를 버리고 죄와 슬픔이 있는 인간 세상에 선교사로 오신 것이다. 자기를 비우시고, 섬기기 위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면서 인간이 되셨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상에 보내셨으며(요 3:16), 부활하신 예수는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마 28:19-20; 행1:8). 이 성령은 선교의 영으로서 제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선교를 말하고 있지 않다. 4복음서는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한다. 동방박사의 방문(마 2:1-12),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방문(마 8:5-13), 헬라인의 방문(요 12:20-23), 사마리아인들의 집단 개종(요 4:39)은 이방인들의 자발적 도래를 예언한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 4복음서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원심적 선교를 말한다.<sup>88)</sup>

88) 전호진, *선교학*, 63.

바울의 서신서는 선교사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신앙의 위기와 문제를 겪을 때에 적절한 교훈과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든 족속과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 전도를 권하는 계시록도 선교의 책이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선교 공동체였다. 선교와 교회는 일치되어 있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었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다. 만일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면 기독교는 현재까지 생존해 오지 못했을 것이고, 단지 근동 아세아의 고대 종교의 하나가 되어 지금은 전문적인 종교학자들의 연구 대상에 불과 하였을 것이라는 말이 옳을 것이다(Ruth A. Tucker).<sup>89)</sup> 사실,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는 크리스천 공동체와 매우 유사한 집단이 존재했었다. 이들은 엡세네파(쿰란 공동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와 비슷한 점들이 있었으나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멸절하였다. 반면에 크리스천 공동체는 주후 60년경에 이를 때부터 이미 여러 지역에 강력하게 확산되어 생동력을 가지고 번성하고 있었다. 한 집단은 사라지고 크리스천 공동체는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쿰란 공동체가 비선교적 공동체였던 것에 비하여 크리스천 공동체는 선교적인 공동체였던 까닭이다.<sup>90)</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선교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역사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선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이 없이는 세계 선교는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생각 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가서 세상을 복음화 하라는 책임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증거 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말해 주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sup>91)</sup>

선교의 성경적 근거라는 책을 쓴 카톨릭 성경학자 세니오르(D. Senior)와 스토틀

89)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 1990), 25.

90) Ibid.

91) 김영남, *도대체 뭘 하지?*, 21.

러(C. Stuhlmueell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란 자신의 신앙적 체험과 식견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나눔은 먼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통 속에서, 나아가서는 자신과 다른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전통을 지닌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선교가 쌍방 통행임을 의미한다. 신앙이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누는 것이다. 선교사의 일이란 그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함으로써 배우고 깨닫는 것이다.<sup>92)</sup>

따라서 선교하려는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훈련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자기처럼 된 제자들을 구체적인 역사 상황 속에 파송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교이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는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불은 타는 것으로만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는 부르너(E. Brunner)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sup>93)</sup>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제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교회를 택하여 세웠다. 이 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사도들처럼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사명이 주어진 집단이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그의 몸 된 교회에게 준 지상 명령이 선교적 명령인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sup>94)</sup>는 주님의 파송의 말씀을 품고 파송된 자로서의 자세를 마지막 날까지 견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력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이다.<sup>95)</sup>

92) 배요한, “이사야 40-66장의 선교 사상과 열방에 대한 연구,” 9.

93) 요 15:16.

94) 요 17:18.

95) 서정운, *교회와 선교*, 26.

## 제 2 절 선교에 관한 신학적 고찰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 선교 신학이 그 자리를 찾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K. S. 라토렛이 말한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 곧 서구 교회가 세계적으로 선교 사업을 확장할 때 선교에 관한 신학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신학의 분야에서 선교 신학의 위치가 밝혀지게 되었다. 칼 바르트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른 19세기의 신학자인 F. D. 쉴라이에르마허는 위대한 선교 시대에서 신학의 넓은 분야 속에 선교 신학의 위치를 고려한 최초의 신학자이다. 그는 개신교 선교의 기수인 모라비안 교파의 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세계”라는 진젠도르프의 비전<sup>96)</sup>에서 큰 감동을 받은 듯하다.

A. 쿠퍼는 선교 신학이 실천 신학의 분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실천 신학을 봉사적 학문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교육, 봉사, 행정, 평신도 등 서로 다른 학문의 분야로 다시 구분되며, 선교 신학은 교육 곧 가르치는 기능이라고 한다.

J. H. 바빙크는 쿠퍼와 마찬가지로 선교 신학을 실천 신학의 분야에 포함시키기를 바라면서도 학문의 독자성을 주장한다. 그는 또한 선교 신학이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봉사도 포함하기 때문에 교육에 제한시키는 쿠퍼와는 입장을 달리한다.

유럽 최초의 선교학(Missionslehre)의 저자인 G. 바르넵은 선교 신학이 신학의 세 가지 다른 분야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선교사는 교회사, 선교의 성서적 근거는 성서신학, 그리고 선교에 관한 연구는 실천신학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 신학을 세 분야로 분리한 바르넵은 자신의 선교 신학을 교회사에 강조점을 두었다.

교의학술 저술한 디엠(H. Diem)은 선교 신학을 조직 신학 중에, 특히 삼위일체론과 종말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에 기술된 선교적 명령이 역사 속에서 야기하는 종말론적 사건을 지적하는 동시에 역사로 하여금 그 목적을 향해 가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선교 신학의 학문적 위치를 찾으려는 시도가 다양함을 찾아보았

96) Carl E. Braaten, *현대 선교 신학 (A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28.



다. 선교 산학이라는 학문이 자기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그 역사가 짧은 이유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신학의 모든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이유도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모든 신학은 선교 지향적이라는 것과, '선교 신학'이 독립된 분야로 점점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금세기 후반기에 서구 교회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신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깊이 있는 저서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의해서 증명된다.<sup>97)</sup>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신학이 주로 서구 교회의 산물이었고, 또한 그것만이 신학으로 간주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신생독립 국가들의 고유한 종교-문화적 정체성의 출현과 다원 사회로의 발전은 서구 중심 신학에서 지역 중심 신학으로, 일원적 신학에서 다원적 신학으로의 전이를 고무하였다. 따라서 새로이 전개되는 선교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교 신학의 탐구가 시도되었다.

먼저 독일 신학자 마굴은 다양한 선교 신학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로 선교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W. 프라이타그의 주장으로서 선교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에서 그를 증거 하는 동시에 그의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한다. 둘째로, 선교를 복음화 또는 교회 이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교회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서'에서 표명된 바 있다. 여기서 선교의 목적은 교회가 없는 민족 또는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데 있다. 셋째로 선교는 변형이라는 것이다. 폴 틸리히는 이교, 유대교 및 휴머니즘 속에 깃들여 있는 '잠재적 교회'를 '명시적 교회'로 변형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규정한다. 이와 흡사하게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모든 인간 속에 내재하는 '익명적 기독교인'과 불투명한 기독교를 기독교인과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것이 곧 선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참여와 '하나님의 평화'의 다양한 표지를 세계 안에 세우는 일을 선교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역사 속에서 파괴된 인간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의, 진리, 친교, 의사소통 등의 구체적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97) Johannes Ver Kuyl,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8), 3.

최근에는 복음화의 유형, 토착화 또는 종교 신학 유형과, 상황화 유형을 포함하는 포괄적 유형의 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있었다. 복음화 유형은 복음주의 선교 신학에서 선교의 목적을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의 선교에 전력투구하게 한다. 아울러 토착화 또는 종교 신학 유형을 살펴보면, 이것은 서구 교회를 통해 전래된 복음이 비기독교 지역에 전파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황화 유형에서는, 선교가 영혼 구원이나 교회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인간적 삶의 구체적 현실 곧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 신학은 곧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신학적 비판인 동시에 선교는 구조악의 변화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선교 신학의 여정은 개방성과 포괄성을 지니고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우리는 각 유형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들이 서로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음을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인정하고 모두를 수용함으로써 조화롭고 통전적인 선교 신학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본다.<sup>98)</sup> 그때에 신학을 위한 신학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은 해소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선교 신학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 제 3 절 선교 주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선교는 목회자 중심의 선교로 진행되어 왔다. 선교사면 당연히 목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목회자 중심의 선교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그 실례를 든다면 선교가 자유스럽지 못한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목회자 선교사는 절실한 현실적 한계를 경험한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선교사에게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비자를 발급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는 가서 공개적으로 교회를 개척 할 수 없다. 하지만 평신도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직업으로 해당국의 비자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를 통하여, 교수의 자격으로, 자신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상관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다. 이 때 예수

98) 통전적 선교 신학의 시도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C. S. Song, *Christian Mission in Reconstruction* (Orbis Books, 1977).

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선교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평신도들은 자신의 일을 통하여 무궁무진하게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선교 주체로서 교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이다. 이 단어는 ek(~로부터 밖으로)와 kaleo(부르다)의 합성어로 부름 받아 나온 사람을 의미한다. 선교학자 조지 피터스(G. W. Peters)는 에클레시아를 첫째, ~로부터, ~를 향하여 부름 받은 사람들, 둘째,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 셋째,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 넷째, 평등한 형제애라는 원리에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다섯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분하여 설명한다.<sup>99)</sup> 그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또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았으며 그 사명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한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교회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발생했고 신자끼리 재산을 팔아 나누어 쓰며 서로가 필요한 대로 상부상조하는 교회였다.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이 교회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평가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진출하려는 의도적인 자세가 부족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선교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교회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결신하는 대형교회였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다(행 2:41-42). 그러나 제자 훈련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교회였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였지만 비대해진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가 없자 내부의 분란에 휩싸이게 된다(행6:1-3).

예루살렘 교회를 비추어 볼 때 제자 훈련을 통하여 양적인 교회 성장을 시도하

99)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Chicago: Moody Press, 1999), 116.

려는 노력은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비대한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비대해진 교회는 에클레시아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 비대해진 교회가 비만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선교를 통하여 그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 훈련은 하였지만 선교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교회가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회가 계획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의 내향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사건이 스테반의 죽음이었다. 이 죽음은 선교가 시작되는 사건이었다(행 8:1).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처음부터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은 바울은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하였다. 옆에 여러 지역에 씨를 뿌리기보다 일단은 많은 씨를 여러 차례 걸쳐 몇 군데에 집중적으로 뿌리려고 하고 있다.<sup>100)</sup> 이는 바울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의 하겠다. 또한 대개 1세기 말에서부터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313년까지 약 200년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다. 교역자나 평신도 구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자였다. 선교가 전체 교회의 임무로 실행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전도 할 때 교회 일꾼들을 훈련했다고 하르낙은 지적하고 있다.<sup>101)</sup>

## 2. 선교 주체로서 선교 단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초기 선교단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며 서신서들은 선교단을 통해 설립된 교회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들의 편지이다. 초기 선교는 성령의 주도하에 소규모 팀으로 이루어졌다.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디모데 등을 소위 바울의 선교단(Paul's mission band)이라고 부른다.<sup>102)</sup> 이후에는 교회라는 목회적 구

100) 서정운, *교회와 선교*, 35.

101) Ibid., 42.

102) 정진경, "한국 교회 선교의 비전과 협력," *선교와 신학* 3 (1999): 38

조와 선교회라는 선교적 구조가 생겨나게 되었다. 선교의 수단을 교회에 귀착시키지 아니하고 선교회(para-church)나 특정인들이 해야 한다는 '교회 내의 교회'사상은 일찍이 독일 경건주의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선교를 진행시키듯이, 기성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경건주의자들을 사용하셨다. 경건주의자들은 소그룹 운동을 통하여 전도하여 증생자들만을 교회에 가입시키고, 또 교회의 소그룹만이 선교를 하도록 하였다.

개신교 선교에서 자발적 선교회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주장한 윌리엄 캐리도 기성 교회의 무기력에서 나온 선교 운동이다. 개신교는 윌리엄 캐리가 개신교 선교의 선두주자로서 나설 때까지 300년 동안 아무런 선교를 위한 조직도 갖지 못했다.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공헌은 그가 침례 교회선교 사회(BMS: Baptist Missionary Society)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선교회의 절정은 신앙 선교회(Faith Missions)를 이끌어 내었다. 신앙 선교회의 대표자는 허드슨 테일러이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도 선교를 교회 전체의 책임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상황에 따라 선교회를 조직하여 일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선교사라는 특정한 직무 수행자를 통해서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 3. 제 3의 선교 주체인 평신도

선교 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행해지는 선교는 성경적인 선교라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교 주체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도 아니다. 선교 주체는 선교 단체, 교회,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의 민족을 포함한 모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현대는 평신도의 선교가 중요한 시대이다.

평신도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laos tou theou)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히랍어로 'laikos'와 'laos'로 표기하며 이 어원에서 오늘날의 '평신도' 혹은 '평신도 직'(laity)이 파생되어 왔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람들'(행 5:35), '학문이 없는 범인'(행 4:13), 그리고 '큰 무리'(행 11:26)로 불렸으나, 교회를 통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 친교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누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전체를 의미했고, 그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목적, 선교를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sup>103)</sup> 교회에서 ‘평신도’라는 개념은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전체이며, 하나님의 전 백성”이다.

교회 역사상 교직(kleros)과 평신도(laikos)의 구별은 3세기 초부터 분명해지기 시작했다.<sup>104)</sup> 전자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처음 나오고, 후자는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가 처음 썼다.<sup>105)</sup> 현대적 의미의 평신도신학을 처음으로 본격화시킨 콩가르(Yves M. J. Congar) 신부는 그의 방대한 평신도 신학에서도 지적했다.

평신도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부수적 위치의 질서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신도가 교회의 유기적이며 적극적인 구성원이라는 의식과 그들의 권리와 활동을 회복하려는 기세가 오늘날 점차로 고조되어 가고 있다.<sup>106)</sup>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 피터 와그너는 교역자의 책무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역동적인 통솔력을 발휘하여, 전체 교회가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일 이라고 하였다.<sup>107)</sup>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를 제자 삼아 선교의 주체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종교 개혁 이후 개혁주의의 개혁 목표는 탈 성직자주의와 탈 제도주의이다. 루터는 평신도의 사제성과 보편적 사제성을 강조하였고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했다. 평신도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평신도의 제자화는 교역자 중심의 사역에서 무궁무진한 자원을 지닌 평신도로 옮겨짐으로 인하여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평신도를 교역자보다 낮은 계급으로 보고 지시하고 지시 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103) 심일섭, “평신도의 역할과 한국교회의 미래”, 강남 대학교 신학대학 편, 353.

104) Ibid.

105) Ibid., 152.

106) Yves M. J. Congar, *Lay People in the Church : A Study for a Theology of Laity* (Philadelphia: Newman Press, 1967), 130, 심일섭, “평신도의 한국 교회의 미래” (서울: 강남대학교 신학 대학 역음, 1994)에서 재인용.

107) Wagner, *교회 성장 원리*, 57.

안 될 것이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오늘날 선교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논한 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win-win 시대이고 협력의 시대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발전된 선교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협력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하고 선교 단체와 선교 단체가 협력해야 한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피해 의식을 갖고 경계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복음 안에서 동역은 불가능하다. 선교 단체는 목회자와 교회를 선교 중심의 교회로 안내해야 한다. 선교 단체가 선교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선교단체는 단순히 스폰서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선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훈련된 사람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공급해야 한다. 두 기관들이 서로 각자의 달란트를 내어 놓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평신도 선교사의 자질 향상이다. 선교사에게 제자 훈련은 필수적이다. '예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되어 진다'는 말은 잘 알려진 문구이다. 훈련 받은 선교사의 선교 수명은 25년이고 훈련 받지 아니한 선교사의 수명은 5년이라는 경험적 이야기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sup>108)</sup> 특별히 교회는 목사 선교사를 선교사로만 인정하는 풍토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도 선교사로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교역자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을 통하여 선교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받은 평신도는 목사 선교사가 할 수 없는 분야까지 들어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제자 훈련은 선교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지역 교회가 위대한 선교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를 훈련하여 선교에 동원해야 한다. 라슨과 오스본은 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앞으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사역을 엄격히 구분하는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모범적으로 신앙 생활할 전문

108) 이동휘, "선교의 위기 이렇게 극복하자," 복음과 상황, 1998년 7월호, 67.

적인 크리스천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sup>109)</sup>

모든 평신도들은 도전 받고, 훈련 받고, 각자의 영적인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선교에 동원 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이제 평신도들을 끌어지는 교회로 훈련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 4. 평가

지금까지 선교는 경쟁관계로 비쳐진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로 우리는 성과 위주의 선교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교회 중심의 선교의 장단점과 선교회 중심의 선교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마치려한다.

##### 가. 교회 중심의 선교

<표 1> 교회 중심의 선교

장점	단점
1.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몸으로서 교회의 선교 책임 인식 2. 성령의 은사활용이 용이 3. 제자화와 양육이 유리하다 4. 교회에 선교사와 개종자가 함께 헌신하게 됨 5. 전도와 목회의 일치	1. 개교회주의에 빠질 위험 2. 교회의 독주 가능성(타선교회와 비협조, 또는 배격) 3. 교회의 기구화로 선교 위축 가능성 4. 교회 중심적인 선교의 위험 5. 선교관의 모호성 위험(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라는 주장 등) 6. 개인의 선교사명 의식 약화 7. 선교사의 정체성 문제

109) George G. Hunter III,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How to Reach Secular People)*, 김양석 역 (서울: 프리셉트, 1999), 193.



## 나. 선교회 중심의 선교

&lt;표 2&gt; 선교회 중심의 선교

장점	단점
1. 지상명령 순종용이 2. 선교 사명의식이 강열 3. 선교의 활성화가 용이 4. 교회에 대한 선교적 자극	1. 선교의 동기 미흡 가능(낭만적, 도피성) 2. 개인 사역에 빠질 위험 3. 사역의 연속성 결여 4. 신학적 미숙성 5. 지역 교회와의 관계 문제(경쟁, 불화, 비판) 6. 지역 교회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7. 교회와 선교의 이원적 분리

이상으로 <표 1>과 <표 2>를 비교해볼 때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교회와 선교 단체는 경쟁적이거나 이단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 제 4 절 성과주의적 선교

최근에 각 교회마다 여름 단기선교가 필수적인 여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일 선교를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성과 위주적인 선교를 생각해 보려 한다.

아무튼 한국 교회는 최근에 선교의 봄을 맞이하고 있다. 물론 선교하지 않는 교회보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미전도 종족을 만나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선교를 해봤다는 감정으로 치우친 나머지 현지에 있는 선교사역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우리는 여기서 성과위주적 선교를 비판할 것이다.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성과위주적 선교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성과 위주적인 선교의 폐해를 지적하고 평가를 할 것이다.

### 1. 성과위주적 선교 역사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성장 한다 라든지,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소리에 자신의 은사를 찾지 못한 채 교회는 각종 세미나와 목회 비법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증독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다. 교회사를 보면 전도자들이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을 너무 극단적으로 분리 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sup>110)</sup> 성과 주의적인 선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회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선교는 그 자의식이 가장 투철했던 단계에서 서구의 식민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하였고, 따라서 그러한 결합으로 인해 선교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 힘 간에 본질적인 유대에 관한 온갖 판단을 내려왔다.<sup>111)</sup>

탄압 받던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선교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 로마교회의 확장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적인 고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바탕으로 옮겨졌다. 로마제국 안에 산다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즉 교회의 회원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 개별적인 전도를 통한 개종이 있었으나 집단개종의 형태가 적지 않았다. 이 집단개종의 형태로 확대되어간 기독교는 개별적인 개종의 형태에 비해서 그 실태적 개종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다. 즉 신앙심 없이도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형식적인 개종을 표하고 추종하였던 것이다. 선교는 소극적으로 보면 야만 이교도등의 비이교화요, 적극적으로는 기독교화의 추진인데 그 구분은 세계에 있었다. 세계를 통해 로마 천주교회에 가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었다. 외관상 복음화된 것처럼 보였으나 내용에서는 형식적 변화였다. 로마를

110) Danny Lehmann, 영혼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 (*Beautiful Feet*), 정문옥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4), 209

111) Lllamin Sanneh, 선교신학의 이해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전재옥 역 (서울: 기독교 서회, 1993), 132.

중심한 기구적 교회화였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더구나 그 같은 확장이 교권, 정치적 및 군사력을 업고 수행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 같은 확장에는 강압적인 정복의 일면도 있었다.

이같이 선교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수행되고 교회가 많은 형식적인 교인들의 기구가 되면서 선교는 교회 전체의 자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특정인들의 사명이 되었다. 주로 수도사들의 임무로 고정되면서 전문적인 선교사들의 출현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증인으로 나섰던 초기교회의 선교양상에 비하여 매우 제약적이고 경직된 것이었다.

근대 기독교 선교가 새 항로 개척에 이은 신대륙 발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한 것은 주지하는 바다. 이처럼 선교운동을 가능하게 한 새 항로 발견이나 신대륙개척의 근원적인 동기가 경제적인 데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후의 식민주의나 기독교 선교의 구조적 내면을 바로 아는 데 도움이 된다. 15세기 말의 새 항로 발견이 새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같은 활발한 항로탐색이 필요했던 이유에서부터 그 문제를 보아야 하는데, 15세기 후반부터 지중해 연안의 세력 균형이 와해된 것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13세기 이후 유럽의 상업중심지였던 제노아, 베니스 등이 15세기 중반부터 회교도들에 의한 음직임에 의하여 쇠퇴하게 되었다.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한 후 베이루트나 알렉산드리아의 교역도 위축되었다. 동시에 성지순례도 막힘으로써 유럽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동서무역의 곤란으로 유럽은 향료, 특히 후추의 품귀현상으로 고심하게 되고 안정이 보장된 향료 공급지의 물색이 새 항로 발견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가령, 콜럼버스는 그 자신이 열렬한 크리스천이었다. 그가 새 땅을 발견했을 때 그곳을 거룩한 구세주라는 뜻으로 '산 살바돌'이라 명명한 것도 그의 신앙심을 표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항해 목적이 선교보다는 상업적인 것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는 그들의 것을 아무 것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순화하고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망각되었던 많은 나라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사실로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전파와 부의 증가를 위하여 함께 기뻐합니다.<sup>112)</sup>

막스 와렌이 지적한 것처럼 불행하게도 유럽 사람들이 흥분한 것은 선교가 아니라 부의 축적 때문이었던 것이다. 황금이 복음보다 앞선 목표가 되자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적이고 잔인한 골드 러쉬의 진행에 선교운동이 까닭 없이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고 김 선일 사건에서 보듯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전쟁에 필요한 군사물품을 미군에 납품하는 선교 형식이 이 때에도 자행되고 있었다.

헤르카일(J. Verkuy)의 정의대로 제국주의란 간단히 말해서 다른 민족을 자국의 이해를 위하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식민주의라는 목적을 위하여 형식을 갖추어 정치적으로 예측시키는 특정한 양상이다. 이 제국주의는 항상 수출시장의 확보,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을 겨냥한 저임금 노동착취와 같은 경제적 관심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 왔다.

신대륙 개척의 선두주자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교황 알렉산더 6세가 북극에서 남으로 아조레스 서쪽에 줄을 긋고 서쪽은 스페인, 동편은 포르투갈의 영역으로 설정해 주었다. 1516년 이래 신대륙으로 항해하는 모든 배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선교사를 동선토록 하고 프란시스코, 도미니칸, 제수이트 교단 등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식민지 개척사업 과정에 끌려들어 갔었다.

개신교 선교운동의 초기양상도 그런 점에서는 천주교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선교활동을 정부적 차원의 책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운동이 정부지원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화란의 경우, 1602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상업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현지인 전도에도 힘썼다. 화란교회가 선교사를 직접 파송한 것이 아니라 동인도회사가 계약하여 보냈고 후에는 회사가 선교사 양성을 위해 신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다.<sup>113)</sup>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세례를 행한 수만큼의 보상금을 받았고 개종자들은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렸다.

영국도 북미개척의 초기에 식민지개척과 함께 선교활동을 권장하다가 1648년에 의회가 선교를 분리토록 정했고 덴마크도 화란이나 영국처럼 1822년에 동인도회사를 세워 식민사업을 전개하면서 선교활동을 포함시켰었다. 최초의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

112) Max Warren, *I Believe in the Great Commissio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6), 106.

113) Olando E. Costas, *Christ Outside the Gate: Mission Beyond Christendom*, (Maryknoll, New York: Orbis, 1982), 60.

회라 할 수 있는 덴마크 할레 선교회(The Danish-Halle Mission)도 프레드릭 4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도 관권과 식민지 개발사업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교가 회사나 국가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라고 자각했던 모라비안 선교도 초기에는 자립, 자족하는 형태로 선교했으나 선교활동이 확장됨에 따라 경비충당을 위해 선교지간의 교역을 시작하였다. 직물, 담배 등의 국제적 판매활동을 통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상업주의와 선교활동의 연루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같은 초기 선교현장의 상업적 구조와의 관계는 윌리엄 캐리의 경우에서도 보이는 침례회 선교회의 파송으로 인도에 도착했던 캐리는 북 벵갈 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의하여 캘커타 거주를 금지 당했다. 인디고 농장의 관리인으로 몇 년 동안 지내다가 덴마크 인도회사의 허락으로 그들의 영역이었던 세람포오로 옮겼다. 그 곳에서 원주민 위주의 사업 추진문제로 본국 선교회와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선교회로부터 제명되었다. 캐리가 죽은 후 세람포오 대학과 선교회는 제정적인 생존 때문에 다시 영국 침례회 선교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상업주의에 주도된 식민지 개발사업에 구조적으로 휘말려 있는 선교활동의 독립을 시도한 저항의 실패였고 그들의 지원 없이는 실제적으로 선교활동이 어려웠다는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이다.

근대 중국선교의 본격적인 개시도 상업주의와 정치적 군사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무력으로 중국을 굴복시킨 영국이 1842년 남경조약을 체결하여 5개 항을 개방케 하고 치외 법권 하에서 외국인이 누린 특권을 선교사들도 향유하면서 중국대륙 선교에 들어갔다.

근대 일본선교의 시작도 그 형태가 유사했다. 일본에서의 최초의 개신교 예배는 1853년 6월 11일(주일), 페리의 함상에서 드렸다. 그때 페리에 동행한 통역은 중국 주재 선교사였다. 1854년 다시 페리는 열 척의 군함과 1,600명의 군사를 끌고 들어와 일본인들의 기세를 꺾었다. 문호가 개방되면서 1858년에 최초의 근대 천주교 선교사가 입국했고 개신교 선교사들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흐름을 토인비는 현대 선교는 초대 교회의 연속이었으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정치와 종교 내부간의 경쟁이 선교적인 노력에 정치적 측면을 던

겨주었다는 사실이라고 간주하였다.<sup>114)</sup>

이 같은 구조적 타성은 현재의 선교활동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성과주의적인 선교는 이미 1950년에 세계 교회의 선교 흐름이었다. 칼 뮐러에 의하면 선교란 신앙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교도의 개종, 새로운 교회의 개척, 경계선 넘어가기, 구제와 봉사 등으로 말할 수 있다.<sup>115)</sup> 그러나 이러한 선교의 개념을 바탕으로 실천된 선교 사역이 정작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58년 가나 국제 선교대회(IMC)에서 강사였던 부라이타그(W. Wreytag)는 과거에는 선교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하여 지금은 선교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세계 선교신학의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다.<sup>116)</sup> 그것은 곧 카톨릭 500년, 개신교 200년 선교 역사에 대한 재평가 내지는 진지한 비판적 반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른 한편 서구 기독교의 전 세계로의 확장의 시기는 보쉬가 지적한 것처럼 서구 세력의 팽창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sup>117)</sup>

## 2. 성과위주적 선교의 폐해

오늘의 한국 교회는 어느 시대보다 전 세계로부터 칭송과 부러움을 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신학교들도 호황을 누리는 시대이다. 현재 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 수는 총 6,832가정 12,15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장로회 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인 이형기는 대체로 우리 한국 교회는 개인의 회심과 성화, 개교회의 개척과 성장에 힘쓰고 각개 전투 식 혹은 자영업 식 선교에 머무르고 있다 고 지적한다.

“하면 된다”라는 식의 선교는 세계 복음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피해를 입힌다. 최근에 고 김선일의 죽음은 한국 선교의 공격적이고 선교 성과 주의에서 비롯된 슬픈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도자들이나 선교 철학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순교로 미화한다고 인간의 도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무

114) Sannh, *선교 신학의 이해*, 133.

115) K. Muller, *Mission Theology: An Introduction* (Nettetal: Steyler Verlag, 1987), 23.

116) 전호진, *선교학*, 17.

117) D. J. Bosch, *세계를 향한 증거 (Witness to the World)*, 전재옥 역 (서울: 두란노, 1995), 18.

로 돌릴 수는 없다. 선교 역사상 많은 죽음은 전략상의 실수의 결과로 초래되었다. 선교 역사는 설령 순교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전략적인 실수<sup>118)</sup>에 기인한다.

김명혁(강변교회·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은 이같은 방식을 ‘과시적·공격적·정복적인 선교방식’이라고 보았으며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대형교회들이 구소련이나 무슬림 권에 들어가 단기간에 과시적으로 전도활동을 벌이고 오는 것은 현지에서 오히려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실제로 현지 선교사들은 그런 선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한다”고 밝혔다.

한완상 총장(한성대학교)은 “우리는 그동안의 확장 지향, 평창주의적 선교방식을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119)</sup> 특별히 현장에서 선교를 경험한 한 선교사의 고백은 제자 훈련 없이 성과주의적인 선교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선교 경험이 있는 김다니엘은 이렇게 말한다.

교역자 생활비나 신학생 장학금 명목으로 현지 사역자가 자기 사람 만들기에 분별없는 물질과 물량 공세로 순수한 신앙들을 물질로 멍들게 했고 현지인을 한국으로 유학 시켜 목사나 현지 선교사 안수를 받게 하여 자기 교단 사람으로 만드는 일 등 중국 교회의 자립심을 무력화 시켰다. 이런 경향은 과거 조선족 교회 대상에서 최근에는 한족 교회로 까지 점차 옮겨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120)</sup>

체면선교, 전시선교, 프로젝트선교, 돈 선교, 식민주의 선교, 교단확장 선교, 모두 역겨운 단어들이다. 이 모든 것이 성과 위주, 업적위주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들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내외적으로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엄청난 물량공세를 벌였다. 그리고 교회, 교단, 선교기관 사이의 협력과 전략의 부재로 인해 중복배치, 중복투자 등의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선교여행, 단기선교 등 다분히 전시효과 위주의 이벤트성 선교 운동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이후에 사역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성과에 더욱

118) 문상철, “종교 선교, 순교, 그리고 복음,” *목회와 신학*, 2004년 8월호, 214.

119) 최소란, “중동선교 패러다임, 이젠 달라져야 한다,” *뉴스 앤 조이*, 2004년 7월 17일 인용. Online : <http://www.newsnjoy.co.kr/news/read.php>.

120) 김다니엘, “현장 선교사의 중국 선교반성,” *중국교회와 선교* 3 (1997): 130.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는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서 받기를 원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목회자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선교적 마인드와 철학의 부재로 인하여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로 하여금 선교 유예를 선포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염려를 갖게 된다. 선교 유예란 1928년 예루살렘 선교 대회에서 인도 교회의 필립 올리브스가 선교의 잘못된 우월주의와 가부장적인 선교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단어로서 미션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Missionaries: 선교 유예)이라 한다.<sup>121)</sup>

이런 일은 비단 해외 선교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사가 개 교회 주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한 예가 지성전의 건립이다. 지성전은 성과 위주의 선교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대형교회가 막강한 자금력과 인력을 투입하여 이미 자생하고 있는 교회들의 선교 영역을 잠식, 자신의 지교회 확대에 열을 올리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보다는 대형 교회에 종속 되는 중소형교회의 출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이름을 전하는 사업이다. 이런 선교는 더 이상 선교가 아니라 선전이다. 서구교회의 식민주의 선교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지만 선전은 그 복음의 전달자인 교회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sup>122)</sup>

현실의 성과에 연연하여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를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마다 이루어지는 선교에 대한 홍보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했다. 물론 경쟁이 선교에 대한 촉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성과에 대한 경쟁으로 말미암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교회는 경쟁적으로 선교의 현장에 교회를 짓는 일을 행해왔다. 선교사 한명이 파송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자신의 역량에 넘치는 교회를 짓기도 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사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부터 짓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 어떤 선교지에서는 교인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부터 지어놓는 사례들도 많았다. 그것은 선교의 현장에서 바로 보이

121) 박삼열, 이재환, “선교사의 종합적 콜링을 제안합니다,” *목회와 신학*, 2002년 8월호, 36.

122) 한국일, “지성전은 선교가 아니라 선전이다,” *기독교 사상*, 2003년 11월호, 29.



는 성과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경쟁적인 성과 위주의 선교 경쟁은 이제부터라도 좀더 잘 훈련되고 수준이 높은 선교사들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고, 프로젝트 위주가 아닌 전도와 교회개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와 교단, 선교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풍토를 가꾸어 가야한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기저기에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신의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선교사와 그 지역교회와의 관계성은 그리 친밀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즉 선교사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어떤 준비나, 증보기도나, 연결고리 없이, 단순히 파송을 목적으로 선교사를 모시고 온다는 점이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무조건 파송만 하면 교회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한국교회 안에는 자리 잡고 있다. 개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람을 키우는 작업 없이, 또한 충분한 인격적인 교류 없이 상품 수출하듯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계 신문에는 자기 교회의 선교를 선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송 선교사를 모신다는 광고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선별된 선교사는 그 지역교회와 전혀 관계성 없이 몇 개월 후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 선교사와 사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신앙적, 인격적 교류 없이 파송한다. 교회는 그 선교사의 영적인 충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단지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회는 현지 선교사의 사역과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를 못한다. 단지 파송했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 만족과 위안을 줄 따름인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선교의 문제점 중의 또 하나는 선교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을 정도의 후원이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즉 협력 선교사라는 이름 하에 한달에 얼마 씩(10만원 내외) 후원하는 생색내기의 선교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색내기의 후원을 하면서도 자기 교회의 게시판에는 마치 전액 후원인양 선교사의 이름을 싣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같은 것은 한국교회의 극단적인 성과위주의 선교가 낳은 병폐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선교를 체면 선교라 부른다.

한 가정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을 때는 최소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함이 되지 않도록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그저 생색내기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로 인해 파송된 선교사는 선교사역에 온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느냐에 사역이 집중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본질에서 떠나 엉뚱한, 전혀 선교사역에는 상관없는 일에 매달리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부차적인 것이고, 재정후원과, 재정확보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선교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교 후원이 문제가 된다. 선교사의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의 선교 지원보다는 비록 수는 적더라도 온전한 선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선교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쉽게 후원을 중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점에서 선교에 대한 소명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많은 한국교회가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선교를 중단하거나 선교 후원금의 액수를 대폭 줄이는 정책을 쓴다. 만일 교회가 풍요로울 때만 선교 한다면 사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울 때 끊는다면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교의 일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나 그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그 사역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선교는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었고, 생색내기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지난 IMF 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는 그 시점에서, 신림교회는 파송선교사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선교비를 보내주었던 것은 귀감이 될만하다.

또 다른 한가지의 문제점은 한국교회가 너무 결과를 빨리 보고자 한다는 데 있다. 장기적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손에 잡히는 열매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사들에게는 많은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자칫 잘못하면 파송교회와 선교사들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사진 찍기용(홍보용) 사역에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

는 것이다.

사역에 따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과도한 욕심으로 다른 선교사들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내용은 선교사가 성과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파송교회에서의 성과에 대한 요구로 인해서 이런 마찰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될 경우가 많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선교사가 자리도 잡기 전에 무리한 성과를 요구하기 보다는 그 선교사가 정착하고 사역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현지의 사정을 파송교회는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듯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교사의 선발과 파송 과정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국제적인 협력체제 속에 들어가서 사역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워진 전략에 따른 사역을 하기보다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역을 해나가기 쉽다. 따라서 이미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시행착오를 하며 배운 교훈을 무시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기도 한다.<sup>123)</sup>

따라서 이제는 신앙적,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외국어 구사 능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소수 정예의 선교사를 선발하여,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파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전에 타문화권 사역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충분히 받도록 해야 하며, 파송된 후에도 반드시 현지어와 문화를 충분히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선교사들이 현지인 통역자에 의존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마저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안식년 등으로 귀국한 선교사들에게도 재교육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타성에 젖어 사역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실제로 사역한 기간에 비해 그가 준비하고 훈련을 받기 위해 보낸 기간이 아주 길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에 대하여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의

123) 김동화,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국 선교," 복음과 상황, 1998년 7월호, 47.

외로 무위도식하는 선교사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는 별 상관없는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밖에도 선교사들이 현지 언어와 문화도 익히지 않고 대충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질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선교사들 자신의 문제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파송교회, 교단/선교부 등의 정책과 전략부재, 그리고 성급한 업적주의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인도에서 어느 한국 선교사는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현지의 교회를 사들였다는 비난마저 듣고 있는 현실(R. Winter, *Mission Frontiers*, 1997년 1, 2월호)을 직시하여야 한다.<sup>124)</sup>

### 3. 평가

#### 가. 긍정적인 평가

물론 성과위주의 선교의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첫째 성과 위주 선교는 선교의 가시적 성장을 가져오는 이점이 있다. 성장은 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라야 하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자라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큰 문제인데 선교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교의 성장은 선교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 선교 학자들은 일정한 지역 인구 중에서 신자의 수가 2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복음적으로 취약한 무리들로 간주한다. 신자의 수가 인구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자력으로 자기 종족이나 민족을 복음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성장은 중요한 것이다.

#### 나. 부정적인 평가

성과 위주의 선교가 긍정적인 평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성과 위주의 선교는 결국 교회 성장주의와 맞물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과 위주의 선교와 교회 성장을 주장하는 김홍도는 *목회와 신학*, 1996년 5월호에서 이런

124) 김동화,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국 선교," 47-48.

게 말한다.

저는 대교회 예찬론이라고 할까요? 난 먼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는 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국가에도 복된 일이지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겨자 나무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렇게 무한정 커지고 확장 되어야지, 교회는 클수록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sup>125)</sup>

성과위주의 선교는 첫째, 내실이 빈약한 성장현상을 들 수 있다. 급증하는 교인들을 제대로 훈련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세례를 주는 경향은 교회를 외화 내빈의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교회의 회원은 많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훨씬 적을 것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 확장이 교회의 세력으로 비쳐 질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성과주의의 선교는 거룩한 영향력보다는 힘의 과시를 말하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교회 중심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호켄다이크가 지적한 대로 교회 중심적인 생각은 잘못된 중심을 잡고 회전하기 때문에 항상 정도를 벗어 날 수 있다. 교회 중심주의의 선교는 결국 개 교회 선교 주의로 흘러 성과 주의 선교를 부추길 수 있다. 넷째, 성과주의 선교는 물량 공격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 결국 작은 규모의 교회나 선교단체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교회나 선교단체는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교는 말씀사역과 봉사사역이 상호 보완하는 통전 선교가 이루어 져야 한다. 개척만이 능사가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지역교회는 교회 개척 사역에서 교회 발전 사역으로 그 단계를 올려 주어야 한다. 제자 훈련은 바로 개척사역을 발전 사역으로 올려 주는 좋은 방법이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수도 및 지방으로의 교회 개척 사역 등 외향적인 사역 보다 기존 교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사역 등 내향적인 사역에 치중하고 있다. 두 가지 사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두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교회 지도자와 일꾼의 배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한국 선교사는 교회 개척, 제자 양육 등 사람 중심의 사역에 강점을 갖고 있다.<sup>126)</sup>

125) 김명수,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의 기원," *기독교 사상*, 1998년 9월호, 44.

126) 안교성, "몽골 선교의 회고와 전망," *기독교 사상*, 2004년 4월호, 85.

## 제 5 절 결어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중에 ‘빨리 빨리’라는 단어라 한다. 이것은 한국인의 급한 심성을 나타내는 단적이 예라 할 수 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빨리 빨리 이다. 선교사도 급하다. 선교사를 보낸 교회도 급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하는 교회들 중에는 선교지 보다는 선교사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다. 선교지 때문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때문에 선교하는 경우가 있다. 인맥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다.

또한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선교는 분명히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자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과적인 선교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선교는 성과 위주의 사역이 아니다. 그 땅을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물자를 공급하는 것만이 선교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고 가는 것만이 선교의 전부가 아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선교사를 선교사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를 동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 지원에는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역교회는 선교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계속 선교 할 수도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열심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느 집회에서 자신이 선교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선교지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선교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회복하고 도전하는 길은 기도 선교사로 동원 할 수 있다.

초대 교회 선교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초대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성도들은 어떤 건물도 소유하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다. 초대 교회 선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이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날의 교회처럼 일단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들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반대로 제자 삼기 위하여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예수님의 제자는 학교를 세우는 것도 아

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길은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예수를 닮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신림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자 훈련과 선교를 어떤 성경적 기초  
하에 실천하였는지를 논하겠다.

## 제 4 장

## 신림교회의 제자 훈련과 선교의 성경적 기초

우리는 시대 상황에 따라 유행하는 목회 방법이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비법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목회 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을 가져다 줄 것 같은 한국 교회의 목회 상품은 무엇일까? 셀 교회,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 알파 훈련 등이 오늘의 목회 상품이 아닐까? 그 중에 제자 훈련과 선교도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한 많은 목회 비법의 하나로 훔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거부한다. 우리는 많은 수의 교인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에 관심이 있다. 특히 우리는 바나바의 삶을 무척 좋아한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행 13장)를 좋아한다. 바나바는 큰 사업을 벌이거나 대중 전도를 한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바나바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시스템을 제자 훈련과 선교에 맞추고 있다. 우리는 4장에서 성경에 기초한 신림교회 제자 훈련과 선교를 논하겠다.

## 제 1 절 신림교회 지역 연구

신림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 내 관악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 이다. 교회 위치는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51-18에 위치하고 있다. 신림교회는 1974에 창립 예배를 드렸으며 우리는 제 4대 목사로 1995년 1월 1일로 부임하였다.

본 논문의 제목인 '신림교회의 제자 훈련과 선교'에서 혹자는 왜 지역 교회가 지역에 목회 역량을 치중하지 않고 해외 선교에 치중하느냐 의아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신림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를 연구해 보면 왜 제자 훈련하여 선교하는 교



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신림교회가 속한 신림9동의 여러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림9동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동향, 지리·교통 상황, 경제 상황, 종교 상황을 진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자 훈련과 선교의 필요성과 실재를 논의할 것이다.

## 1. 지리적 위치

신림 교회는 관악구 신림9동에 위치해 있다. 서울특별시의 남서부에 있는 관악구는 면적 29.57km이고 인구는 2003년 현재 52만 2208명이다. 관악산의 북사면에 자리하고 있어 과천과 안양 등 수도권 남부 도시로부터 서울 유입의 관문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구청 소재지는 봉천동이다. 그러나 한 때 관악구는 영등포구에 속해 있었다. 1973년 영등포구에서 분구되면서 관악산의 이름을 따서 관악구라 명명하였다. 또한 동쪽으로는 동작대로를 경계로 서초구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관악산의 잔구능선과 시흥대로를 경계로 금천구 그리고 남쪽으로는 관악산을 능선을 따라 과천시와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며 북쪽으로는 국사봉의 능선과 도림천을 따라 동작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구의 중심부를 남부 순환도로와 지하철 2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관악구는 봉천동과 신림동, 그리고 남현동 3개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 중에 한 동인 신림동은 총 12개 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림동 12개 동 중에서 신림교회는 신림 9동에 속해 있다. 신림9동은 관악산과 삼성 산 기슭에 위치한 지역이다. 관악산을 주봉으로 하여 서쪽으로 호암산, 동쪽으로 우면산을 연결하는 산지를 이루며 이를 경계로 경기도 시흥군과 안양시 등으로 지형적인 격리가 되어 있다. 환경은 아름답고 공기가 좋은 곳이지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신림9동은 관악구 중에서 관악산 쪽으로 가장 깊이 위치한 곳이어서 교통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신림 9동에서 시내로 나가는 대로는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림 9동의 지리적인 위치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장점으로도 작용하는 듯 하다. 한 예로 관악산 관통도로를 뚫기 위한 서울시 계획에 주민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관악

산의 환경이 파괴 된다는 염려이다.

관악구 면적인 29.57km 과 인구 2003년 현재 52만 2208명 중 신림 9동의 면적은 7.95km(관악구의 26.8퍼센트)이다. 인구는 2003년 현재 11,641세대로 22,948명이다. 이 중 남자는 13,350이고 여자는 9,589명이다. 주택은 4,606동이다. 이 지역에는 서울대학교와 고시학원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따른 하숙집의 개념을 가진 고시원과 원룸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 및 고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일반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다.

## 2. 경제적인 상황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촌 향도의 물결에 따라 철거민 정착촌의 전형을 이루었던 이곳은 재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주거지로서 기능과 녹지 학교로 구성된 주거 소비형 지역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적인 산업을 이룰 기반 시설이 거의 없고, 개발할 토지도 없으며, 축적된 자산도 없는 취약한 지역 여건을 갖고 있다.

다음 도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명사인 아파트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림9동 주민들 중에는 인접한 서울 대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고시 수험생들을 상대로 하숙을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이어나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신림 9동에 거주하는 신림교회 교인들은 직 간접적으로 하숙생과 고시생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

<표 3> 신림9동의 주택현황<sup>127)</sup>

총건물	공동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허가	무허가
4,605	1,861	454	2,246	45

127) 신림9동, 신림9동 2003년 동정보고서, (서울: 신림9동 동사무소, 2003), 4.

<표 4> 신림9동의 저소득 주민현황<sup>128)</sup>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 자 가 정	부 자 가 정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74세대 106명	11세대 25명	1세대 3명	6세대 13명	2세대 3명

2004년도 동 행정 업무 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 주민 보호 사업의 계획을 볼 수 있다. 다정한 이웃 결연 사업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시행하였는데 수혜자는 554명이었고 후원자는 78명이었다. 후원 금액은 23,356,000원이었다.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은 자활근로 1,610명으로 35,492,000원이었다. 저소득 생계비 지원은 1306명으로 소요된 재정은 166,852,000원이었다.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은 176명이었다. 공공 근로 사업으로는 총 4,248명이 참여하였다.

### 3. 시설현황

다음 도표는 신림 9동의 주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표이다.

<표 5> 신림9동의 기관 및 시설<sup>129)</sup>

학교				의료시설			종교시설		행정 관서	복지시설			금융기관	
대학	고교	중학	초등	의원	한의원	약국	교회	사찰	우체국	어린이 집	청소년 회관	경로당	은행	마을 금고
1	4	1	1	12	2	13	11	8	1	4	1	4	2	1

이상으로 지역 연구를 살펴보면 신림9동은 선교지이다. 이곳에 약 3만 명이 각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동시에 서울 대학교 학생들이 하숙집에서 혹은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128) 신림9동, 신림9동 2003년 동정보고서, 5.

129) Ibid.

하다. 이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종교가 이 곳에 터를 잡는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교회가 오아시스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림교회의 정체성을 단순한 오아시스에서 찾지 않고, 서울에 위치한 유학생 교회로 정리한다. 다시 말하면 위로하는 교회가 아니라, 치유하고, 훈련해서 내보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다. 신림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병영인 교회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3만여 명의 많은 젊은이들 있지만 이들은 신림동에 터를 잡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때가 되면 떠날 사람들이다. 전국으로 전 세계로 떠날 사람들이다. 실제로 몇 달 혹은 길게는 4-5년 남짓 머무는 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신림교회 교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병영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곳에 머무는 기간 동안 훈련과 성장, 성숙을 시켜 보내는 비전을 본다. 신림교회 교인이 되어 신림9동에 정착하라고 주장하기보다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전국으로, 전 세계로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신림교회의 정체성과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음 도표는 신림9동의 인구 이동현황이다. 이것은 곧 신림교회의 교회 성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라 할 수 있다.

<표 6> 신림9동의 민원 업무 처리 실적<sup>130)</sup>

구 분	계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 증발급	전출입	제증명	민방위	팩스
건 수	97,465	15,489	49,335	2,076	11,462	6,610	4,016	8,477
통 수	142,079	27,894	74,001	2,076	11,462	9,915	4,016	12,715

신림9동의 인구는 2003년 현재 11,641세대로 22,948명이다. 그중 전출입이 11,462이다. 그렇다면 1년에 약 50퍼센트가 신림9동을 나가고 들어온다는 결론이다. 그만큼 신림9동은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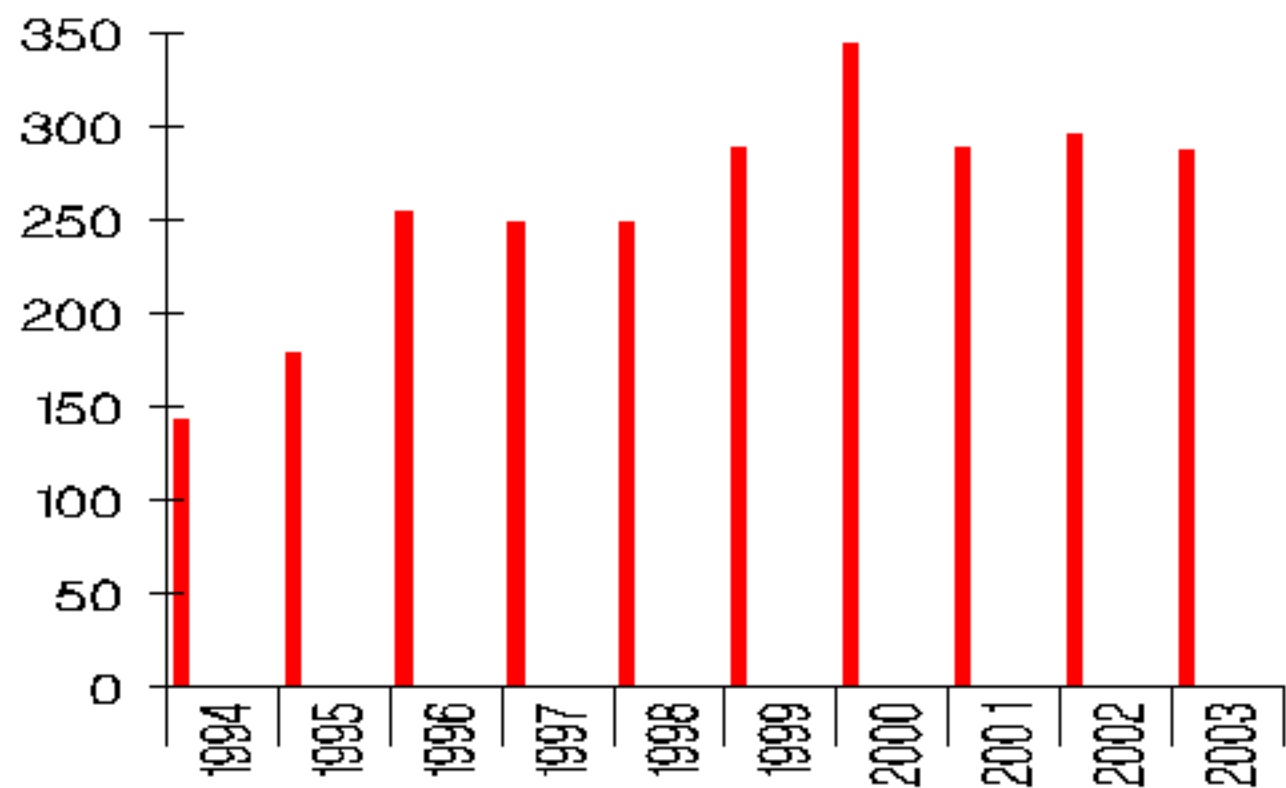
신림교회의 10년 동안의 새 신자 등록 도표를 보자.

130) 신림9동, 신림9동 2003년 동정보고서, 5.

<표 7> 신림교회 새 신자 통계<sup>131)</sup>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대	155	169	144	167	163
30대	90	102	89	79	78
40대	18	39	15	23	26
50대	17	25	9	14	11
60대 이상	8	9	15	13	9
합계	288	344	272	296	287

&lt;그림 3&gt;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등록된 새 신자 그래프



<표 7>을 보면 새 신자 연령 중에서 2, 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신림9동의 유입인구와 관련이 있다. 또한 신림9동의 급격한 인구 이동과 새 신자 등록은 유사한 관계가 있다.

131) 신림교회 1999년부터 2003년 주보.

#### 4. 주변 환경

신림 9동은 심야까지 음식점과 유흥시설이 문을 여는 곳이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고시생들이나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중에 밤참을 먹기 위하여 일어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에서 이제는 사행성이나 유흥업소 등이 은밀히 생기는 추세이다. 고시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경마 오락장'이다. 문제는 오락을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돈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스크린 경마는 게임 방식에 따라 한번에 120여 곳에 동시 배팅을 할 수 있는 데다 5분 정도면 게임 한번 하는 데 충분 하다. 몰입 하다 보면 1시간에 10만원 정도 쓰는 것은 예사다. 일부 수험생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았다가 1주일에 2-30만원씩 쓰면서 중독 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한다.

순수 수험생만 3만여 명이 머물고 있는 신림동 고시촌이 각종 사행, 유흥업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험생들은 무방비 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고시촌 상권은 주로 수험관련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불과 3년 만에 '바' '실내경마오락실' '스포츠마사지(안마시술소)' '성인PC방' 등 수험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 가. 소망의 땅

신림 9동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 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하루에도 수백 명 씩 이곳에 방을 얻어 미래를 준비한다. 청년들이 모인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다.

이들은 한결 같이 소망을 품고 올라오는 젊은이들이다. 고생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꿈을 안고 올라와 시험을 준비하면서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가는 곳이다. 신림 교회 성도는 이런 젊은이들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신림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여 자신의 야망을 품고 이 곳에 온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교회이다.

부임할 당시 많게는 90명, 적게는 70명 정도의 청년들이 신림 교회 내에 있었다. 이들은 거의 모두가 지방에서 올라 온 젊은이들이었다. 지금은 약 4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신림교회 공동체에서 훈련 받고 있다.

#### 나. 우월감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세계 중심이라고 여기고, 모든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을 표현한다. 특히 신림 9동은 서울 대학교 학생들과 전국에서 올라온 고시 준비생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은 기독교적인 자존감하고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다. 나는 가장 위대하다는 생각, 나는 가장 강하고 최고라는 생각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

신림교회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 이 곳에 온 청년들 가운데 자신이 무참하게 깨어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의 허상을 보고 살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다. 패배감

이곳은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각종 수험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수험생으로 온 젊은이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서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나 시험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치열하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 이곳에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시험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이다. 대부분 불합격했기 때문이다.

신림9동의 젊은이 내면에는 극심한 경쟁에서 탈락한 시험의 실패로 인하여 오는 패배감의 분노가 있다. 완전주의는 상상된 완전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분노를 초래한다. 완전주의자는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데 이들은 비현실적인

표준들을 세워 놓고 좌절한다. 이런 현상은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자존감의 스트레스이다.<sup>132)</sup>

신림9동의 젊은이들 가운데 패배감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알콜 중독이나 정신 이상 등을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신림교회는 이들에게 자존감의 회복을 위한 관심과 함께 비현실적인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하여 하나님의 지체로 살도록 훈련한다.

#### 라. 고립감

이곳은 소위 고시촌이라는 곳이다. 고시원을 방문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전부이다. 이들이 공부하는 독서실도 좁은 공간이기는 매 마찬가지이다.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책하고 씨름을 해야 하는 삶이다. 책하고의 씨름만이 아니다. 고독의 싸움이고, 불확실한 미래와의 싸움이다. 지방인 학생들은 집에서 올라오는 학비가 또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 이유는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곳이다. 그 유혹은 급기야 자살로도 연결 될 수 있다.

행정, 외무고시와 사법시험 등 각종 5급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몰려있는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사랑 샘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변호사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100평 남짓한 이곳에는 차를 한잔 하면서 가톨릭 관련 서적을 볼 수 있는 작은 쉼터와 함께 예배실과 명상실, 상담실 등을 갖추어 놓고 있다. 일요일 아침 10시엔 인근 삼성산 성지까지 산행을 다녀온다. 오후 5시에는 '말씀의 선교 수도회'에서 파견된 폴란드 출신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이어 유명인사나 고시합격자, 법대 교수 등을 초대하는 일요교양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승려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갔다. 이런 현상은 단적으로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외롭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132) Mark P. Cosgrove, 분노와 적대감 (*Counseling for Anger*), 김만풍 역 (서울: 두란노, 1996), 69.



## 제 2 절 제자 훈련과 선교의 성경적 기초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을 공부프로그램이 아니다. 신림교회의 제자 훈련은 성도에게 영적인 input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적인 output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output을 선교로 삼는다. 제자 훈련과 선교를 목회 철학으로 삼게 된 성경적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예수님에게서 찾는다.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신약을 통해 생각할 때 우선 예수의 사역에서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고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님의 사역이 주로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 특히 그의 12제자에게 집중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세계 구원을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둘째로 초대교회에서 찾는다. 특히 초대 교회들 중에서 선교에 관심이 적었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작지만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행 13:1, 3)를 모델로 신림교회의 제자 훈련과 선교를 펼쳐 나간다.

### 1. 신림교회 교회론

칼빈은 교회란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고 하였으며 ‘훈련’이란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을 격려하며,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비로 건져 주며, 따뜻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시 일깨워 주는 아버지의 회초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up>133)</sup>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이다. 교회는 즐기기 위해 오는 극장의 분위기가 아니어야 한다. 교회는 마치 법정과도 같아야 한다. 내가 출두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인 파단을 받아야 하며 물어 보는 말에 즉시 대답하고 결정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이어야 한다.<sup>134)</sup>

지금까지 교회는 외부의 공격 보다는 내부의 변절로 인해 아픔을 더 많이 겪어왔다. 모든 시대마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자기만족이라는 위험에 처하곤 하였다. 그것

133) 김종렬, *새 천년의 도전과 미래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 (서울: 한들 출판사, 1999), 44.

134) Graham,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15.

은 그들이 다른 교파와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이다. 어떤 교단이 혹은 어떤 교회가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특별히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타 교회와 숫자를 비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회 성장이 아니라, 건물과 재정의 비교가 교회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신림교회의 교회론은 모으는 교회관이 아니다. 우리의 교회론은 보호하는 교회론이 아니다. 우리의 교회론은 나가는 것이요, 훈련하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영적 훈련소이어야 한다. 살을 빼는 교회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비계살'이 '근육살'이 되도록 훈련하고 나가도록 하는 교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이다(딤후 2:3).

#### 가. 훈련하는 교회

첫째, 신림교회는 일정의 훈련을 마쳐야 사역자로 설 자격이 주어진다. 아무리 타교회 증직이었다 해도, 일대일 성경공부를 수료하지 않으면 리더로 세움 받을 수 없다.

둘째, 신림교회는 교회 내 선교학교 과정을 수료해야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신림교회는 해마다 3회 이상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단기 선교를 떠나기 위한 자격조건은 반드시 선교학교를 수료해야 한다.

셋째, 신림교회는 철저하게 큐티를 생활화하는 교회이다. 정기적으로 큐티 세미나를 열어 큐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구역장 성경공부와 구역예배 모임을 큐티 교재를 가지고 소모임을 갖는다.

#### 나. 평신도 중심의 교회

교회의 진보와 발전을 끊임없이 꾀방하는 두 가지 뿌리 깊은 오해가 있다. 하나는 교회가 건물이라는 반쯤 어정쩡한 생각이다. 또 하나님 교회 내에서 비교적 소수에게만 합당한 성직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성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고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은사는

지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따름이다.

에밀 부르너는 *교회의 오행*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sup>135)</sup>

모두가 성직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에서고 목사로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교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수동적인 성원 사이에, 그리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분리가 생기지 않으며 심지어 차이조차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에클레시아 안에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섬김의 의무 및 권리가 있고 항상 경배 드리는 자세 역시 모든 이에게 요구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역할이 매우 다를 수 가 있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은 그의 저서 *섬기는 소명*에서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제자들에게 “성직자와 평신도간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전문인과 비전문인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평신도이고(벧전 1:10, 라오스)동시에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하다. 신약성경에는 성직에 대한 계급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sup>136)</sup>

신림교회 교회론은 교회가 건물이라 한정하지 않으며 교회 내 소수에게만 합당한 성직을 제한하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신림교회의 교회론은 사람들을 많은 교인들을 수용하는 큰 건물을 짓기 보다는 세례를 주고 세상에 나가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회론이다.

신림교회는 모든 믿는 자를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 인정한다. 또한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다양한 사역을 수용한다. 신림교회는 모든 사역을 성직으로 보며 중요하지 않는 사역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모두 중요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사역이 서로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론에 기초한 목회를 한 결과, 신림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정착

135) Jim Graham,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119.

136) Ibid.

하게 되었다. 정착된 결과 기성교회와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신림교회는 공 예배 기도를 장로들에게만 한정짓지 않는다.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 집사에 이르기까지 세례 받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공 예배 기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기도자는 반드시 기도문을 작성해 와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한다.

둘째, 신림교회는 성가대 자리가 따로 없다. 성가대 지정석을 따로 두는 것은 특권 의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성가대의 직임은 회중에게 높임을 받는 사역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이다.

셋째, 신림교회는 목사와 장로 자리가 따로 없다. 본 연구자는 담임목사로 사역한 지 3년 만에 강단 의자를 없앨 수 있었다. 이는 당회원인 장로님들의 전적인 동의 하에 이뤄질 수 있었는데, 오늘날 강단 위에 놓여 있는 의자가 평신도와 차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에 강단 의자를 철수하였다.

넷째, 신림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권위적이지 않다. 신림 교회에 등록된 새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목사와 장로들이 지나치게 권위적이지 않아 좋다고 평가한다. 목사와 장로들이 권위적이지 않고 평신도들에게 군림하지 않는 모범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동역자로 인정하는 의식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평배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림교회에 정착된 큐티 모임은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여전도회와 남 선교회 별로 자유롭게 큐티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큐티 모임 진행은 모임 구성원들 내에서 진행한다. 교역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교역자는 큐티 팀 리더가 도움을 청할 때에 한해서 성경적인 도움을 준다.

여섯째, 신림교회는 가능한 많은 책임들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위임하도록 한다. 모든 부서는 부서의 장(長)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신도 리더들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준다. 각 부서에게 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는 각 부서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 다. 선교하는 교회

교회는 유기체이다. 유기체인 교회는 저장 탱크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한다.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찌듯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비대해지고 비대해진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과체중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없다. 한 개인도 자신의 몸이 비대해지면 다이어트 하기 위하여 열심히 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이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못하여 비대해진 한 개인처럼 한국 교회는 자신을 관리 하지 못하여 비대해졌다. 그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무거운 자신의 몸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림교회는 비대한 교회처럼 비대한 교회보다는 다이어트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다이어트 하는 교회 사역으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충분히 영양공급을 한 후 그 힘으로 선교와 구제사역을 지향하고 있다. 만일 영양 공급 없이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한다면 힘에 부친 나머지 사역의 부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구제와 선교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제자 훈련이라는 공급이 필요하다. 만일 훈련 없이 사역을 하게 한다면 처음에는 열정으로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무로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사역의 기쁨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사역은 감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 할 것이다. 신림교회는 새 가족에게 사역을 주지 않는다. 먼저 훈련을 받도록 권면하고 있다.

다음 그림 4는 선교하는 교회, 다이어트 하는 교회로 제자는 선교의 두 단계 과정, 즉 세례와 복종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신림교회 제자 훈련론

건강한 교회라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고 그들을 가르쳐 일생동안 제자가 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세상을 그리스도와 화해시키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후 5:17-21).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훈련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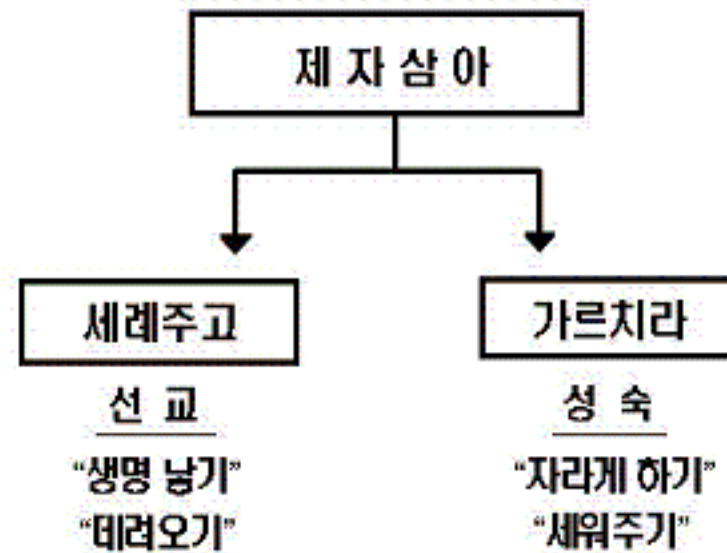
&lt;그림 4&gt; 선교하는 교회

가서...

선행조건

목표

과정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 나온다. 예를 들면 몸으로서 교회(롬 12:5; 고전 10:16-17; 12:12-27; 엡 1:22-23; 2:16; 4:4-12, 16; 5:23, 30), 신부로서 교회는 고린도후서 11장2절과 에베소서 5장 22-32절이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교회는 특히 히브리서를 참고 할 수 있고 가장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다룬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5-9절이다. 교회를 지칭하는 또 하나는 양 무리로서의 교회이다. 예수님은 열두제자들을 “적은 무리”라고 불렀다(눅 12:32).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양 무리를 먹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제자의 개념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자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즉 그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는 부르심이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제자라는 것에서 신림교회 제자 훈련은 출발한다.

신림교회는 제자 훈련이 곧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는 등식으로 제자훈련을 도입하지 않았다. 선교단체에서 시행하는 제자 훈련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이기 때문에 3-4년을 기준으로 기초 과정에서 재 생산과정까지 다루면 된다. 하지만 교회의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신림교회는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을 재생산에 두지 않고 선교에 두었다.

그러나 선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신림교회는 재생산의 제자 훈련 철학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다. 제자 훈련은 교회의 교인됨을 말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으로 제자 훈련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홍콩의 지도자이며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필립 텡 박사가 한 말에 동의한다. “교회의 참된 힘은 세례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수에 있다.”<sup>137)</sup>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의 실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다음 두 곳의 성경에서 찾는다.

#### 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 훈련

사도행전 2장 41-4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교회의 모델은 “제자삼기”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첫째, 회심(41절)으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최초의 결심은 제자도의 관문이다. 그것은 복음전도의 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걸음이다. 둘째, 동일시(41절)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공적인 확인은 두 번째 요구이다. 셋째, 공동체의 일원이 됨(41절)으로 그들은 교회의 성원이 되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뿐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는 것으로 신분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새롭게 형성된 제자들의 몸에 가입하였다. 넷째, 교육(42절)으로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함께 모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섯째, 참여(42-46절)로 그들은 교회의 사역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서로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섯째, 전파(47절)로 그들은 그 지역사회 속으로 뻗어나갔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제자훈련은 내적이거나 정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아 중심적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이었다. 코이노니아(그 단어의 어근이 의미하는 바대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137) Philip Teng, “Twelve Cross in the Apostolic Church”, *IN CHINESE CHURCH TODAY*, May 1979, 38.

것을 의미하며, 엘리트나 선택된 사람들만의 닫힌 교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곱째, 재생산(47절)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서 칭송을 받았다. 여기에 제자 공동체의 구심적이고 매력적인 힘이 있는 것이다.<sup>138)</sup>

#### 나. 바울의 제자 훈련.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지경에까지 처했다. 그러나 그는 증오의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려졌던 바로 그것으로 되돌아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행 14:22)고 권면했다.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느끼고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관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행 15:36)고 말했다. 우리는 흔히 이 여행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른다. 사실 이 여행은 바울의 제자 삼는 전도여행의 시작이었다.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행 15:41). 길고 고된 여행이 끝난 후 그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서 그는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행 18:23). 사도 바울은 참으로 제자를 삼는 자였다.<sup>139)</sup>

### 3. 신림교회 선교론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자주 외친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 일률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교회였다. 다양한 초대교회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초대

138) Scott, *사회정의와 세계 선교를 향한 제자도*, 213.

139) LeRoy Eims,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조성동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99), 65.



교회는 다분히 예루살렘교회 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풍성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했던지 나의 소유 너의 소유 할 것 없이 유무상통까지 하는 교회였다.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기뻐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부탁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과 가정 모임을 통해 교육과 교제와 떡을 떼는 행위만 계속 되었지 목회 철학을 선교에 두지 못하였다. 비록 제자 훈련은 존재했으나 선교가 없었기에 중앙 집중적이고 내향적인 교회가 되어 갔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의견이 분열되었다.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생겼고 헬라파 교인들에게 비해 히브리파 교인들이 편애를 받는다는 불평이 바로 그것이다(행 6:1-2).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였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자 이때부터 성령님께서 많은 권세로 하루에 3천 명이나 회개한 교회였으나 불행하게도 자기중심적인 교회였다.

신림교회는 대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교회가 커진 다음에, 예배당을 크게 건축한 다음에, 교세가 확장된 다음에 교회 재정이 넉넉해진 다음에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라는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다. 신림교회는 분명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철학을 가진 교회이다. 10년 전에 신림교회에 부임했을 때 부임 설교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다. 제자를 삼아 선교하자는 설교였다. 다른 교회들이 선교 한다고 우리도 선교하는 선교가 아니라 세상 끝날 까지 선교하자고 설교 했다. 유형의 선교가 아니라 일관된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다.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에밀 부르너는 이런 말을 했다. “불은 타면서 존재 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해야 한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한번씩 들어 보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왜 그 복음을 두 번씩 들어야만 하는가?”<sup>140)</sup>라고 했다.

신림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그 모델로 삼는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140) 조봉희, *번쳐 목회* (서울: 나침반, 1998), 227.

중심적인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주의 명령인 선교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전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다. 자연히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던 교회였다.

우리 한국 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마다 부흥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다. 일제 치하 그리고 유신 정권과 군부독재 시대에 교회는 성장하였다. 신림교회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한번 이상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합격하지 못하여 오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시험의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외국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젊은이들이 이 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신림교회는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 가. 작지만 비전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조그만 교회이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 신림교회는 지역 교회이다.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주일 예배 인원이 청년과 성인을 포함하여 약 1,30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가 협소한 이유로 5부 예배를 드릴 정도로 조그만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각각의 은사를 내어 놓고 헌신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다. 이런 이유는 곧 제자 훈련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한다. 어느 한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각자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지도자들이 있다.

#### 나. 다양한 성도로 구성된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단일 민족적인 교회가 아니었다. 혈연 지연을 초월한 교회였고 세계적인 선교적 교회였다.<sup>141)</sup> 신림교회는 전국에서 올라온 대학생들과 고시생들이 있는

141) 사도행전 13장 1절에 정통 유대인 바나바, 사울이 있다. 니그로(흑인) 시몬이 있다. 헤롯

교회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열연과 지연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이다. 그리고 유학을 가거나 외무고시를 통하여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교회는 선교 마인드를 심고,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다.

#### 다. 선교하기 위하여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 훈련 하는 교회였고 제자로 준비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로 세운 사람,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성과 주의적 선교에 사로잡혀 선교사를 밖에서 찾지 않은 교회였다. 선교사를 외부에서 초빙해 온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식구 가운데에서 선교사를 보냈다. 이것은 곧 성과위주의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림교회는 성과 위주의 선교를 지향하지 않는다. 철저히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선교를 한다. 한 예로 신림교회에서 자라고 헌신한 어느 선교사가 훈련 받기 위하여 해외로 나갔다. 그런데 도중에 언어의 진보가 없어서 선교 훈련 본부에서 교회에 문의를 해왔다. 그 선교사 후보생이 계속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후원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해 왔을 때 우리는 기꺼이 후원하기로 하였다.

#### 라. 모두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가시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서 사는 것 자체를 우리는 선교라 여기고 선교사로 인정한다. 신림교회의 선교 철학은 안디옥 교회에 있다. 안디옥 교회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선교가 진행 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일치하여 선교 사역에 헌신한 것처럼 일치된 선교관을 가지고 있다.

---

의 이복동생 마나옌이 있다. 마나옌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원수 관계이다.

#### 마. 가족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외부에서 초빙해 오지 않고 안에서 그들의 식구 중에서 선교사를 보낸 것을 우리는 Family Missions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신림교회 선교는 Family Missions에 근거한다. 왜 Family Missions인가? 식구라는 개념은 모든 관심 중에서 우선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외부에서 청빙해 와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교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를 것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관심 갖는 일에 소홀히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식구가 선교지에 나가면 당연히 마음과 몸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할 것이다.

#### 4. 평가

신림교회는 두 기둥의 목회 철학이 있다. 하나는 제자 훈련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선교이다. 두 기둥의 기초는 당연히 복음이다. 복음에 기초한 제자 훈련, 복음에 기초한 선교가 바로 신림교회의 목회 철학이다.

지금 세계는 일일 생활권으로 좁혀오고 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해외 출장이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림교회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세속적인 성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성도로 훈련시켜야 한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교회 성장이란 성도들을 훈련시켜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데 있다.

#### 제 3 절 결어

신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관찰하고 연구함이 당연하다. 신림9동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 매김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인구가 꾸준히 집중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일정 기간 내에 이곳에 거주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떠날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곳에 상주하는 지역 주민들인 신림교회 성도들은 이들에게 제자 훈련 시켜 내보내야 한다는 선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 시킬 필요가 있었다. 세 번째, 특징은 종교적인 면으로서, 갈급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의 교회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평안을 안겨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 신림교회의 제자 훈련과 선교의 철학을 논하였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신림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자훈련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 제 5 장

### 신림교회 제자 훈련의 실제

그동안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듯한 느낌이 있다. 교회 성장을 위하여 평신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를 무시한 측면으로 해석된다.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벧전 2:5, 9). 즉 평신도 역시 교역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동일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다(마 5:13).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창조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장에서 우리는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했다. 이제 5장에서는 신림교회가 평신도를 구체적으로 훈련하여 목사와 교사로(엡 4:11) 세워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기로 하겠다.

#### 제 1 절 신림교회의 역사

신림교회는 1974년 3월 17일에 노옥녀 권사와 몇몇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정도 교회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1977년 제 1대 목회자로 전계백 목사가 부임하면서부터이다. 제 1대 목회자인 전계백 목사는 신림교회에 대한 목회비전을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삼고 계속해서 중보하였다. 신림교회 선교의 초석을 제 1대 목회자인 전계백 목사가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제 4대 담임인 전준식 목사가 부임하면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부임 당시 약 400명 미만인 성도들이, 지금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출석교인 약 1200명 정도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현재 주일 예배는 1부 7시 30분을 시작으로 오후 4시에 드리는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모두 5부로 예배드리고 있다. 제 4대 담임인 전준식 목사가 1995년 부임하였는데, 부임하면서 교회의 체질을 훈련과 선교하는 교회로 바꿔가기 시작했다. 전준식 목사는 신림교회의 목회 방침을 훈련과 선교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삼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일대일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 삼는 일에 열심 하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양육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함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신림교회의 항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첫 부임 때부터 전준식 목사는 사도행전 강해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한 강조와 함께 교회의 체질을 선교 쪽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전준식 목사가 부임하면서 청년부의 양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 괄목할 만한데, 2004년 지금은 청년 예배에만(4부-주일 오후 2시) 약 35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다른 주일 예배의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약 400여명 이상이 매 주일 예배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고취하면서, 선교의 꿈을 심어주고 있다. 신림동 지역은 독특하게 고시생들이 많은 지역인데, 신림교회에 등록하여 말씀에 통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고시에 합격한 청년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1997년부터 전교인을 대상으로 선교 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 2회 선교축제 기간인 1998년에는 V국 53개의 미전도 종족중의 하나인 C족을 교회에서 입양하였고(주관: 미전도종족 입양 본부), 지금까지 C족을 가슴에 품고 계속 선교하고 있다. V국을 품으면서, 2003년 1월에 V국 국립 사범대학 내에 한국어 학당과 한국학 도서관 건립을 위한 조인식을 갖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어 학당에서 선발된 우수한 V국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을 접촉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들 중에 성적 우수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맺은 몇 몇의 대학들(전남대, 한남대, 연세대)과 자매결연을 맺어 이들의 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다.

선교의 열매로서 수많은 단기선교사와 팀들이 선교 현지를 다녀왔으며, 가시적인 열매로 2000년 1월에 중국으로 목사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게 되었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2000년 5월부터 교회 내 증보기도 사역단이 발족되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증보로 품고 있다. 목사 선교사 가정의 뒤를 이어, P 선교사를 C국으로 파송하였으며, 이어 V국에 K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기에 이르렀다.

교회의 절대적 장소의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훈련과 선교를 통한 제자 삼는 일에 최우선적 목회가치를 두기에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지양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회로서, 그 역량으로 열방으로 품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다. 아울러 선교 교육관을 증축하여 2000년 12월 31일에 입당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선교사 안식관을 마련하여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성도는 선교”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지금도 선교헌금으로, 선교 증보기도모임으로 교회와 열방을 섬기고 있다.

또한 2002년 1월 전도사 가정이 부임하면서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품는 사역을 시작하였다(일명: 소망을 찾는 이). 이 사역을 통해 서울역의 소외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와 섬김에 기초하여 그들의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선교지에 단기든지 장기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교회는 훈련 받고 나가려고 준비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제 2 절 준비 단계

대부분의 지역 교회는 심방 사역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심방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우선한다. 우리는 심방 중심의 교회를 병원적인 교회라 부른다. 병원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매 순간 교인들을 돌보는 일로 시간과 온 힘을



쏟아 붓게 된다. 신림교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돌봄의 교회였다.

그러나 우리는 병원적인 교회에서 병영적인 교회로 바꾸고 싶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병원적인 교회 보다는 병영적인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병영적인 교회로 바꾸려는 목회 철학을 세운 우리는 먼저 교회를 진단한 후 제자 훈련을 실시 할 수 있었다.

## 1. 진단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신림교회가 제자 훈련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진단해야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았는지를 진단해야 했다.

신림교회는 이전에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 2장 2절의 제자 훈련이기 보다는 교역자 중심으로 성경공부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성경공부는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훈련이기 보다는 공부의 차원이기 때문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증거 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먼저 교역자들이 제자 철학을 세워 나갔다. 칼 바르트(Karl Barth)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8)고 하신 예수님의 대 사명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 자신을 그대로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sup>142)</sup> 고 한 것처럼 먼저 교역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헌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자발적임 참여를 유도했다. 엘튼 트루블러드(Elton Trueblood)의 비유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음악가와 지휘자를 고용하고 연주를 즐기기 위해 의자 깊숙이 앉아 있는 오케스트라 후원회 회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다. 각 사람이 연주할 몫을 가지고 있고, 교역자는 전 오케스트라가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운 찬양의 교향곡을 바칠 때, 각 사람이 적절하게 맞아들어 가도록 돕는 지휘자<sup>143)</sup>임을 강조해 나갔다.

142)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50.

143) Leighton Ford, *The Christian Persuade* (New York: Harper and Row, 1966), 48-50.

또한 제자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자의 재생산은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장이나 휴가를 이용하여 선교지에 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음을 도전했다.

성도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성도들이 답한 다양한 답변들을 정리하면 한 마디로 두려움이었다. 성도들이 갖는 두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다. 둘째, 어떻게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다.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면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셋째,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 할 때 혹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넷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섯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 자신은 위선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다. 여섯째, 자신이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다는 것을 성도가 알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다. 일곱째,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앎을 진단할 수 있었다.

## 2. 분위기 조성

교회의 진단을 마친 후 일대일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였다. 먼저 교역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유하였다. 만일 훈련의 대상이 없어서 계속하기가 어렵다면 단 둘이라도 끈기 있게 해 나가야 함을 나누었다. 이어

---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전도의 은사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전도의 은사는 고립되어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려 한다. 우리가 범한 잘못은 전도자가 모든 전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평신도로서 우리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전도의 은사는 증거 하는 교회 가운데서 사용될 때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

서 성급하게 실행해 옮기고 싶은 마음을 조절하여 나갔다. 성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였다.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병영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우리가 받은 명령은 단순히 믿음을 나누는 것임을 확인시켜 나갔다. 물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두려움을 성령이 없애주실 것이라는 격려와 함께 도전을 해 나갔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것이라 격려했다.

또 하나의 도전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자녀를 재생산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초대 교회에서 찾았다. 초대교회는 양육과 훈련이 교회의 우선순위 1위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훈련은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반드시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종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느 경우이든 종국에는 옮겨 되리라는 게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현상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바로 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요 이를 위하여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였다.

### 3. 교재 선택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하여 도구가 필요하였다. 또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림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도구를 3가지로 선택한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데 천사를 택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셨다. 둘째로

우리는 많은 교재 들 중에서 1:1제자 훈련 성경공부(두란노 서원 출판)를 택하였다. 여러 선교단체들이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귀한 도전을 준 많은 교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네비게이트, CCC 등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하지만 지역 교회 안에서 이 방법이 활용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캠퍼스 선교 단체의 교재는 특정 계층을 위하여 집필 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 교회에서는 지역 교회에 맞는 교재가 필요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는 개교회와 지역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교재이다. 신림교회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가 적합함을 발견하고 선택하였다. 이미 신림교회에서는 1:1 제자 훈련이라는 철학이 세워지기 전에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교재 선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 제 3 절 제자 선택과 방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sup>144)</sup> 우리는 제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먼저 자격을 요구하기 전에 평신도의 무한한 잠재력을 여러 기회를 통하여 격려하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이미 제자 훈련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지만, 병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병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라고 요구에 이해를 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부작용이 예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1. 제자 선택

초대교회는 지나치게 성직자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성직자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복음 증거나 교인들을 성장 시키는 일에 대해서 은사를 받은 성직자가 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으며 평신도들에게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교회였다. 거리

144)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64.

에서 팔라터에서 대화의 주제가 복음이었다. 초대 교회에는 각 개인들의 변화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우리는 평신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제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는데 원리가 있었다. 로버트 콜만은 이 원리에 대해서 매우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서 그는 8개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중에 제 일 원리가 선택이다. 선택하는 원리는 먼저 소수에게 집중하셨다 그리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키려면 소그룹이라는 교육 형식을 빌리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 연구와 실례를 통해 증명된 지 오래다.<sup>145)</sup> 물론 소그룹이라는 것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소그룹의 모임을 발견할 수 있다. 소그룹의 한 모델로 처음 생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들은 다 함께 성전에 자주 모이기도 하였지만 실제적인 성도의 교제와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수의 그룹에서였다(행 2:42, 46).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한 빌딩의 교회가 아니었다. 20-30개의 가정 교회로 구성된 공동체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sup>146)</sup>

신약성경에 나타난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헌신한 사람 소수의 의도적인 모임이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소그룹의 목표이고, 함께 노력하여 제자훈련 사역을 성취하여야 한다.

신림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선택의 원리를 로버트 콜만의 원리를 인용하였다. 그들은 모두 배우기를 자원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당에서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요 레위 족 제사장직에 속해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신림교회 제자 훈련도 교회 안에 직분을 우선으로 배려하지 않았다. 먼저 소수를 택하여 훈련시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한 지도자에게 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1:1 방법을 취하고 있다. 현재 지도자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은 일대일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14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93.

146) Ibid., 194.

## 2. 훈련 방법

제자훈련의 방법을 말할 때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귀납적 성경공부이다. 귀납적 성경공부란, 종래의 일방적 전달 방식인 지식 위주의 연역적 성경공부 방법에서 탈피하여 지도자와 훈련생들이 서로 배운다는 입장에서 쌍방 대화와 인격 교통을 통하여 훈련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지도자가 도와주는 방법을 말한다.

귀납적 성경공부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관찰의 방법이다. 관찰이란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문맥과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시된다. 관찰 방법의 첫째로 용어를 관찰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열쇠의 역할을 한다. 둘째로, 구조를 관찰해야 한다. 성경은 치밀한 설계를 거쳐 지어진 도서관과 같다. 문법적인 구조와 문학적인 구조도 살펴야 한다. 셋째로, 문학 양식을 관찰해야 한다. 문학 약식을 무시한 채 모든 성경을 다 똑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 속에는 비유, 사랑의 시, 풍자, 묵시, 비극과 희극 등등의 서로 다른 많은 문학 양식들이 나타난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각종 문학 양식을 사용하신다. 넷째로, 분위기를 관찰해야 한다.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의 배경과 그 본문이 자아내는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sup>147)</sup>

관찰의 방법에 이어 귀납법적 성경공부의 두 번째 방법은 해석이다. 해석이란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그 구절의 의미와 그 구절에 나타난 원리, 사실, 명령, 약속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 도구들은 연구 성경, 몇 가지 최근 번역판들, 완전한 성구사전, 성서사전이나 성서백과 사전, 주제별 성경사전, 성서 핸드북, 단어 사전, 주석, 성서 지도, 신구약 개관, 기타 관심 있는 책들이다.<sup>148)</sup>

세 번째로 적용이다. 적용이란 그룹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개인의 삶과 그룹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

147) Howard G. Hendricks and William D. Hendricks, *삶을 변화 시키는 성경연구 (Living by the Book)*, 정현 역 (서울: 파이디온 선교회, 1993), 57-61.

148) Richard Warren, *12종류 다이나믹한 성경 연구법 (12 Dynamic Bible Study Methods)*, 이명희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4), 32-39.

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적용하되, 본문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림교회는 귀납법적 성경공부를 성도들에게 훈련하기 위하여 QT 훈련을 도입하였다. 매일 새벽 예배 시에 큐티식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큐티를 하도록 격려했다. 그 결과 현재 큐티 방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큐티 훈련에 대해서는 5장 3절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제 4 절 가르침(훈련)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없는 선교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신림교회 선교는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유희가 아니다. 신림교회의 훈련은 선교지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한다.

평신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이들도 목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목사는 곧 교사이다. 교사는 배워서 가르쳐야 할 사람이다. 신림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면서 모두가 목사와 교사임을 강조하고 만인제사장임을 가르치는 교회이다.

##### 1. 1:1이란 무엇인가?

일대일 훈련이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동반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sup>149)</sup> 우리가 일대일 훈련을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일대일 훈련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대일로 찾아오신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일대일로 대면하신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일대일 훈련을 하는 이유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할 수 있으므로 집중이 잘 된다. 집중이 잘 되면 전달도 확실해 진다.

1:1훈련의 내용은 첫 번째 영역인 '만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소개하

149) 지도자를 양육자라고 표현하고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을 동반자로 표현한다.

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정체성),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사역성), 세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부활), 네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결단) 총 4개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영역은 ‘교제’부분이다. ‘큐티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대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서로간의 교제가 필요하듯이 주님과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이런 교제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른다.”<sup>150)</sup>

세 번째 영역은 ‘성장’부분이다. 구체적인 일대일 양육 성경공부의 내용이 이 부분에 속한다. 총 11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성경을 다루고, 네 번째 만남에서는 기도,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교제, 여섯 번째 만남에서는 전도, 일곱 번째 만남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 여덟 번째 만남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생활, 아홉 번째 만남에서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열 번째 만남에서는 사역을, 그리고 마지막 열한 번째 만남에서는 일대일 양육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일대일 훈련은, 총 16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주에 한과를 같이 나누고 있다. 한 주에 소요되는 시간은 양육자반 인 경우에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요되고 양육자와 동반자의 1:1 만남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 가. 지도자(양육자)

1:1 제자 훈련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 첫째는 지도자 훈련반이다. 둘째는 지도자와 함께 1:1로 훈련받는 그룹이다.

먼저 지도자 반은 목사가 담당한다. 약 12명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진다. 지도자 그룹에 올 수 있는 자격은 이미 다른 지도자에게 1:1 훈련 교재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지도자 그룹의 훈련 방식은 주로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나눔의 형식은 크게 3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지난주에 과제로 내준 성경 암송을 확

150) 두란노 편, *일대일 제자 훈련 성경공부* (서울: 두란노 서원, 1991), 35.



인하는 시간이다. 둘째로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한 일을 나눈다. 셋째로 지도자반이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를 요약해서 발표하고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sup>151)</sup>

지도자 반에 들어온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첫째, 생명의 변화를 기대하라고 가르친다. *교육신학의 실제*를 쓴 로런스 리차즈는 생명 개념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신자를 다른 것과 구별 짓는 것은 생명이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 교육에서 그 중요한 출발점이다. 타락이 죽음을 가져온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왔다. 그 생명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생명은 교회를 다른 것과 구별 짓는 특징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다른 것과 구별 짓는 것은 생명의 관심사, 생명에 관한 전달과 그 양육이다.

둘째, 리더십의 활용이다. 지도자는 사람을 발굴하고 그를 훈련시켜 유능한 선수로 뛰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제자 훈련 지도자는 평신도를 발굴하여 훈련시켜서 봉사하게 한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다. 소그룹 제자 훈련반의 지도자는 성경을 강조하고 또 강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가능하면 학생들이 직접 성경공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창조적인 교사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교사의 임무는 학생들을 자극해서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준다. 이 교사는 학생의 활동이 교사의 활동보다 더욱 중요함을 알고 있다. 학급이 교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전원에게 집중하고 있다. 창조적인 교사는 학습의 안내자로서 봉사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극케 하는 환경 조성에 열중한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다음 두 가지 특징으로 구별된다. 그 방법의 선택을 의미에 주의를 집중케 하도록 하며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 학생들을 포함 시키게 만드는 방법이다.<sup>152)</sup>

151) 1:1 제자 훈련지도자반의 필독독서는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이다.

152) Lawrence O. Richards, *창조적인 성서교수법 (Creative Bible Teaching)*, 권혁봉 역 (서

다시 말해서 제자훈련을 지도하는 교역자는 가르치는 성경 진리의 의미를 찾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훈련생 전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양육자는 동반자와 함께 말씀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근거하여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이 성도의 교제였다(행 2:42). 이 교제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면서 나누기도 하였지만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던 가정 모임에서 더 강력하게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와 같은 교제의 축복을 등한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은혜는 혼자 골방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씀과 삶의 체험을 함께 공유하는 분위기는 제자 반을 시작 하자마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육자 반을 지도하는 교역자는 수련생들이 서로 자신들을 이야기하며 삶을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인내하는 것이다. 성급하게 서둘러다든지 강요하면 분위기는 더 굳어져 버린다. 다른 하나는 지도자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 스스로 종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지도자는 자기가 성육해야 한다.

제자훈련의 열매는 양육자 한 사람이 노력해서 거두는 수확이 아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 말씀과 양육자와 동반자들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과 지도자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질문의 적절한 활용이다. 동반자가 질문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성경 본문의 내용을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대답은 항상 선택된 본문 가운데 들어 있어야 한다.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파악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둘째, 본문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서 해석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이다. 적용은 성경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넷째, 토의를 하는 가운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즉흥적인 질문이다. 대화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일시적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등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다.<sup>153)</sup> 양육자 반에서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 시간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 나. 훈련자 (동반자)

동반자로 참여하는 사람은 목사를 통하여 배출한 양육자와 1:1로 만남의 시간으로 훈련을 받는다. 만남은 일주일에 한번 만나도록 한다. 그러나 한 주에 한번만나는 것으로 영적인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동반자를 위해서 주중에 늘 중보 기도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고 실제로 만났을 때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은 친밀한 감정이 들게 될 것이다.

만남의 장소는 주로 양육자의 가정이나 동반자의 가정에서 하고 있다. 가정은 집중 할 수 있고 편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소 선택의 우선권은 동반자에게 둔다. 차 한 잔을 여유 있게 마실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다. 양육자는 지식의 전달을 위하여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자의 속사람이 변화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지침을 제안한다면 집중을 위하여 전화 코드를 빼 놓는다. 주일 설교를 받아 적는다. 그 이유는 한 주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자신의 삶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1:1 훈련 시간 중에는 훈련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다. 격식 없는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만날 장소의 주변 정리를 하라.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벨 소리가 나면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반갑게 맞이하라.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을 시작하라.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하나 조금씩 자라기를 바라라. 서로의 연약함, 단점, 실패 등의 모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 등이다.<sup>154)</sup>

15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230-233.

154) 두란노 편,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 지침서* (서울: 두란노, 1996), 3-7.

## 2. 간증 훈련

신앙생활은 간증의 연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문하는 구원의 간증, 구원 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한 체험적인 간증들이 있다. 일대일을 마친 사람은 간증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10매로 한다.

간증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훈련한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받아 들였으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간증하는 것이다. 간증문의 세 단락의 성경의 근거는 사도 바울의 서술에 근거한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6: 4-5, 9-11에 잘 나타난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 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 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 에 해당하는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2-18절이다. “그 일로 대 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 하느냐 가시 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 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세 번째 영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6장 19-23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 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요약해 보면 바울은 여기서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에게 매우 분명하고 힘 있는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있다. 그가 모범을 보여주는 이 간증에서 우리는 간증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은 어떠했는가? 둘째,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셋째,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간증문을 작성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대일 성경공부에 대한 주제를 핵심으로 한다. 신앙생활의 시작과 교회 생활을 너무나 막연하게 늘어놓지 않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양육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 변화를 기대한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작성한다.<sup>155)</sup>

신림교회는 일대일 제자 훈련을 마치거나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위와 같은 형식에 근거하여 간증문을 제출한다.

### 3. 큐티 훈련

큐티란 그룹 성경 공부가 아니다 그렇다고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니다. 큐티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차분한 시간이며, 하나님과 당신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다. 큐티의 목적은, 우리가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신비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큐티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한 시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바라시고 이 교제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큐티를 하는 주요한 이유는 먼저 영적 성장과 자양분 공급을 위해서이다. 음식과 적절한 영양은 육체의 건강한 성장을 필수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할 때 영적 성장과 건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55) 두란노 편,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 지침서*, 187.

성경은 큐티를 하는 사람을 보여 준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11절은 하나님과의 큐티에 대한 효과적인 모델이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림교회는 큐티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첫째, 일정한 장소에서 하라. 우리에게 주의를 산만하지 않고 주님과 둘만 있기 위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다. 만일 당신의 집이 조용하지 않다면 아마 바깥 어딘가가 더 좋을 것이다. 조용한 거리에 주차한 차 안이나, 이른 아침 집 근처를 걸으면서 또는 아침에 혼자 조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 둘째, 일정한 시간에 하라.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주님의 습관이셨다(참조. 막 1:35)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때인데, 앞에 놓인 바쁜 날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주님과 만나기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날 밤 그분과 약속 시간을 정하라. 아침에 하나님과 단 십분이라도 교제하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셋째, 일정한 내용을 묵상하라. 큐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다.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로 당신의 마음과 영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런 다음 기도로 하나님과 이야기 하라. 넷째,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하라. 성경, 경건 서적, 공책을 준비하라. 성경은 당신의 음식이다. 새로운 생각과 기도 제목을 기록하기 위한 공책을 사용하고, 당신이 받은 기도 응답들을 기록하라.

신림교회는 큐티를 할 때 반드시 개인의 영성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하지 않는다. 진정한 큐티는 세계를 품는 큐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생각 할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는 지역만을 품고 중보해서도 안된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미전종족을 위한 중보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 제 5 절 재생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자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며 그들 스스로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빌 하이벨즈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드신 세 가지 비유 곧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비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점에 주목했다. 각 비유는 모두 첫째,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 버렸고 둘째,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찾으려고 하였고 셋째, 찾고 나서 크게 기뻐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sup>156)</sup>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으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흔히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는 지역 교회는 친밀한 나눔, 필요에 따른 모임 등을 제공 할 수 없다. 특히 도시교회는 더 더욱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교회의 재생산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초대 교회 2세기 동안은 소그룹이 교회 삶의 기본 단위였다. 그 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던 시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집에서나 거의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것을 다시 재발견 할 필요가 있다. 교회 성정의 척도는 교인수로 측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로 재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성장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인 번성을 원하신다. 사람들이 결혼하면 재생산을 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재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재생산을 할 수 없듯이 영적인 병에 걸리면 재생산을 할 수 없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재생산을 할 수 없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태어난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은 재생산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의 생명이 제자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생활로 재생산 되는 것이었다. 주님이 지도한 사람들의 집단이 작다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만약 그들이 적절히 훈련 받았다면 그들은 자기들을 닮게 될 생명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sup>157)</sup>

신림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성도들이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은 본 장 1절 진단 부분에서 이미 밝혔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할 수 있음을 기대했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성도들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솜씨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헌신하는 것이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156) Bill Hybels, *Honest to God? Becoming an Authentic Christian* (Grand Rapids: Zondervan, 1990), 125.

157)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175.

먼저 재생산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교회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저 바라만 보아서도 안 된다. 최고의 사역은 늘 소수와 이루어 졌다. 그저 행사를 계속해 나가려면 회중과 일생을 보내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려는 한 두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낫다는 골문의 원리를 주지시켰다.<sup>158)</sup>

신림교회는 제자의 재생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1단계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 신림교회 일대일 위원회 위원들은 무작정 1:1로 훈련자와 지도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위원회는 심사숙고한다. 교통의 조건으로는 시간을 서로 공통적으로 할애 할 수 있는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 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한다.

둘째, 2단계로 기도하라. 예수님은 잠재적인 몇몇 지도자들을 좀더 개인적으로 개발시키기 원했던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로 밤을 새웠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러 보내시기 위해'(막 3:14) 열두 명을 택하셨다. 신림교회 일대일 위원회는 일꾼을 훈련시키고 제대로 된 제자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연결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

셋째, 3단계로 전화하라. 1:1 관계가 이루어지면 먼저 일대일 위원회에서 동반자에게 전화를 한다. 전화의 내용은 신약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일꾼으로 준비된다는 기대와 소망을 준다. 만일 동반자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경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다. 1:1 위원회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 이상한 영혼을 훈련시킬 지도자도 동반자에게 전화를 하고 먼저 교제를 나누도록 한다.

넷째, 4단계로 제자 삼는 과정을 시작하라. 제자 삼는 과정은 개인적인 필요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암송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훈련 받는 성도에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아야 한다. 주 중에 각자가 묵상한 큐티나 주 중에 얻은 하나님의 교훈을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158) Ibid., 25.



전 주에 부과한 과제물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신림교회의 제자 훈련의 과제물은 영적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오는 것과 전 주 선포한 목사의 설교 내용을 요약하거나 기억하고 와야 한다. 훈련 받는 자가 초신자일 경우에 가르치는 지도자는 성경을 같이 찾는 배려도 있어야 한다.

## 제 6 절 결어

신림교회는 제자 훈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자 훈련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자 훈련의 결과 성도들 모두가 사역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평신도 사역자의 중요성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림교회의 성장은 자연적 성장도 있지만 제자 훈련이 가져다 준 결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자 훈련의 결과 지금까지 목회자 한 사람에 의존하여 왔던 교회가 자발적인 참여와 목회자의 가증한 사역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목회자 중심의 심방 목회는 훈련 목회로 전환함에 따라 평신도 리더들이 성도들을 돌보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였다.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문제나 공동체 문제가 해결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교회 성장의 절대라고 볼 수는 없다. 제자 훈련이 교회에 필요로 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면 제자 훈련이 교회 성장의 절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자 훈련이 교회에 필요로 했던 이유는 교회의 전통 주의에서 오는 반작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주의에 사로잡힌 교회에 제자 훈련은 계급화 된 목회자 중심 목회를 평신도 중심의 목회로 전환하는 신선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성경적인 프로그램이 신분을 나누는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더라, 나는 그 교회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과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의식을 심어준다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신분 계층을 만들 뿐이다.

신림교회도 제자 훈련이 사역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신분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사용 될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예를 들어 신림교회는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마

쳐야 향촌직 피선거권을 허락한다든지, 교회의 리더십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동기는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내규를 오해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보다는 향촌직이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새로운 사역이나 조직은 좋은 일을 하고 생동력을 불어 넣겠다고 출발하지만 그 사역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신분으로 자리 매김을 하면 애초의 목적의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신림교회는 제자 훈련이 신분주의로 가려는 제자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탈피하면서 앞으로 21세기의 성장하는 교회로 변화할 것이다.

## 제 6 장

### 신림교회 선교의 실제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정확한 답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기에 놓여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주의 주님이라는 것을 열방에 선포하여야 한다. 교회는 열방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라고 고백하고 이 신앙고백에 의거해 살아가는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죽는다. 교회가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존속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교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다.

신림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과 선교 동원을 위하여 먼저 제자 훈련을 하였다. 왜 선교를 위하여 제자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선교 없는 제자 훈련은 영적인 비계살만 키울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림교회에 선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던 선교는 단순히 선교지에 나가있는 선교사를 돕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훈련 받아서 언제든지 선교적 삶을 산다는 인식은 없었다. 1995년 첫 주일에 신림교회에 부임한 우리는 부임 설교부터 우리가 선교사임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 제 1 절 선교를 위한 준비

선교가 없는 지역 교회의 제자 훈련은 성도의 교제로만 흐를 염려가 있다. 지나친 교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임으로 전락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시고 땅 끝의 교제를 원하셨다. 성도간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야만 한다.

비서트 후프트(W. A. Vissert Hooft)는 선교적 증언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현실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기정사실임을 믿는다면 교회는 선교적 행위를 통해 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둘째, 교회가 복음의 보편적 주장들을 믿는다면 선교적 행위를 통해 이를 선포해야 한다. 셋째, 선교적 행위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하나의 문화, 특히 서방 문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sup>159)</sup>

지역 교회는 세계 선교의 모판이 되어야 한다.<sup>160)</sup> 하나님은 위대한 지상 위임 명령을 지역 교회에게 주셨다. 지역 교회는 세계 선교의 모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교회가 선교 비전을 가지지 못할 때 교회는 세속화 될 수밖에 없다. 선교의 비전이 없는 교회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선교는 지상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신림교회는 1974년에 설립된 교회이다. 신림동의 지역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이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선교사라는 인식은 부족한 상태였다. 그 동안 신림교회 선교는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교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신림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교회 체질이 바뀌어 지기 전까지는 회중 지향적인 교회였다.

그러나 1995년 부임 이후부터 계속 된 제자 훈련과 선교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성도들은 선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선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1996년 이후부터 신림교회는 본격적으로 '회중지향적인 교회'에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 졌다. 1996년부터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를 신설하여 선교사업으로 먼저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7년 선교축제

159) Wilbert R. Shenk,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한 선교적 교회," *목회와 신학*, 2003년 9월 호, 111.

160) Patrick Johnstone,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니다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이광규, 유병국 역 (서울: WEC 출판부, 2000), 275.

를 열어 전 교인을 선교에 동참시켜 선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1998년 선교축제에서 V 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C 족을 입양하였다. 1999년 이후에는 선교위원회 조직을 더욱 세분화하여 기존의 선교 위원회 산하에 선교국을 두었고 선교국은 다시 선교사 지원 훈련부, 선교 증보 기도부, 개척 선교부, 그리고 선교기관 지원부로 나뉘어져 선교에 헌신된 성도들이 위원으로 각 부서를 섬기고 있다.

## 1. 준비단계

마태복음 28장 18-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4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23절은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지역 교회는 제자 훈련과 선교보다는 건축위원회, 성가대 연습, 교육 위원회, 여전도회 월례회, 각종 위원회 등으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 들이 있지만 정작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는 곧 지역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신림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하였다. 선교는 선교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선교의 당위성을 설교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선교 사역의 모델이 되는 바로 그 선교사이다. 선교는 열 한 사도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명령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데이비드 보쉬는 선교 신학에 관한 그의 탁월한 책, *변화시키는 선교 (Transforming Mission)*에서 애거드의 말을 인용한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의 움직임으로 간주 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이다. 선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sup>161)</sup>

우리는 매 주일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선교는 어느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명령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선교 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림 9동이라는 지역에 지역교회로 서 있는 신림교회는 선교 할 수밖에 없는 교회임을 깨닫게 되었다.

신림교회는 세계를 품은 교회이다. 전국을 품은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품은 교회이다. 이 말은 결코 분수를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다.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실재가 그렇다. 왜 그런가? 신림9동의 지역을 연구 해보면 신림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림교회는 한국의 유학생 교회이다. 전국 각도에서 올라온 수험생들이 있는 곳이다. 이들에게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하숙촌들이 있는 곳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신림9동은 앞으로 국내 외 공무원이 배출되고 유학을 꿈꾸고 졸업한 후에 유학길에 오를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신림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올라 온 사람들에게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하숙을 운영하는 성도들이 있다. 교회는 바로 이들에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을 받게 하였다. 또한 교회는 이곳에 일정 기간 머물고 신앙생활 하는 청년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함으로서 국내뿐만 열방까지 퍼져 가야 한다는 선교의 소중함에 대해서 도전하였다.

## 2. 담임목사의 선교 철학

선교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담임목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의 임무는 막중하다. 지도자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된다.

목사는 누구든지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목사의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된다. 목회 철학을 교육과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으면 성경공부나 설교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혹은 목회 철학을 성도

161) Patrick Johnstone,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니다*, 39.

들의 필요를 돌보는 심방과 구제를 목적으로 둘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값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우리는 교회 성장을 바란다. 그러나 교회 성장은 목회성공이라는 등식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목회 스타를 제조하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외형적 성장이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한다. 신림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철학은 자기중심적 교회관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철학이다.

우리는 신림교회의 목회 철학으로 제자 훈련과 선교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 목회철학을 제자 훈련과 선교에 둔 이유는 선교는 교회의 목회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제자 훈련도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명령이다.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의 선교 철학은 베풀기가 아닌 나눔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교회들은 선교를 통해 세상에 무언가를 베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는 선교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 베풀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수혜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고, 복종과 존경을 강요하게 된다.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우월감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선교사는 교회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선교지 백성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다.

신림교회 목회 철학의 성경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에 기초한다. 성도로 하여금 제자 훈련을 받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림교회 목회철학이다. 선교는 교회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제자 훈련이 교회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하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서로 공유하였다.

선교는 목사 한 사람이나 선교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 두 기둥의 목회 철학을 실천하고자 우리는 먼저 선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우리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 철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예배 시간 중에 행해지는 대표기도 내용 가운데 반드시 선교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하였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신림교회는 대표기도 때 마다 선교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는 최근에 받은 선교사 기도편지를 인용해서 기도한다.

담임목사는 선교사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직을 시작했다. 선교에 열정적인 지도자를 발굴하려고 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 혼자서 다 돌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집사와 위원장, 교회학교 교사, 부서 사역자들이 세계선교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전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를 위하여 우리는 선교위원회를 조직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으로 선교를 진행시켜 나간다. 선교위원회에 대해서는 선교의 실제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3. 강해 설교

교회는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에 따라 교회 방향이 정해진다. 기도에 대한 설교가 주를 이루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간다. 설교가 이웃 사랑으로 가면 교회는 금혼사역으로 갈 것이다. 한마디로 설교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설교란 사회의 변화와 정치의 관심사들을 정연하게 전개하는 시사 강연이 아니다. 설교란 좀 더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교인들에게 제공하는 도덕적 권면이 아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간증이나 자기선전이 아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하여 강해 설교를 한다. 강해설교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설교의 한 방법이다. 연역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보는 태도를 갖는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하는 설교의 한 방법이다.

강해설교를 하면 성경을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관찰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창세기 12장 3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강해하면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본문 바로 앞 장인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과 언어의 혼돈으로 인한 비극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것으로 인해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이 인류의 지배적인 특징이 되었다. 바로 그 다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다. 죄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에게(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라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갈 3:8).

이상으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구약 성경과 신약성경에 끊임없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인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런 세계관이 너무나 평배하여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과의 사회적 또는 영적인 접촉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하여 이스라엘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믿었다.<sup>162)</sup>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님의 제자로서 선교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수십 세기를 지난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1995년부터 강해설교를 시작하였다. 선교하는 교회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선교의 책임 사도행전을 강해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기를 권면했다.<sup>163)</sup>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신림교회 성도들에게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성도들은 선교가 결코 목사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훈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하나

162) Patrick Johnstone,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니다*, 67.

163)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World Christian)’이라는 용어는 지금 교인이 된 허버트 케인 박사가 사용한 용어이다. 그가 쓴 *The Christian World Mission Today and Tomorrow*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에서 케인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또한 교회는 온 인류를 포함하는 공동체라는 것과 기독교에서는 선교가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교회에 대한 관점을 넓혀가고, 기독교 선교에 대한 이해를 늘려가고자 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외로도 여행을 하고, 자신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며 세계 선교를 위한 개인의 책임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님의 지상 명령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물론 신약에서만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다. 수요일은 구약을 강해해 나갔는데 첫해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특별히 스테반 집사의 순교와 빌립집사의 설교(행 2:29; 3:25; 4:29)부분을 강해하면서 초대 교회 집사들이 선교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현대 우리 교회에서 집사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에게 선교는 마음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특별히 빌립집사나 스테반 집사가 구약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으로 설교를 하고 자세히 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으로 선교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었다.

#### 4. 구역을 통한 선교 훈련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선교한다면 무조건 외국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교를 지리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했던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선교를 동원할 수 있는 교회 조직 가운데 소그룹으로 모인 구역은 최적의 선교 동원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하여 선교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대중 목회와 소그룹 목회를 겸하셨다. 그러나 기본은 소그룹이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전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생긴 가장 심각한 갈등은 백성들 간의 송사문제였고 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모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모세는 그의 노력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고 자신의 우선 업무에 복귀했다(출 18:13-27).

반면에 초대 교회 사도들은 구제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중에게 일곱 사람을 택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고 구제의 일을 전담하게 하였다(행 6:1-6).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목회의 중요한 한 분야임을 발견할 수 있다.<sup>164)</sup>

소그룹은 주님이 친히 하셨던 사역이며 초대 교회의 모습이다. 특히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초대 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건강한 교회였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즉 초월성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모여 교제를 통한 공동체성을 체험했다.<sup>164)</sup> 대그룹에서 받기 어려운 관심과 사랑과 지지를 소그룹에서는 자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은 한 영혼을 변화 시키며 성숙시키는 최적의 장소이다.

그러나 소그룹인 구역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는 모이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때문에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된 지도자이다. 신림교회는 사람을 훈련해서 구역의 지도자로 세운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사역을 위임한다.

그러면 구역의 지도자인 교구장과 구역장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먼저 일대일 제자 훈련이다. 그리고 선교 학교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의 철학인 제자훈련과 선교를 전 교회가 공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단기 선교를 다녀오도록 권유하고 있다.

특별히 신림교회 구역의 특징은 구역의 이름을 세계 열방의 나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구역은 매 금요일에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자신이 품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된다.

부록 1은 세계를 품은 신림교회 구역 이름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모든 위원회도 구역 예배처럼 각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예: 당회는 우즈베키스탄, 소년부: 러시아 등)

## 5. 선교 위원회

교회의 선교사역에서 담임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해도 담임목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교사역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일년에 한번 예산을 결정하는 정도라면 모르지만, 구체적인 선교참여를 통해 활동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활동을 위해서 전임 사역자나 활동적인 선교위원회가 필요하다.

164)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119

165) 정삼지, "소그룹을 통한 교회 성장," *교회 성장*, 2004년 5월호, 35.

신림교회는 선교위원회가 있다. 선교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먼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웠다.

먼저 선교 위원을 모집하는 일이다. 선교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개인의 영성이다. 개인의 영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 위원의 후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한다. 신림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선교 위원의 자격을 부여했다.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교 위원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한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세계복음화에 있음을 인정하며, 세계적인 사건을 세계복음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가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변경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선교위원은 선교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세상의 상황과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나 미전도 종족과 종족 그룹, 도시의 성장, 빈곤, 억압과 박해, 문맹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선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사역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사역의 헌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교회내의 중심적인 교제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활발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귀는 사람이어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을 느끼며, 생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활동적으로 증거 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생산 하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창의적이며, 협동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림교회는 위와 같은 조건을 겸비한 성도들을 선교 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 제 2 절 선교 실제

신림교회는 선교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교를 실천하게 된다. 먼저 선교 동원을 위하여 선교 학교와 선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사임을 실감하게 하였다. 그리고 실제 선교현장을 가는 일을 실천하였다. 선교 현장은 크게 단기

로 하는 선교 정탐과 장기사역자로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말한다.

본 절에서는 선교 동원과 선교 증보기도 모임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이어서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말하기로 하겠다.

### 1. 선교 동원 및 선교 증보기도 모임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선교한다면 무조건 외국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교를 지리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했던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 선교동원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위대한 선교 운동이 일어 날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동원 운동은 모두 영적부흥과 각성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의 결과이다. 우리는 기도 할 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선포하기 위한 비전을 본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선교의 준비가 아니라 선교 그 자체이다. 기도는 세계 복음화라는 영적전쟁에 가장 전략적인 무기이다. 기도는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중요한 공격 전략 방법이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성경의 근거는 사도행전 12장 5절, 13장 1-3절, 16장 13절, 16절, 25절, 20장 36절 등에서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최초의 선교 팀을 선교지로 파송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

*Who Cares About Mission?* 에서 스티븐 고크로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선교가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선교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로 그 지역과 종족에게 영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은가. 기도로 그 지역에 들어가는 데는 여권도, 비자도, 취업 허가서도 필요하지 않다. 기도 앞에는 닫혀진 나라가 전혀 없다. 선교 역사의 많은 부분은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sup>166)</sup>

또한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속의 영적 각성과 부흥, 그리고 복음 전파로 나아감은 늘 기도하는 모임에서 일어났다.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18세기 모라비안 교도들도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부흥이 100년 동안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역사를 낳았다. 1806년의 건초더미 기도회의 소수의 젊은이들을 시작으로 복미에 10만의 선교 헌신자를 재생산하였다. 기도는 모든 사역 활동의 핵심에 위치하므로 세계를 품는 선교 사역은 세계를 품는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신림교회도 1997년 12월4일 정식으로 선교를 위한 선교 증보기도를 시작하였다. 처음 선교를 위하여 모인 인원은 17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약 200여명이 모여서 선교를 위한 증보를 하고 있다.

선교 증보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인 삶을 위하여 기도한다. 타 문화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물질적인 필요와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편지를 같이 읽고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신림교회는 자발적인 선교 기도모임이 있다. 자발적 기도 모임의 장점은 간절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선교위원회 중심의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 자발적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 2. 선교 학교

선교의 열기가 높은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선교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청하는 사람을 무조건 선교사로 보낼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처럼 신앙 공동체가 검증한 인물을 선별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교회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계 선교의 일군을 길러내기 위한 적절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그중에 하나가 선교 교육이다. 교육이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위한 투자이다. 투자는 인내를 요구한다. 만일 우리가 선교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선교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오해란 선교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이

166) George Verwer, *안전지대는 없다 (Out of the Comfort Zone)*, 김수용 역 (서울: 죠이 선교회 출판부, 2001), 97.

다. 선교 학교는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선교 학교는 훌륭한 선교사를 양성함과 동시에 선교에 도전을 주는 필수 사역이다.

우리는 선교 학교를 위하여 기도와 자료 수집으로 선교학교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99년부터 지금까지 선교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선교 학교에 참여하는 대상은 단기선교를 지망하는 성도들, 향촌 직분자,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다수의 외부 교회 성도들이다. 진행되는 시간은 총 8주에서 10주 동안 이루어진다.

선교 학교를 통하여 우리는 선교라는 말의 뜻을 이해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선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지 알려 주려고 한다. 동시에 교회가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지를 알려 준다. 선교 단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선교 학교 기간 동안 우리는 선교사들의 현장이야기를 나눈다. 선교사들에 대한 삶과 사역을 나눌 때 우리는 선교사들이 결코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 3. 선교 축제

신림교회는 매년 1회 선교 축제를 행하고 있다. 선교축제를 하는 목적은 선교 동원, 가시적인 선교 교육, 도전과 격려를 위함이다. 선교 축제 기간을 통하여 도모하고자 하는 또 하나는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후원하기 위함이고 그 후원을 증가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선교 축제 기간 동안 국제적인 선교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이유는 선교 헌신자들이 선교 단체를 통하여 밀도 있는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국제적인 선교사들과 동역 할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함이다.

또한 선교 축제 기간동안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들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미래에 선교사로 헌신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다. 이어서 현장에 나가있는 사역자들의 선교 보고를 영상을 통하여 같이 공유하고 있다.

신림교회는 분기별로 V국을 위한 선교의 날을 정해 V국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고 있다. 이 날은 사전에 선교를 위한 동전 저금통을 분배 한 후 V국 선교의 날에 저금통을 교회로 가져오는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조성된 헌금은 V국에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

#### 4. 선교 여행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단기선교의 붐이 일고 있다. 일명 vision trip 혹은 mission trip이라 한다. 선교 여행은 선교지를 단기간 탐방하고 상황을 돌아보며 타문화권 생활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이다. 선교 여행의 유익은 교회 내에 선교 열기를 고조시키는 장점이 있다.

신림교회는 선교 개념이 정립되기 전인 1995년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경험했다. 그 여행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강하게 다가 왔다고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단기선교 여행은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도전을 주는 유익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선교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다. 그 결과 교회는 마침내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 할 수 있게 된다.

신림교회는 지금까지 매년 겨울과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각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오는 선교 여행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지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이다. 이들에게 성경공부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목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경을 지도하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제자 훈련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 5. 사역 내용 및 선교사 파송

##### 가. 미전도 종족 입양

세계 선교의 흐름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눌 때 제 1기(1792-1910)는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해안가 선교에 치중하였다. 제 2기(1865-1980)는 허드슨 테일러를 기점으로 내지 선교에 주력하였다. 제 3기(1935-현재)는 타운 젠티와 맥가브란에 의해 시작된



종족 선교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인구 중 복음전파에 동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약 10퍼센트 정도이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나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로마 가톨릭 그리고 유사 기독교인들이 포함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20퍼센트이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30퍼센트이며 나머지 40퍼센트는 미전도 종족이다. 이들은 숨겨진 사람들로서 약 11,000개의 미전도 종족<sup>167)</sup> 집단이 이 그룹에 속해있다.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sup>168)</sup>은 세계에 남아 있는 11,000종족을 선교적인 지역 교회로 하여금 양자 삼게 하는 것이다. 한 종족을 입양 한다는 것은 교회, 학생단체, 개인이 하나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복음이 들어간 후에도 현지인에 의해 현지교회가 자생 능력이 있을 만큼 성장 할 때까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끊임없는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 인적 파송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신림교회는 미전도 종족 입양 본부로부터 1998년 11월 11일 V국에 있는 소수 부족 가운데 하나인 C족을 입양하였다. 단기 선교 정탐을 통하여 V에 있는 C족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V국에서 이들과 접촉하기란 쉽지 않았다. 3년여를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촉을 시도한 결과 이미 그 종족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전에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미전도 종족 입양 본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신림교회가 C족을 품고 기도하면서부터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들을 만나보고 향후 선교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그 결과 현재 C 종족 중에 헌신자 한 사람을 V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 수업을 마치면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 질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167) 미전도 종족이란 1982년 3월 시카고에서 열린 미전도 종족 회의에서 내려진 정의는 '언어, 종교, 인종, 주거, 직업, 계급이나 계층, 처지 등이나 혹은 이것들이 결합된 것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들 스스로가 상호간에 공동의 유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들의 상당히 큰 집단'이다.

168) 1980년대에 랄프 윈터를 중심으로 USCWM(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오다가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회(Adopt A People Clearing House)가 조직되었다. 한국에는 1991년 소개되어 관심을 갖다가 1993년 2월에 한국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본부를 결성하였다.

## 나. 선교사 파송

우리는 V국 국립대학교 내에 한국어 학당을 설립하여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재정 지원과 함께 함께 6개월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지금은 한 가정의 장기 사역자로 나가 있다. 여기에서는 2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유능한 학생을 발굴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배려한다. 현재 한국에 있는 우수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유학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

신림교회는 사역자를 선교지로 보내는데 원칙이 있다. 첫째 목사 선교사만 고집하지 않는다. 제자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둘째 Family Mission을 지향한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위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사가 같이 하는 선교를 추구한다. 이런 원칙으로 인하여 신림교회는 사역자를 외부에서 청빙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신림교회 내에서 신앙 생활하던 공동체의 지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송한 선교사는 선교 위원회가 관리한다. 그러나 선교 위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key man을 두고 선교사 편지 접수와 전화 연락,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주면서 선교사를 돌보고 있다.

## 제 3 절 결어

오늘날의 교회에는 선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만연해 있다.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는 재정의 되고 희석되어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의미로 다가온다.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파송이라는 면이 완전히 무시된 채 선교를 사회적 악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사역을 의미한다.<sup>169)</sup> 이렇게 된 이유는 복음의 절대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복음의 절대성보다는 모든 종교는 소중하고 나름대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복음의 상대성이 선교를 약화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흐름

169) Johnstone,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니다*, 57.

에 지역 교회는 분명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선교를 위한 발사대이다”라는 말은 WEC 국제 선교회의 국제 연구 소장이었던 레슬리 브리얼리의 슬로건은 의미심장한 말이다.<sup>170)</sup>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사람의 선교사도 파송하지 않았고 선교지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세계 선교를 위한 증보기도에 효과적으로 동참하지도 않는다.

다음 도표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이다.<sup>171)</sup>

<표 8> 각 나라 교회의 선교사 파송 통계<sup>172)</sup>

국가	교회 수	선교사 수	비율(교회 대비 선교사)
싱가포르	393	567	1.44
노르웨이	2,341	1,654	0.71
핀란드	1,965	1,317	0.67
뉴질랜드	3,730	1,701	0.46
스웨덴	8,332	1,749	0.21
미국	383,328	59,074	0.15
영국	46,262	7,012	0.15
독일	23,487	3,510	0.15
인도	97,796	11,284	0.12
일본	6,581	407	0.06
한국	37,985	2,237	0.06
브라질	148,976	2,755	0.02
합계	761,176	93,267	0.12

<표 8>을 살펴보면 선교사를 보내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는 교회 숫자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매우 소수의 교회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 조직이나 전략을 갖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선

170) Patrick Johnstone,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 260.

171) Ibid., 261.

172) Ibid.

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하는 교회들이다. 후원하는 교회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선교라기보다는 선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선교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신림교회는 돈이나 양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도와 선교사 간에 개인적 유대 관계가 없는 후원 선교를 지양한다. 대신 신림교회는 파송 선교를 원칙으로 하고 파송선교를 지향한다. 파송 선교는 곧 Family Mission을 의미한다. 신림 교회 내에서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부름을 받아 헌신하는 한 식구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노력한다.

현재 신림교회 안에는 무한한 선교 자원들이 많이 있다. 선교 위원회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돌보고 있다. 신림교회 내의 대부분은 선교사후보자들은 전문인<sup>173)</sup> 선교를 소망하고 있다.

진정한 교회 성장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신림교회는 남겨진 과업을 완수해 나가는 교회로 성장 할 것이다.

---

173) 의사나 운동선수, 엔지니어, 공학, 농학, 국제기구들의 직업인으로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신분상으로만 전문인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 제 7 장

## 제자훈련과 선교를 통한 교회부흥 방안 제시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제자 훈련과 선교는 교회 성장의 하나로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또한 제자 훈련과 선교는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긴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10년 동안 신림교회에서 이루어진 제자 훈련과 선교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 제 1 절 제자훈련과 선교를 통한 목회 평가

신림교회는 제자 훈련과 선교라는 두 기둥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갔다. 물론 우리는 10년의 과정에 만족하지 않는다. 10년 동안의 제자 훈련과 선교가 성공적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으며, 10년의 사역을 소중히 여겨 더 나은 곳으로 가는 목회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도 신림교회는 제자 훈련과 선교를 교회의 근본적인 목회철학으로 둘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과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런 고백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항상 반복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고만 해석하지 않는다. 본문에는 명령만 있지 않다. 여기에는 격려도 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자. 19절과 20절 상반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명히 명령이다. 그러나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격려이다. 다시 말

하면 제자 훈련과 선교는 부담만이 아니라 기쁨이다.

다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제자 훈련이 교회 내에서 또 하나의 계급을 조성 할 수 있는 염려이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교회 내의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 시켜왔다 고 생각한다. 제자로 훈련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되어서 교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제자 훈련이 교회를 안정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자 훈련이 선교로 연결 되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려 한다. 그 부작용은 다름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은 그룹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내의 계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와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성도의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을 수 있다. 신분과 계급을 무너뜨린 복음으로 교회 내에서 계급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제자 훈련을 지속해 왔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교회 내 엘리트 계층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면 선교는 중단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한 성도들을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 여러 기관에서 활동 하면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만이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는 제자 훈련이 되기를 바란다. 즉, 훈련된 평신도를 많이 확보하여 21세기의 특징인 다변화의 물결 속에서 평신도들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변화를 주도할 수 있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해외 선교에 평신도들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공산권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전문적인 선교사를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훈련은 필수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신림교회는 귀납적 성경 공부와 강해 설교, 큐티, 일대일 제자훈련을 통하여 성경을 깊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게 되고 다른 지체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배우게 되고, 목회자의 목회철학을 공유하게 되고 목회자와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어 목사의 목회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제자 훈련과 선교는 더 이상 평신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할 것이요, 동시에 참여한 성도들은 기쁨을 얻을 수 있었

다.

우리는 제자 훈련과 선교를 통하여 진정한 교회 성장을 볼 수 있었다. 교회 성장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제자 훈련과 선교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 성장론자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매우 좋은 주장이다. 그러나 교회 성장론자들은 양적인 교회 성장을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 양적인 교회성장은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제자 훈련을 도입하는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 대형교회로 성장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이다. 제자훈련 사역은 아주 좋은 사역이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지만 제자 훈련이 선교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제자 훈련도 교회 내 체증 현상을 불러 올 뿐이다. 이렇게 될 때 제자 훈련은 마구 먹어만 대어서 비만증에 걸려서 힘이 없어진 한국 교회 현실에서 복음의 능력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 제 2 절 발전 방향 제시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건강한 교회 성장에 대한 대안을 말하고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교회 성장을 가져오기를 원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하여 선교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택하였다. 왜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하여 제자 훈련을 하고 선교를 하였을까?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 성공이라는 생각이 교회 지도자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성공하는 교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성공하는 교회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성공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산술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성경지식을 많이 소유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

다. 왜냐하면 질적인 성장의 기준이 아직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참된 교회 성장이란 제자 훈련을 통한 선교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한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많으나 여전히 한국 교회는 힘이 없는 이유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증인으로의 삶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을 마친 성도는 또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지도자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성도들을 위하여 한 계단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목회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모든 이유는 제자 훈련이라는 input이 있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output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림교회는 먼저 output의 사역으로 선교에 두었다. 하지만 신림교회는 선교에만 고집하지 않는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서울역 노숙자를 위한 금홍사역을 또 하나의 output사역으로 진행중이다.<sup>174)</sup> 또한 청년들이 안산에 한 부모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 외국인 노동자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섬기고 있다.

---

174) 신림교회는 주일 예배를 신림교회에서만 드리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각 부서들이 서울역 노숙자를 위한 사역에 참여 하고 있다. 성가대도 주일에 교회를 비우고 서울역 노숙자를 위한 사역에 나가서 섬기고 있다.



## 제 8 장

## 결 론

한국 교회는 과거에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성장의 정체를 맞이하여 급기야 감소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다.

우리는 1장에서 성장을 멈춘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도입하였는데 과연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자 훈련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성경을 살펴본 결과 제자 훈련은 곧 선교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진정한 교회 성장은 제자 후견과 선교가 긴밀한 상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자 훈련은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이다. 또 하나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교회는 선교해야 한다. 그러나 제자 훈련과 선교가 서로 다른 사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교회는 제자 훈련과 선교를 동시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제자 훈련은 선교를 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다는 명제와 함께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명제를 서로 분리 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때 건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2장에서 우선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제자 훈련을 말하였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다.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이어 받았다. 교회 성장학자들도 제자 훈련을 교회 성장의 중요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교회 성장학자인 도날드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는 자신들의 교회 성장 이론 중에서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한국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과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제자 훈련은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전함으로써 교회에 활력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잘못 사용한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교회 제자 훈련은 교회를 유기체적인 조직임을 망각하고 무조건 몸 자체를 크게 만드는데 제자 훈련을 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유기체인 교회는 몸이 커진 것이 아니라 비대한 몸이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제자 훈련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 훈련은 선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3장에서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선교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 불수록 성경은 선교를 말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요약한다면 성경은 결국 선교의 책이다. 이어서 우리는 선교가 신학적으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신학적으로 선교를 살펴본 결과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선교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로 선교의 주체는 교회라는 주장이다. 둘째로 선교는 선교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와 선교 단체를 인정하면서 제 3의 주체로 평신도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평신도가 선교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제자 훈련은 필수적인 훈련이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없이 하는 선교는 성과 주의적 선교에 집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 역사를 살펴볼 때 성과 위주적인 선교의 피해가 어떤 것인 지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유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제자 훈련으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3장에서 성과위주의 선교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4장에서 신림교회의 제자 훈련과 선교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먼저 지역 교회이기에 신림 교회가 위치한 지역 연구를 한 결과 신림교회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림교회가 위치한 신림9동은 유동인구가 50퍼센트에 달하는 곳이다. 유동인구의 대부분은 대학생들과 고시준비생들이다. 소망과 우울감과 패배감이 교차되면서 전국 각지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신림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로 삼고 제자 훈련을 하였다.

신림교회는 두 기둥의 목회 철학이 있다. 첫 번째 기둥은 제자 훈련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선교이다. 그리고 신림 교회의 교회론은 훈련하는 교회, 평신도 중심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정하였다. 신림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input과 선교라는 output을 목회의 두 기둥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은혜인 input만 있는 교회는 비만증에 시달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output이 있어야 한다.

제 5장에서는 신림교회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제자 훈련의 실재를 말하였다.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였다. 준비의 첫 단계로 성경적인 교회는 단순히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 훈련 받는 병영의 개념을 심어 주었다. 이어서 제자 훈련을 하도록 격려하여 나갔다. 그러나 성도들은 반응이 다양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선택하여 훈련을 시작하였다. 제자 선택은 배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묶는 형식을 갖추었다. 귀납법적 성경공부를 통하여 QT하는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 1:1 제자 훈련 교재를 통하여 지도자 훈련을 마친 성도는 재생산을 위하여 동반자가 같이 삶을 나누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평신도 지도층들이 형성되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자 훈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 또 다른 신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막고자 제자 훈련은 선교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은 당연히 선교를 행하여야 하기에 6장에서는 선교의 실재에 대하여 말하였다. 지역교회는 선교의 모판이어야 한다. 교회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못할 때 교회는 세속화 될 수밖에 없다. 신림교회는 1996년부터 '회중 지향적인 교회'에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바꾸어 나갔다. 먼저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음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 대형 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하면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동시에 신림교회는 수많은 유동적인 성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하여 선교하는 교회임을 강조하였다.

선교 동원을 위하여 신림교회는 교회의 모든 조직을 각 나라 이름으로 정하고 기도한다. 선교 위원회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교학교와 선교 축제를 통하여 선교를 동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림교회는 V국 내에 C족을 입

양하였고 V국 국립 대학 내에 한국어 학당을 세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신림교회의 선교는 Family Mission을 지향한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 후보생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서 찾고, 훈련하여 선교지로 파송한다. 결과적으로 제자 훈련과 선교는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선교사를 한 식구로서 인식하고 선교사를 위하여 증보하고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다. 재생산을 하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제자 훈련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 아직도 남아 있다. 선교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들이 미약하나마 있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갖는 이기적인 세계관이라 해석된다. 또한 유동적인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신림교회 안에서 시행해 온 제자 훈련과 선교를 연구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문화된 평신도의 제자 훈련과 선교 훈련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1:1교재를 통하여 제자 훈련 사역을 진행하여 왔으나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성도들에게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쯤을 전공으로 공부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통하여 일대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도록 훈련하는 일이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싶다.

연구를 하면서 또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다면 선교의 패러다임을 언급하고 싶었다. 현재까지 선교는 능력 선교의 패러다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선교 패러다임은 진리의 원형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선교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진리가 영혼들을 자유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역 교회가 실천 할 수 있는 선교의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진정한 교회 성장은 교인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과 선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 되어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 부록 1

## 구역 예배 현황

2004. .

1 대교구 필요한 목사						2 대교구 박승호 목사					
교구	구역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금	교구	구역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금
이동자 권사	베트남	이정화				이재선 권사	트리니티드 토비고	김현숙a			
	앙보디아	최석자					자메이카	윤지숙			
	북한	이상순				주정자 권사	뉴질랜드	전순균			
	에르카스틴	황미화					호주	진복순			
강국자 권사	중국	조정희					사모아	김영자b			
	이스라엘	성기애				3 대교구 최정희 목사	뉴칼레도니아	김경례			
	일본	임정자					독일	이인숙			
	카타르	김성구				김덕순a 권사	러시아	김순복a			
강숙자 권사	네팔	김순희					세르비아	김현주			
	대만	문주원					알바니아	최신자			
	라오스	차영순				박요선 권사	스웨덴	민동희			
	몰디브	김금주					보스니아	차정미			
이영숙 권사	방글라데시	박정숙					미케도니아	이오순			
	시우디	서옥희					네덜란드	이승자			
	이라비이	신영희				박경실 권사	우고슬라비아	김정희c			
	터키	이영숙					프랑스	이성희			
	터키 남	이영숙					영국	박인화			
남현희 권사	주한	변영이				김영란 권사	에스토니아	이윤아			
	팔레스틴	김조미					감비아	신은순			
	치치구	송은주					리비아	우홍재			
	대국	이효남				윤정숙 권사	모로코	장복희			
이재선 권사	케르키르 스현	이금희					기니	성금숙			
	이란						소말리아	김정희b			
							튀니지	최숙이			
							알제리	윤석천			
2 대교구 박승호 목사						이재선 권사	세네갈	이효순b			
이영애 권사	수리남	김영민									
	쿠바	박평순									
	우루과이	오순자									
	브라질	최명숙									
이재선 권사	캐나다	이정희									
	페루	박은환									
예배인원                      명						헌금합계                      원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 김동화,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국 선교," *복음과 상황*, 1998년 7월호.
- 김명수,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의 기원," *기독교 사상*, 1998년 9월호.
- 김영남, *도대체 뭘 하지?*, 서울: 죠이 선교회 출판부, 2000.
- 김종렬, *새 천년의 도전과 미래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 서울: 한들 출판사, 1999.
- 도서출판 두란노 편, *일대일 제자 훈련 성경공부*, 서울: 두란노 서원, 1991.
- 명성훈, *교회성장 마인드*, 서울: 국민일보사, 1995.
- 문상철, "종교 선교, 순교, 그리고 복음," *목회와 신학*, 2004년 8월호.
- 박삼열, 이재환, "선교사의 종합적 콜링을 제안 합니다," *목회와 신학*, 2002년 8월호.
- 방선기, "제자 훈련의 중요성," *목회와 신학*, 1990년 6월호.
- 배요한, "이사야 40-66장의 선교 사상과 열방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2002.
- 변재창, *작은 목자 훈련*, 서울: 두란노 서원, 1994.
-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 1990.
- 손봉호, *한국 교회의 미래와 평신도*,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4.
- 신림9동 동사무소, *신림9동 2003년 동정보고서*, 서울: 신림9동 동사무소, 2003.
- 신림교회 1999년부터 2003년 주보.
- 심일섭, 평신도의 역할과 한국교회의 미래, 강남 대학교 신학대학 역음, 353.
- 안교성, "몽골 선교의 회고와 전망," *기독교 사상*, 2004년 4월호.
- 양낙홍, "대형 비리와 한국 교회의 책임," *복음과 상황*, 2000년 1월호.
- 오태균, "21세기 교회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기독교 사상*, 1998년 9월호.
-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84.
- 이동휘, "선교의 위기 이렇게 극복하자," *복음과 상황*, 1998년 7월호, 67.
- 이상만, "교회성장 이론과 그 적용을 평가한다," *기독교 사상*, 1998년 9월호.
- 이성희, *미래 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 2000.

- 이영훈, "성령운동과 제자 훈련과의 만남," *교회 성장*, 2004년 1월호.
-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 협회, 1999.
- 정삼지, "소그룹을 통한 교회 성장," *교회 성장*, 2004년 5월호.
- 정진경, "한국 교회 선교의 비전과 협력," *선교와 신학* 3 (1999).
- 조봉희, *벤처 목회*, 서울: 나침반, 1998.
- 최상태,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교회 사역이 가지는 목회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 최소란, "중동선교 패러다임,이젠 달라져야 한다," *뉴스 앤 조이*, 2004년 7월 17일 인용, Online: <http://www.newsnjoy.co.kr/news/read.php>.
- 한국일, "지성전은 선교가 아니라 선전이다," *기독교 사상*, 2003년 11월호.
- 한국 선교 신학회 편, "선교와 교회 성장," *선교학 개론*, 서울: 기독교 서회, 2001.

## 2 번역 서적

- Barker, Steve,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89.
- Bosch, D. J, *세계를 향한 증거*,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 1995.
- Braaten, Carl E, *현대 선교 신학*,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 Bruce, A. B, *열두 제자 훈련*, 서울: 생명의 말씀사.
- Coleman, Robert E,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Cosgrove, Mark P, *분노와 적대감*, 김만홍 역, 서울: 두란노, 1996.
- Donahue, Bill, *윌로우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서울: 디모데, 2001.
- Danny Lehmann, *영혼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 서울: 예수전도단, 2004.
- Eirns, LeRoy,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조성동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99.
- Hendricks, Howard G, and William D, Hendricks, *삶을 변화 시키는 성경연구*, 정현 역, 서울: 파이디온 선교회, 1993.
- Henrichsen, Walter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80.
- Hunt, Josh with Dr. Larry Mays, *왜 내게 배우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가?*,

- 최일희 역, 서울: 디모데, 1999.
- Hunter, George G. III,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김양석 역, 서울: 프리셉트, 1999.
- James, Wilson I, *권도 전략 원리*,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Johnstone, Patrick,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니다*, 이광규, 유병국 역, 서울: WEC 출판부, 2000.
- Kuhne, Gary W, *제자훈련의 시작과 진행*, 엄종오 역, 서울: 나침반, 1986.
- McGavran, Donald and W. C. Arn, *교회 성장의 열 단계*, 오태용 역, 서울: 신망애출판사, 1993.
- Neibour, Ralph W, *셀 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밴드 목회 연구원, 2000.
- Richards, Lawrence O, *창조적인 성서교수법*,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Sanders, J. Oswald, *영적 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2
- Sanneh, Llamin, *선교신학의 이해*, 전재옥 역, 서울: 기독교 서회, 1993.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Scott, Waldron, *사회 정의와 세계 선교를 향한 제자도*, 강성규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88.
- Shenk, Wilbert R,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한 선교적 교회," *목회와 신학*, 2003년 9월호.
- Verwer, George, *안전지대는 없다*, 김수용 역, 서울: 죠이 선교회 출판부, 2001.
- Wagner, C. Peter, *성령의 은사와 교회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_\_\_\_\_, *교회 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Warren, Richard, *12종류 다이나믹한 성경 연구법*, 이명희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4
- Watson, Davids,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4

### 3. 외국 서적

- Adams, Arther Merrihew, *Effective Leadership for Today's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 Arndt, William F, and F. Wilbub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 Bebbington, David William,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London: Unwin Hyman, 1989.
- Buttrick, George Arthur,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ew York: Abingdon, 1962.
- Congar, Yves M. J. *Lay People in the Church : A Study for a Theology of Laity*, Philadelphia: Newman Press, 1967.
- Costas, Olando E. *Christ Outside the Gate; Mission Beyond Christendom*,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2.
- Dudley, Carl S. *Where Have All Our People Gone? New Choices for Old Churches*, New York: Pilgrim Press, 1979.
- Ford, Leighton, *The Christian Persuade*, New York: Haper and Row, 1966.
- Hoekendijk, J. C. *The Church Inside Out*,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 Hybels, Bill, *Honest to God? Becoming an Authentic Christian*, Grand Rapids: Zondervan, 1990.
- Kraemer, Hendrik,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4.
- Ver Kuyl, Johannes,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8.
- Muller, K. *Mission Theology*, Nettetal: Steyler Verlag, 1987.
- Peters, George W.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Chicago: Moody Press, 1999.
- Teng, Philip, "Twelve Cross in the Apostolic Church," *IN CHINESE CHURCH TODAY*, 1979년 3월 호.
- Warren, Max, *I Believe in the Great Commissio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6.

Vita of  
JOON SIK CHUN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Shinlim Presbyterian Church, Seoul City,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June 16, 1958
Marital Status:	Married to Han Ok Jeong with two Children, Ju Hae and Sang Woo
Home Address:	Keon Young 5th Apt, #101, Shinlim 9 Dong, Kwan Ak-Gu, Seoul City, Korea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PCK)
Ordained:	April 16, 1990

Education:

B. A.:	Yon 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2
M. 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88
Dr.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4

Personal Experience:

01/1988 to 04/1990	Full-time Minister of Incheon First Presbyterian Church, Incheon, Korea
04/1990 to 12/1991	Assistant Pastor of Incheon First Presbyterian Church, Incheon, Korea
01/1992 to 12/1994	Assistant Pastor of Onnuri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01/1995 to present      Senior Pastor  
of Shinlim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